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KEI

사업보고서
2021-09-05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

KEI Environmental Issues in North Korea 2021

강택구 · 이준호 · 이경민 · 김진환



■ 저 자 강택구, 이준호, 이경민, 김진환

■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택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연구원 이준호 (EC21R&C 주임연구원)

 이경민 (EC21R&C 책임연구원)

 김진환 (EC21R&C 선임연구원)

© 2021 한국환경연구원

발행인 이 영 수
발행처 한국환경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인 쇄 2021년 12월 25일
발 행 2021년 12월 30일
등 록 제 2015-000009호(1998년 1월 30일)
ISBN 979-11-5980-535-6 94530
 979-11-5980-530-1 (전6권 세트)
인쇄처 (주)범신사 02-720-9786

이 보고서를 인용 및 활용 시 아래와 같이 출처를 표시해 주십시오.
강택구 외(2021),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

값 7,000원

이 보고서는 2021년 한국환경연구원에서 일반사업과제로 수행한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전6권 세트)의 제1권입니다.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1권) 사업보고서 2021-09-01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 환경협 력사업 개발 연구: 총괄보고서 (강택구)	1. 서 론 2. 2021년 연구사업 요약 3. 1단계 평가 및 향후 계획
(제2권) 사업보고서 2021-09-02	DMZ 일원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방안: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전동준)	1. 서 론 2. 경기권 DMZ 접경지역 현황 3.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개발계획 및 개발사업 현황 4. 경기권 DMZ 및 접경지역 토지파복, 생물서식지 질 및 탄소저장량 5. 경기권 DMZ 접경지역 유형별 개발계획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 사항 6. 결론 및 제언
(제3권) 사업보고서 2021-09-03	북한 자연재해 자료 구축과 협력 전략 (강택구)	1. 서 론 2. 북한 자연재난 30년 분석 (1991~2020년) 3. 북한 자연재난 관련 법제도 및 대응체계 4. 국제사회와 남북한 협력 현황 5. 결론 및 제언
(제4권) 사업보고서 2021-09-04	북한의 기후변화 취약성과 기후변 화 대응을 위한 남북협력(I) (명수정)	1. 서 론 2.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동향 3. 북한지역 기후변화 취약성 검토의 기초 자료 구축과 시범적용 4. 1차연도 결론

“북한 환경상태 조사 및 남북환경협력사업 개발 연구”(계속)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명 (연구책임)	목차
(제5권) 사업보고서 2021-09-05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 (강택구)	1. 북한 매체 보도 동향 2. 국내 매체 보도 동향
(제6권) 사업보고서 2021-09-06	북한 환경상태: 하수도와 폐기물 (박규홍, 이승희)	제1부 1. 서론 2. 북한 하수도 관련 정책 및 법·제도 3. 북한 하수도 일반 현황 4. 북한 하수도의 관리 5. 결론 및 제언 제2부 1. 서론 2. 북한 폐기폐설물(폐기물) 관련 법·제도 3. 북한 폐기폐설물(폐기물) 문헌정보, 분류체계와 관리현황 4. 북한 폐기폐설물(폐기물)의 관리분석 5. 북한 폐기폐설물(폐기물) 관리에 대한 시사점 및 관리방안 6. 결론 및 제언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 구성

「KEI 북한환경동향」북한 환경 현황에 관심 있는 연구자, 공무원, 학생, 일반국민 등에게 북한 환경 관련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발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하게 발간하지 못한 해도 있었다. 2017년부터는 매년 1차례 발간하고 있다.

이번에 발간하는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에는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북한과 국내의 언론매체에 보도된 북한의 환경 관련 자료를 환경분야별로 구분하여 수록하였다.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의 발간 역시 코로나19로 도서관 접근이 용이하지 않아 2020년도와 마찬가지로 통일부에서 운영하는 북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월간 북한동향」에 기초한 관련 자료를 수집 및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월간북한동향」은 통일부에서 선별하고 가공한 2차 자료이며, 여기서 다루는 북한 매체는 중앙통신, 중앙방송, 『노동신문』, 『민주조선』이다.

한편 국내 매체의 기사 수집은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뉴스 빅데이터 분석 사이트 빅카인즈(<https://www.bigkinds.or.kr>)에서 진행하였다. 대상 매체는 중앙지 11곳(『경향신문』, 『국민일보』, 『내일신문』, 『동아일보』, 『문화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경제지 8곳(『매일경제』, 『머니투데이』, 『서울경제』, 『아시아경제』, 『아주경제』, 『파이낸셜뉴스』,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방송사 5곳(KBS, MBC, OBS, SBS, YTN)이었다.

북한과 국내 매체 보도 내용에 관한 수집과 정리는 예년 자료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과거 발간한 「KEI 북한환경동향」에서 제시한 분야에 근거하는 한편, 북한과 한국 매체 보도 내용의 분야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였다. 이번 2021년에는 북한과 한국 매체 보도 내용의 구분에 있어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각각 15개 분야로 구분하였다. 각 세부 분야는 한반도 및 국토 환경, 기상, 대기와 에너지, 지질과 지형, 수자원, 산림, 농업과 축산, 식량, 토양, 해양, 생태계(동식물),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보건과 환경오염, 환경정보화와 과학기술, 정치경제이다.

| 차례 |

제1장 북한 매체 보도 동향	1
1. 한반도 및 국토 환경	1
2. 기상	19
3. 대기와 에너지	20
4. 지질과 지형	24
5. 수자원	28
6. 산림	33
7. 농업과 축산	39
8. 식량	57
9. 토양	58
10. 해양	60
11. 생태계(동식물)	62
1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65
13. 보건과 환경오염	68
14. 환경정보화와 과학기술	70
15. 정치경제	78
 제2장 국내 매체 보도 동향	 83
1. 한반도 및 국토 환경	83
2. 기상	91
3. 대기와 에너지	92
4. 지질과 지형	101
5. 수자원	103
6. 산림	105

7. 농업과 축산	109
8. 식량	122
9. 토양	137
10. 해양	138
11. 생태계(동식물)	141
1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142
13. 보건과 환경오염	149
14. 환경정보화와 과학기술	156
15. 정치경제	163

제1장

북한 매체 보도 동향

1. 한반도 및 국토 환경

■ 해안구조물복구공사 본격적으로 추진(『노동신문』, 2020.12.5)

- 강원도 수산물관리국 안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태풍과 해일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해안 방조제와 부두 등을 전부 복구하였음
- 성남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등 여러 단위에서 부두, 방파제공사가 진행되었음
- 함경북도 수산물관리국 련진수산사업소, 고말산대서양련어바다양어사업소의 노동자들이 부두공사를 끝내었으며 성남수산사업소, 김책수산사업소 등에서 부두, 방파제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 도로와 다리, 하천제방보수공사성과 확대(『노동신문』, 2020.12.7)

- 동해지구 수산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해안구조물복구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음
- 강원도 수산물관리국 안의 일군들과 노동자들이 줄기찬 전투를 벌려 태풍과 해일에 의하여 파괴되었던 해안방조제와 부두 등을 전부 복구하였음
- 황해북도에서는 도로와 다리 등에 대한 보수를 질적으로 진행 중임

■ 중소하천제방공사를 본격적으로(『노동신문』, 2020.12.10)

- 회령시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0여 개의 중소하천들에 대한 제방공사를 진행하였
- 현재 시적으로 수만 m의 제방공사가 진행되었음

- 시에서는 공사량이 방대한 조건에 맞게 중기계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힘을 넣는 한편 예비와 가능성을 총동원하고 있고 이와 함께 막돌 확보에 역량을 집중했음

■ 다사도갑문개건보수공사 완성(『노동신문』, 2020.12.13)

- 염주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다사도갑문개건보수공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공사 결과 영농시기에는 잡아놓은 물로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게 되었으며 장마철에는 큰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음

■ 강원도, 갈마 바닷가 양식사업소 등 중요 대상건설에 총력(『중앙통신』, 2020.12.18)

- 강원도에서 중요 대상건설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음
- 도에서는 갈마바다가양식사업소와 원산양어사업소건설을 마감 단계에서 내밀고 있음
- 매봉산의료용소모품공장, 송도원통줄임공장, 원산기초식품공장, 평강가죽이김공장, 원산온실농장 건설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음
- 도에서는 또한 고성군민발전소와 세포군민발전소, 회양군민발전소건설을 다그쳐 끝내기 위해 힘을 넣고 있으며 살림집건설 및 대보수도 적극 내밀고 있음
- 천내리세멘트공장, 룡담세멘트공장, 안변요업공장 등 건재공업 부문의 공장, 기업소들을 현대적으로 개건하고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해나가고 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현지요해(『중앙통신』, 2020.12.20)

- 김덕훈 내각 총리가 금강산관광지구의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금강산지구를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국제관광문화지구로 훌륭히 꾸리기 위한 개발사업을 연차별, 단계별 계획에 따라 밀고 나가며 인민들이 자연경치를 한껏 즐기면서 휴식할 수 있게 건설에서 선 편리성, 선 미학성의 원칙을 철저히 지킬 데 대하여 언급함
- 관광지구를 금강산의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식으로 건설함으로써 민족의 명산 금강산이 인민을 위해 복무하는 명산,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문화휴양지로 되게 할 데 대하여 강조함

■ 김덕훈(내각 총리), 함경남북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중앙통신』, 2021.3.3)

- 김덕훈 내각 총리는 금속,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생산 정상화와 정비 발전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함께 올해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문제들을 협의 대책하였음
- 또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건설, 철도현대화에 필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는데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함

■ 량강도에서 세멘트생산능력확장공사 추진(『노동신문』, 2021.3.10)

- 량강도에서 당 제8차 대회에서 제시된 과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멘트생산능력 확장공사를 적극 내밀었음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에서는 지방건설에서 매우 중요한 세멘트 보장을 위한 구체적인 작전을 세웠음
- 량강도에서는 주원료인 석회석 생산을 앞세우면서 석탄을 원만히 보장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생산능력확장공사를 입체적으로 밀고 나가고 있음
- 혜산세멘트공장이 자리잡고 있는 지역에 풍부히 매장된 석회석의 다량채굴을 위해 얼마 전 10만산발파가 진행되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건설 준비정형 현지요해(『중앙통신』, 2021.3.10)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덕훈 내각 총리가 강원도 김화군의 지방공업 공장건설 준비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시, 군 강화로선을 관철하고 지방공업공장의 새로운 기준을 창조하려는 당 중앙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중앙과 도,군의 일군들이 건설준비를 빈틈없이 갖추어 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이와 함께 공공건물건설에서 선 하부구조건설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하천정리사업을 추진하는 데서 나서는 대책들을 강구하였음

■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황해북도 광천닭공장건설정형 현지요해(중앙통신, 2021.3.11)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최룡해 상임위원장이 광천닭공장건설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였음
- 일군들과 건설자들이 공장을 우리나라 가금 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일떠세우려는 당 중앙의 높은 뜻을 깊이 새기고 건설물의 질 보장에 최선을 다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에서는 건축공사를 높은 질적 수준에서 계획대로 추진하며 공사일정에 맞게 설비제작을 따라세우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평안남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중앙방송, 2021.3.16)

-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덕훈 내각 총리는 평안남도 안의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요해했음
- 소성직장과 세멘트직장을 비롯한 기업소의 여러 곳을 돌아보면서 설비보수를 앞세우고 공정 간 관계를 강화하며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울 데 대해서 강조했음
- 현지에서 진행된 협의회들에서는 현행계획과 전망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설비개조, 기술개조를 추진하여 세멘트생산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하며 농업 부문에서 당면한 영농준비를 다그치는 것과 함께 분조관리제 안에서의 포전담당 책임제를 정확히 실시하기 위한 대책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김정은 총비서, 평양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착공식 참석(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1.3.24)

- 당 제8차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는 5개년계획 기간에 전국적으로 살림집 건설을 힘있게 내밀면서 우리 수도에만도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일떠세우며 이를 위해 매해 1만 세대씩 건설할 것을 결정하였음

- 2025년까지 해마다 1만 세대씩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지으면 이미 건설 중에 있는 1만 6,000여 세대의 살림집까지 포함하여 거의 7만 세대의 살림집이 생겨나 수도 시민들의 살림집 문제가 철저히 해결될 것임
- 올해의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은 5년 전 려명거리 건설을 시작할 때와도 완전히 다른 형편에서 진행, 그 몇 배나 되는 작업량을 단시일 내에 해제껴야 하는 방대한 공사업
- 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수도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고 당 대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한 첫 해의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므로 무조건적으로 추진하기로 하였음

■ 김정은 총비서, 호안다락식주택구 · 여객버스 시제품 공개활동(중앙통신·『노동신문』, 2021.3.26)

- 김정은 총비서는 보통문 주변 강안지구에 호안다락식주택구를 새로 일떠세울 구상을 밝히고 현지를 돌아보았음
-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 흐르는 경치 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 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 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하여 설명하였음
- 호안다락식주택구 800세대 건설은 … 각 부문의 노력혁신자, 공로자들과 과학자, 교육자, 문필가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선물하려 한다고 언급하였음

■ 김정은 총비서, 보통강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 공사장 재차 현지 시찰 (중앙방송·중앙통신·『노동신문』, 2021.4.1)

- 김정은 총비서는 당 중앙위원회 비서들과 함께 또다시 공사장 현지를 돌아보았음
 - 본격적인 건설전투에 진입하기 위해 현장을 차지하고 있는 시공 단위들의 전개 모습을 돌아보며 시공분담구역을 료해하였음
- 800세대 다락식주택구건설을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중략)...모든 단위들에서는 대상의 중요성을 바로 인식하고 불같은 헌신과 완강한 실천으로써 우리 당의 원대한 수도건설정책을 관철해나가야 한다고 격려함

- 공정계획을 면밀히 세우고 건설조직과 지휘를 빈틈없이 하며 설비와 자재보장을 철저히 실천하고 단위별 정치사업과 경쟁조직사업을 장려하여 속도전, 실력전에서 도시주택건설의 본보기적 경험을 창조하여야 한다고 함

■ 명문천정리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4.3)

- 동신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명문천정리 2단계 공사를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명문천정리는 지방공업공장들의 공업용수를 원만히 보장할 뿐 아니라 인민의 생명재산과 부침땅을 보호하는 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짐
- 공사에 참가한 여러 기관, 기업소 근로자들은 제방과 장식쌓기를 다리공사와 동시에 내밀고 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함경남북도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중앙통신, 2021.4.3)

- 김덕훈 내각 총리는 금속,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생산 정상화와 정비 발전계획을 실행하는 것과 함께 올해 경제과업을 수행하는 데서 해결하여야 할 중요 문제들을 협의 대책하였음
- 또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 철도현대화에 필요한 철강재를 제때에 생산보장하는 데 힘을 집중할 데 대하여 강조함
- 중요 공업기지들의 현행생산을 활성화 하면서 생산토대를 보강하는 데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단위별 중점과제들을 료해하고 그 실현을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언급함

■ 김덕훈 내각 총리, 평양시 살림집 건설장과 중앙양묘장 현지요해(중앙통신·『노동신문』, 2021.4.10)

- 김덕훈 내각 총리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과 중앙양묘장을 현지요해하였음
- 금속공업과 철도운수 부문에서 철강재를 증산하고 물동들을 신속히 수송하는 데 힘을 넣는 것을 비롯하여 련관 부문에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설비들을 최우선적으로 제때에 보장할 것을 언급하였음

- 중앙양묘장에서는 나무모 생산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수종이 좋은 원림녹화용 나무모 생산을 늘이는 문제를 중요하게 강조함

■ 봄철국토관리사업 활발히 전개(『노동신문』, 2021.4.10)

- 평안북도에서 봄철국토관리사업을 활발히 벌려 지역의 면모를 일신시키고 있음
- 도에서는 올해 국토관리사업에서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통이 큰 목표 밑에 단계별 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대중을 불러일으키는 조직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고 있음
- 박천군에서 도로 포장과 물도랑 정리, 안전보호말뚝설치와 다리란간개건에 힘을 넣어 도로기술개진을 다그치고 있음
- 녕변군에서는 도로 상태가 나쁜 구역들에 대한 보수를 집중적으로 진행함
-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군중적 운동으로 활발히 전개되는 속에 신의주시에서 오수정화장의 정화효율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대책들을 세우며 깨끗한 환경을 마련하고 있음

■ 강하천정리사업을 힘있게 벌려(『노동신문』, 2021.4.12)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국토관리사업에 따라 강하천들의 큰물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정리하고 있으며 적지 않은 단위들이 봄철국토관리총동원계획에 반영된 강바닥 파기를 끝냈음
- 만경대구역, 력포구역, 강동군, 피현군, 성천군, 평원군, 덕천시, 곡산군, 함흥시 동흥산구역, 홍원군, 북청군에서 강바닥 파기를 끝냈음
- 다른 시, 군, 구역들에서도 강하천 정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은률광산과 황해남도 농업부문 사업 현지요해(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1.4.18)

- 김덕훈 내각 총리는 은률광산의 청년광구 등을 돌아보았음
- 올해는 금속공업의 해로 더 많은 철광석을 생산하여 대야금 기지들에 보내주며 서해

리 분광산 개발사업을 다그쳤음. 그리고 선진 과학기술 도입을 위한 구체적 문제들을 언급함

- 또한 황해남도 여러 협동농장에서 실리 있는 영농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며 농산작업의 기계화 비중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이와 함께 농업지도 일군들의 형식주의와 같은 낡은 사업태도를 철저히 극복하며 유기질 복합비료 생산과 저수확지에서의 알곡 증산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실속 있게 전개할 데 대하여 지적함

■ 해안구조물보강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4.28)

- 함경남도에서 해안구조물보강사업을 추진하여 해일과 태풍피해를 막기 위한 부재생산에 역량을 집중 중임
- 도에서는 부재생산을 늘여 장마철 전으로 자연피해막이대책을 세울 목표 밑에 일정 계획을 작성하고 모든 역량을 총동원 중임
- 일군들은 부재생산에 필요한 세멘트와 모래, 자갈 등의 생산량을 늘이도록 하는 중임

■ 평북 홍건도간석지 2단계 및 황남 룡매도간석지 3, 4구역 완공 보도(『노동신문』·중앙통신, 2021.5.1)

- 평안북도 홍건도간석지 2단계, 황해남도 룡매도간석지 3, 4구역 건설 완공으로 1만 3,000여 정보의 새 땅을 확보했음
- 과학연구기관들과의 긴밀한 연계 밑에 실정과 실리에 맞으면서도 합리적인 새로운 공법들을 창안 도입하기 위한 대중적 기술혁신운동이 활발히 벌어졌음

■ 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힘있게 추진(『노동신문』, 2021.5.5)

- 총동원사업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수백만 m^3 의 강바닥 파기와 수백 km 구간의 도로 건설 및 기술개건사업 등이 진행되었음
- 태천군에서 료전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여 매일 수십 m^3 의 강바닥 파기와 성토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많은 면적의 호안림을 조성하였음

- 선천군, 평원군, 름산군 등지의 근로자들도 강바닥 파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순안구역, 력포구역에서는 날마다 많은 량의 강바닥 파기와 함께 제방보수공사도 실속 있게 내밀고 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삼지연시 안의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신문』·중앙통신, 2021.5.13)

- 김덕훈 내각 총리는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를 하고 있는 포태동, 리명수동을 비롯한 건설장들과 216사단의 자력갱생기지들을 돌아보았음
- 김덕훈 내각 총리는 삼지연 시인민병원, 들쪽음료공장, 감자가루 생산공장을 돌아보면서 단위들이 혁신적인 경영전략으로 단위발전을 추동하고 당 정책 관철에서 본보기를 창조해 나감으로써 인민생활 향상과 지방공업발전을 적극 견인할 데 대하여 언급함
- 모든 시, 군들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일신시키는 데서 나서는 실무적 문제들이 토의됨

■ 관개시설보수, 하천정리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5.13)

- 황해북도에서는 서흥호물길, 미루벌물길을 비롯한 도안의 기본 물길들의 수로가시기 및 구조물 보수를 전부 결속한 데 이어 큰물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개소들을 빠짐없이 장악대책하고 있음
- 름산군, 수안군에서는 균중적 운동으로 중소 하천들의 바닥 파기를 진행하였으며 서흥군의 근로자들은 돌격대활동으로 10여 리 구간의 관개물길을 원상복구하였음
- 서해물길 일부 구간에 대한 능력확장공사와 10여 개소의 관개구조물 신설 및 보수공사를 다그쳐 끝낸 남포시 온천군에서는 안석간석지논에 물길을 새로 개설하였음

■ 혁명적당군의 창조본때로 산악협곡도시건설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5.15)

- 검덕지구에 당 중앙의 구상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기간 검덕광업연합기업소,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에 2만 5,000세대의 살림집이 새로 일떠서게 되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이미 적지 않은 단층, 소층, 다층살림집들의 기초굴착공사가

결속되었으며 기초콘크리트치기를 끝낸 부대들에서 골조공사를 다그치고 있음

- 검덕광업연합기업소지구의 살림집 건설의 수만 m³의 기초굴착과 기초콘크리트치기를 해제된 부대의 군인 건설자들은 10여 동의 소층, 다층살림집골조공사에 일제히 진입 하였음

■ 김덕훈 내각 총리 현지요해 동향 (중앙통신·『노동신문』, 2021.5.16)

- 김덕훈 내각 총리는 발전설비조립상태와 송전계통을 구체적으로 요해하면서 발전기 시운전 준비에서 과학성과 안전성을 철저히 보장하고 수력구조물 관리를 짜고들 데 대하여 강조함
- 김덕훈 내각 총리는 순천세멘트 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며, 광산 일군들과 노동계급이 8차 당대회와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에서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명심하고,
- 건설에 필요한 세멘트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광물 증산 목표와 수행방도를 현실성 있게 세우며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고 채굴계단 형성과 운반능력 제고를 비롯한 사업을 전망적·입체적으로 전개할 데 대해 언급함

■ 김덕훈 내각 총리, 함남·함북 사업 및 영농실태 요해(『노동신문』·중앙통신·중앙방송, 2021.6.1)

- 김덕훈 내각 총리는 함남·함북 여러 부문 사업을 현지 요해하였음
 - (김책제철연합기업소) 에너지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 건설에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설비 가동률 제고, 정광수송체계 완비에 대하여 강조함
 - (청진제강소) 현존 생산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하고 원료, 연료, 자재보장대책에 따른 생산 증가를 언급함
 -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철광석 생산 활성화를 강조함
 - (라남탄광기계연합기업소, 회령탄광기계공장) 현대적인 탄광기계설비들을 개발 생산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함
 - (현지 협의회) 주체 철 생산능력을 높이며 북부지구의 갈탄을 선철 생산에 이용하기

위한 대책 토의, 연관 단위 설비·자재 보장,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철강재 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직사업이 이루어짐

- (농장) 단천시, 회령시, 홍원군, 북청군, 금야군, 고원군의 여러 농장을 돌아보면서 당면한 영농실태를 알아보고 해당하는 대책을 강구함

■ 태풍피해를 미리 막기 위한 해안구조물보강공사 진행(『노동신문』, 2021.6.6)

- 동해지구 수산 단위들에서 태풍과 해일피해를 막기 위한 해안구조물보강공사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임
- 홍원수산사업소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수백 m²의 부두상판콘크리트치기공사를 결속 하였으며 서호수산사업소 등에서도 해안구조물보강을 위한 사업을 일정 계획대로 내밀고 있음
- 신포원양수산연합기업소 단천선박공장에서는 마련한 쇠그물돌자루들로 1차 피해막 이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신포수산사업소에서는 부두공사를 내밀고 있음

■ 해안방조제보강공사에 역량을 집중(『노동신문』, 2021.6.20)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에서는 래일 이란 있을 수 없다는 관점 밑에 해안방조제보강공사를 힘 있게 다그치고 있음
- 해주시에서는 여러 개소의 해안방조제보강공사를 진행한 데 이어 장식보수작업을 힘 있게 내밀고 있음
- 강령군과 웅진군을 비롯한 다른 지역들에서도 해안방조제보강공사를 본격적으로 내 밀어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사를 안전하게 지을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해가고 있음

■ 연면수제방공사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6.24)

- 연사군에서는 태풍과 큰물에 의한 피해막이대책을 철저히 세우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틀어쥐고 그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연면수제방공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여 현재 수천 m 구간의 장식쌓기와 제방성토가 진행되었으며 하천 바닥 파기도 동시에 벌어지고 있는 중임

- 군에서는 재해성 이상기후현상을 기정사실화하고 산골몰이 합쳐지는 연면수의 제방을 든든히 보강하기 위한 공사를 힘있게 다그치고 있음

■ 최룡해 제1부위원장 광천닭공장 방문(『노동신문』, 2021.6.25)

- 최룡해 제1부위원장은 광천닭공장 건설 정형을 현지에서 요해하고 공사현장을 돌아보면서 광천닭공장을 가금 부문의 본보기, 표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건설자들을 격려해주고 이들의 생활환경 보장을 강조하였음
- 최룡해 제1부위원장은 현지에서 진행된 관련 부문 일꾼들과 협의회에서 식생활향상에서 공장 건설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당에서 정해진 기일과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공하기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였음
- 협의회에서 일부 관련 단위들의 설비, 자재보장사업에서 나타는 문제점들을 강하게 총화하였으며 건축공사와 설비 제작을 일정대로 추진하는 것과 함께 원림녹화와 운영 준비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해나가기 위한 조직사업이 있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서부지구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신문』·중앙통신, 2021.6.27)

- 김덕훈 내각 총리는 남흥청년화학 연합기업소를 돌아보며 사회주의 농촌에 더 많은 비료를 생산 보장할 데 대하여 강조함
- 신의주화학 섬유공장, 봉화화학 공장에서는 생산 활성화와 개건현대화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가며 설비, 자재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화학공업 발전의 자립적 토대를 다져나갈 데 대하여 언급함
- 평안북도 시·군 협동농장의 농작물 생육상태와 김매기, 앞그루밀, 보리 수확, 유기질 복합비료공장들의 생산정형을 요해하였음. 과학적인 영농방법 도입과 효능 높은 유기질비료생산을 다그쳐 올해 알곡생산목표를 무조건 수행할 데 대하여 지적함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 힘 있게 추진(『노동신문』, 2021.7.4)

- 지난 상반기 기간 수백 동의 살림집 및 생산건물골조공사와 외부미장을 끝내었으며 현재 내부미장과 기와씌우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성, 중앙 기관려단에서 자체의 인적, 물적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짜고 드는 한편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작업공정들을 기계화, 전문화함으로써 월마다 맡겨진 계획을 110% 이상 수행하였음
- 려단에서는 공사의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면서 100여 세대의 살림집과 10여 동의 공공건물, 생산건물의 골조 및 내외부미장공사를 사단적으로 제일 먼저 끝내였음

■ 산과 강을 다스려 자립적 발전의 지름길을 열어간다(『노동신문』, 2021.7.10)

- 전천군에서 단나무림, 잣나무림, 수유나무림, 돌배나무림, 분지나무림 등을 구역별로 조성하고 그에 대한 비배관리를 전문화하도록 함으로써 군안의 식료가공기지들의 생산 정상화에 필요한 원료를 넉넉히 마련하고 있음
- 군산림경영소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군중동원의 방법으로 올해 봄철 나무 심기 기간에만도 수백 정보의 잣나무림, 살구나무림을 조성하였음
- 군에서는 능력이 큰 창진발전소 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읍지구 주민 세대들의 조명 보장과 지방공업공장들의 동력문제를 자체로 해결하였음

■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 힘있게 전개(『노동신문』, 2021.7.14)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지난 10일 현재 수백 개의 저수지, 1,000여 km의 강하천 제방, 300여 km의 배수로, 200여 km의 승수로 등 관개시설 및 구조물들이 보수정비 되었으며 수십 km 구간의 해안방조제가 보강되었음
- 평안남도에서는 수문정상가동에 필요한 원동기와 양수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를 알심 있게 하는 한편 강하천정리공사를 힘있게 내밀고 있음
- 황해남도에서는 배수갑문과 방수문 보수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도랑들의 폭을 넓혀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비물에 의해 부침땅이 매몰되거나 류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평양시, 검덕지구, 삼지연시 등 살림집 건설 동향(『노동신문』, 2021.7.18.·22)

-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과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장, 검덕지구살림집 건설장에서 공사성과가 계속 확대됨

- 당의 웅대한 건축발전 구상과 인민대중 제일주의 건축이념이 구현된 보통강강안다락 식주택구 건설장에서 화선(최전선)선전, 화선선동활동이 벌어지고 있음
- 216사단의 전투원들은 삼지연시 꾸리기 3단계 공사에서 집단적 혁신을 창조하고 있음

■ 김덕훈 내각 총리, 평양시 살림집 건설현장 현지 요해(『노동신문』, 2021.7.26)

- 김덕훈 내각 총리는 평양시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을 돌아보면서 당 중앙의 수도 건설구상을 결사의 실천으로 받아들일 열의를 안고 새로운 평양속도, 건설신화를 창조해가는 건설자들을 격려하였음
- 작전과 지휘를 과학적인 타산 밑에 보다 주도 세밀하게 하며, 지속되는 폭염에 대처하여 건설자들의 작업조건, 생활조건 보장에 관심을 돌릴 데 대해 말하였음

■ 기초식품공장건설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7.31)

- 강원도에서 기초식품공장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음
- 공장에는 간장, 된장 생산공정, 기름 짜는 공정 등이 갖추어지게 되었음
- 올해에 들어와 기본생산건물과 사무청사에 대한 외부미장공사 등을 진행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기본생산건물 내부미장과 지붕공사를 내밀면서 성과를 확대해나가고 있음

■ 제방공사에서 혁신(『노동신문』, 2021.8.17)

- 홍원군에서 피해를 입은 제방을 다시 쌓고 하천바닥정리와 함께 메워진 관개물길을 환원복구하는 사업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공사장에 달려 나온 읍 지구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두녀맹원들은 수천 m³의 성토작업과 제방석축작업을 진행하면서 파괴되었던 수백 m 구간의 제방을 짧은 기간에 복구하였음
- 군적으로 관개물길들을 복구하기 위한 사업도 활발히 추진하고 있고 보현리와 방평리 사이 관개물길의 환원 복구에 펼쳐나선 결과 천수백 m의 관개물길을 환원 복구할 수 있었음

■ 김정은 총비서,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사업 현지지도(『노동신문』, 2021.8.21)

- 김정은 총비서는 보통강 강안 다락식주택구 건설사업을 현지지도하였음
- 정상학, 조용원, 리히용 등 당 중앙위원회 간부들과 건설에 참가한 단위의 지휘관, 책임일군들이 맞이함
- 보통강 기슭에 현대적이면서도 특색 있게 건설되고 있는 인민의 이상거리가 불과 몇 개월 만에 웅장하고 화려한 자태를 드러냈음

■ 지방 공업공장들의 개건현대화 추진(『노동신문』, 2021.8.29)

- 강계시에서 설비, 자재보장을 선행시키면서 장자산 종합식료공장과 강계 기초식품공장, 어린이 식료공장의 개건공사를 힘있게 다그치는 한편 종이공장 등에서 현존 설비들을 정비보강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일용품생산협동조합의 생산공정이 전면적으로 개건되고 미립분무기와 각종 규격의 수지관, 수지그릇 등 질 좋은 수지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음
- 전천군에서 수지일용품공장의 건물 개조와 설비 갱신을 진행하여 여러 가지 수지제품 생산을 늘이고 있으며 만포시와 중강군 등에서도 지방 공업공장들의 개건을 적극 다그치면서 원료원천을 동원리용하여 기초식품과 필수품 생산성과를 확대하고 있음

■ 군민의 단합된 힘으로 함경남도 피해복구성과 확대(『노동신문』, 2021.9.2)

- 함흥시 회상구역 쌍봉리와 령봉굴 사이의 도로 복구가 진행 중이고, 성천강 제방도로 복구공사장에서는 가물막이와 막돌채취 등을 진행 중임
- 영광군에서는 기곡다리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음
- 군민협동작전으로 자연재해의 흔적을 가시기 위해 홍원군 공덕다리, 신흥군 흥복다리를 비롯한 여러 다리복구공사도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홍건도간석지에 벼바다 펼쳐졌다(『노동신문』, 2021.9.3)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은 홍건도간석지 1, 2단계 건설을 완공하여 1만 정보의 새 땅을 얻어내었음

- 군민협동작전으로 방대한 토량처리와 수만 m^2 의 장식 쌓기 등을 해제끼고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동래강 저수지언제를 일떠세웠음
- 농업과학자들은 염기피해를 비롯한 각종 피해에 잘 견디는 새로운 우량품종 도입과 확보에 큰 힘을 넣었음

■ 큰물피해복구에 충성과 애국의 열정을(『노동신문』, 2021.9.12)

- 회상구역 성원리와 령봉리 사이의 도로복구공사장에 달려 나간 3천여 명의 녀맹원들은 저녁 늦게까지 수천 m^2 의 막돌을 나르며 도로복구와 강하천 정리를 진행하였음
- 사포구역의 어느 한 초급녀맹위원회에서는 초급일군들과 녀맹원들을 발동하여 1만 3천여 m^2 의 강바닥 파기와 수백 m^2 의 강하천 제방 쌓기, 잔디 입히기를 진행하였음
- 동흥산구역과 회상구역의 녀맹돌격대원들은 큰물로 도로가 끊어진 회상구역 리전리 까지 수십 리 길을 걸어가 도로 복구를 끝낸 기세로 살림집 건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음

■ 곡하다리 새로 건설, 개통(『노동신문』, 2021.9.13)

- 자강도에서 강계시의 곡하지구에 새 다리를 일떠세웠음
- 곡하다리가 새로 건설됨으로써 시안의 주민들의 교통상 편리를 도모할 뿐 아니라 이 지역에 위치한 기관, 기업소, 농목장들이 계절적 조건에 구애됨이 없이 경영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게 되었음
- 강계강목생산사업소 등에서 달려 나온 건설자들은 새로운 가물막이방법과 수중착암, 수중타입방법을 받아들여 교각타입공사를 두 달 이상이나 앞당김

■ 김덕훈 내각 총리 인민경제 여러 부문 사업 현지요해(『노동신문』·중앙통신, 2021.9.15)

- 김덕훈 내각 총리는 평안북도 룡천군 학흥리와 동하리, 염주군 내중리를 돌아보면서 당면한 농사실태를 요해하였음
-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여 논밭 비배관리를 책임적으로 하고 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집중하여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며 다음해 농사 준비도 예견성 있게

갖출 데 대하여 강조함

- 현지 협의회들에서는 가을걷이와 탈곡에 역량을 총동원하며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농업경영 관리방법을 개선하는 데서 나서는 실천적 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수도에 또 하나의 건설전역이 펼쳐졌다(『노동신문』, 2021.10.7)

- 1만세대 살림집건설이 힘있게 추진되는 속에 대평지구에 또 하나의 건설전역이 펼쳐졌음
- 짧은 기간에 가설건물들이 규모있게 전개되고 공사를 위한 수천 m의 룬환선도로건설과 수만 m²의 지대정리작업도 20일 만에 결속되었음
- 수만 m²의 혼석과 자갈, 모래가 확보되고 살림집건설을 위한 기초굴착작업도 추진되게 되었음

■ 가을철국토관리총동원사업 군중적운동으로 전개(『노동신문』, 2021.10.14)

- 국토환경보호성과 각 도, 시, 군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해 전국적으로 보름 남짓한 기간에 수백 km의 도로기술개건, 수백만 m²의 강바닥파기 등이 추진되었음
-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수십개 대상에 대한 강하천정리, 제방성토, 장석공사, 강바닥파기를 최단기간내에 질적으로 결속하였음
- 철산군에서 도로건설계획 밑에 2000여 m²의 옹벽공사를 하고 백수십개소에 안전보호말뚝을 새로 설치하였으며 고산군에서는 30여 km구간에 대한 도로기술개건과 안전시설물설치를 마무리하였음

■ 삼지연시 살림집 성과 보도(『노동신문』·중앙통신, 2021.10.28)

- 삼지연시꾸리기 3단계 공사에 나선 216사단은 맡겨진 살림집 건설을 전부 결속(완료)하는 자랑스런 성과를 이룩하였음
- 살림집 입사모임들이 20일부터 27일까지 리명수동, 신무성동, 5호물동동, 포태동, 보서리, 통신리, 백삼리, 중흥리, 흥계수리, 소백산리에서 진행되었음

■ 군중적운동으로 가을철국토관리사업 힘있게 전개(『노동신문』, 2021.11.3)

- 남포시의 일군들은 시안의 국토관리실태에 맞게 단계별계획을 세우고 각종 중기계를 비롯한 물질기술적수단들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을 선행시키고있음
- 항구구역과 와우도구역 등에서 강하천정리에 력량을 집중하여 10여만 ㎡의 강바닥 파기와 6,000여 ㎡의 장식쌓기를 끝내였음
- 강서구역과 대안구역의 농업근로자들은 큰물피해위험요소가 있는 강하천들의 바닥 파기와 물길곧추퍼기를 전개하고 물뚝공사도 하여 많은 면적의 농경지를 보호할수 있게 하였음

■ 김정은 총비서, 삼지연시 3단계 건설사업 현지지도(『노동신문』, 2021.11.16)

- 김정은 총비서는 모든 건설대상들이 당의 주체적 건축미학 사상과 지방건설에 관한 방침적 요구에 맞게 구현되였음을 높이 평가함
- 당의 건설정책을 추진해나가자면 지방의 건설역량과 설계역량을 강화하고 물질 기술적 토대를 튼튼히 꾸리는 것이 현시기에 가장 절박하게 나서는 선결적 문제로서 전략적 과업임을 강조함

■ 자강도에서 수천세대의 살림집 건설(『노동신문』, 2021.11.19)

- 자강도에서 올해에 들어와 수천세대의 살림집을 새로 건설하여 인민들에게 보금자리를 마련해주었음
- 강계시에만도 수백 세대의 살림집이 건설되여 시의 면모가 더욱 일신되였음
- 랑림군에서 읍지구에 여러 동의 다층살림집을 완성하였으며 송원군에서 100여 세대의 살림집을 근로자들에게 마련해주었음

■ 국토관리사업을 힘있게 추진(『노동신문』, 2021.11.20)

- 함경남도의 일군들은 시, 군들에서 강바닥파기와 제방성토, 제방장석공사 등에 큰 힘을 넣도록 조직정치사업을 실속있게 진행하고있음
- 군들에서는 지난 시기 나타난 편향들을 분석한 데 기초하여 물통과능력을 높이고

제방의 안전성을 철저히 담보하기 위한 강하천정리에 기계화수단을 집중하고있음

- 정평군, 고원군에서도 제방을 보수하는 것으로 하천들의 최대물량과 흐름속도, 지대적특성을 과학적으로 타산하여 하천정리사업을 힘있게 내밀고 있음

■ 전국적으로 강하천정리사업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11.28)

- 올해에 들어와 전국적으로 2800여만 m^3 의 강바닥파기와 9400여만 m^3 의 제방성토공사, 3200여만 m^3 의 장식쌓기가 진행되었음
- 향산군에서는 올해 국토관리총동원기간에 수행하여야 할 강하천정리공사를 상반기 안에 결속하였으며 추가적으로 세운 1만여 m^3 의 강바닥파기계획도 11월초까지 전부 끝내었음
- 신계군에서 공사용자재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침교리 강하천들의 바닥파기, 제방장석공사를 기한 전에 결속한 것을 비롯하여 황해북도에서도 강하천정리가 힘있게 추진되었음

2. 기상

■ 추위, 센바람주의경보 발령(『노동신문』, 2021.11.20)

- 22일부터 25일 아침까지 전반적지역에서 추위주의경보가 내려졌음
- 기상수문국의 통보에 의하면 22일부터 대륙고기압의 변두리를 따라 바람이 세게 불면서 북쪽의 찬 공기가 흘러들어 날씨는 추워지며 특히 이 기간에 제일 낮아질 23~24일 아침 최저기온은 북부내륙지역에서 $-2.2 \sim -1.4^{\circ}\text{C}$, 백두산지구에서 $-2.5 \sim -2.2^{\circ}\text{C}$, 중부내륙지역에서 $-1.4 \sim -7^{\circ}\text{C}$, 평양시를 비롯한 그밖의 지역에서는 $-7 \sim -1^{\circ}\text{C}$ 로 예상되었음
- 또한 22일부터 23일까지 동서해안의 대부분지역에서 10m/s 이상의 센바람이 불고 일부 지역에서는 한때 15m/s 이상의 강풍이 불 것으로 보고있음

3. 대기과 에너지

■ 석탄공업 부문에서 수만 톤의 석탄을 더 생산(『노동신문』, 2020.12.1)

- 석탄공업 부문의 각지 탄광들에서는 목표보다 수만 톤의 석탄을 증산하여 화력발전소들과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주었음
- 석탄공업성 일군들은 각지 탄광들에서 석탄 생산에 필요한 설비부속품을 자체로 해결하도록 지도하고 있음
-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2.8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개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자강도공급탄광과 조양, 신립, 개천탄광, 득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의 득장청년탄광, 룡산탄광에서 자체의 실정에 맞는 여러 가지 채탄방법을 받아들여 매일 많은 량의 석탄을 생산하고 있음

■ 1만여 kW의 발전능력 새로 조성(『노동신문』, 2020.12.19)

- 자강도에서 올해 흥주청년4호발전소, 동신3호발전소, 고평3호발전소를 비롯한 여러 개의 중소형 발전소를 세워 1만여 kW의 발전능력을 새로 조성하였음
- 동신군에서는 동신3호발전소건설에 력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건설을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명문천에 또 하나의 중소형 발전소가 건설됨으로써 군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게 되었음
- 도당위원회에서는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중소형 수력발전소를 건설할 예정임

■ 평안북도에서 자연에너지발전소 개건(『노동신문』, 2020.12.22)

- 평안북도에서 자연에너지를 적극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 평안북도에서 풍력과 태양빛을 이용하는 자연에너지발전소를 성과적으로 개건하였음
- 락원기계종합기업소 기술자들과의 연계 밑에 이들은 증속기, 날개 제작 등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해결하여 30여 대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음

■ 당 제8차대회 부문별 협의회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1.1.12)

- 당 제8차대회 부문별 협의회가 1월 11일에 진행되었음
- 공업 부문 협의회에서 대표자들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관건적 고리로 틀어쥐고 전력, 석탄, 기계, 채취공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국가경제의 자립성과 계획성, 인민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도적 문제들을 숫자 자료에 기초하여 분석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에 제기한 내각사업보고(중앙통신, 2021.1.18)

- 최고인민회의에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철저히 수행할 데 대하여 보고하려고 함
- 새로운 발전능력을 조성하기 위한 발전소 건설이 적극 추진되고 우리의 기술, 우리의 원료, 연료에 의거하는 주체철 생산체계가 확립된 것을 비롯하여 부문별 새 대상건설과 개건현대화공사가 힘있게 벌어져 인민경제의 자립성과 주체성이 더욱 강화되었음
- 무산광산연합기업소와 은률광산을 비롯한 철광산들에서 박토처리를 앞세우면서 채굴, 운광설비들을 보충하며 현존 채굴장들의 침수 복구에 힘을 넣어 철광석 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할 것임
- 자립경제의 기본 동력인 전력 생산을 결정적으로 끌어올려 국가경제의 안정적 발전과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믿음직하게 담보해나가도록 하겠음
- 전력공업 부문에서 당면한 전력수요를 보장하기 위한 증산 투쟁을 전개하면서 생산토대를 전반적으로 정비 보강하고 전망성 있게 확대하겠음
- 수력발전소들에서 효율 높은 수차들을 제작 설치하고 수력구조물보수와 토사준첩을 진행하여 저수지들에 물을 충분히 확보하며 발전기조종장치의 현대화를 실현하여 한 W의 전기라도 더 생산하도록 하겠음
- 화력발전소들에서 년차별로 보이라들의 불량한 계통과 타빈발전기들을 정비 보수하고 호기당 출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강하게 세워나가겠음
- 송변전 부문에서 배전계통의 전압단계를 올리고 나라의 전력계통을 방사형으로 구성

하여 전력의 도중손실을 극력 줄이며 교차생산조직과 지휘를 짜고 들어 생산된 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도록 하겠음

- 전망적인 수요, 앞으로의 주객관적 변화에도 대처하는 중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화력발전소와 수력발전소 건설, 핵동력공업 창설을 힘 있게 추진하며 조수력, 태양빛, 풍력을 비롯한 자연에너지와 재생에너지를 개발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중요한 정책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내밀도록 하겠음

■ 발전설비의 출력제고에 모를 박고(『노동신문』, 2021.2.23)

-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에서 열효률을 높이기 위해 단열벽돌의 생산능력을 확장하였음
- 허천강발전소에서는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게 컴퓨터에 의한 류량 및 수위측정 장치의 도입사업에 력량을 집중 중임
- 공업기술연구소와 시험실의 기술자들은 조종프로그램을 보다 실용적으로 완성하는데 모를 박고 긴장한 전투를 벌리고 있고 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새로운 측정체계를 최단기간에 도입하기 위한 기술준비를 예견성 있게 갖추고 있다 함

■ 후창광산 4호발전소가 새로 일떠섰다(『노동신문』, 2021.7.25)

- 량강땅에 후창광산 4호발전소가 새로 건설되어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인 후창광산의 생산정상화를 위한 돌파구가 열리게 되었으며 이 지구의 주민세대들에 전기를 보다 원만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발전소 건설자들은 해당 부문과의 긴밀한 련계 밑에 합리적인 공법들과 새로운 기술 혁신안들을 적극 창안도입하며 공사를 다그쳐 나갔음
- 뿐만 아니라 발전소 주변에 살림집들이 새로 일떠서고 양어장 등도 꾸려지게 되었음

■ 양수동력보장을 최우선적으로(『노동신문』, 2021.7.25)

- 황해남도 송배전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고온을 비롯하여 농작물의 생육에 불리한 날씨가 지속되는 데 맞게 양수동력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공급되는 전력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양수기들을 만가동시키는 데 큰 힘을 넣으면서 전력량비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요구성을 부단히 높이고 있음
- 여러 군송배전소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내부예비를 적극 탐구동원하며 해당 변전소들의 변압기와 차단기, 단로기를 비롯한 전력설비들에 대한 점검보수를 계획적으로 진행하고 있음

■ **현행생산과 전망생산토대를 다지기 위한 사업 립체적으로 전개(『노동신문』, 2021.8.2)**

- 전력공업 부문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현행생산과 함께 전망생산토대를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을 립체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어랑천 1 호발전소와 삼수발전소에서 전력생산과정에 사소한 물량비현상도 나타나지 않도록 물길굴작업갱보수공사와 방수로옹벽공사를 짧은 기간에 결속하기 위한 사업을 벌이고 있음
- 장진강발전소와 허천강발전소에 시험도입한 실시간효율측정체계와 큰물계산 프로그램을 더욱 완성하여 다른 수력발전소들에 확대도입하는 것을 비롯하여 모든 수력발전소들의 통합전력관리체계를 완비하여 물관리를 과학화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음

■ **후창광산 4 호발전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2021.9.24)**

- 후창광산의 생산정상화와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할 4 호발전소가 새로 일떠섬음
- 건설자들은 방대한 량의 굴착과 성토, 근 2만 ㎥의 콘크리트타입을 짧은 기간에 해제끼고 발전기실건축공사와 조압수조, 물길굴공사 등을 성과적으로 진행하였음
- 발전소 주변에 수백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으며 살림집들도 새로 건설하였음

■ **중소형발전소건설 힘있게 추진(『노동신문』, 2021.11.11)**

- 자강도에서는 시, 군들에서 지역적특성에 맞게 중소형발전소들을 실용성있게 건설하도록 설계와 기술적지도를 앞세우고 설비보장을 위한 사업을 면밀히 해나가고있음
- 무남이언제, 취수구, 방수로 등에 대한 콘크리트타입이 결속되어 구조물공사가 97%계선에 이르렀으며 수문, 천정기중기를 비롯한 설비제작과 설치도 동시에 전개되고있음

- 우시군에서는 우시 3호발전소건설에 역량과 수단을 집중하여 수천 m^3 의 기초굴착을 해제끼고 언제와 발전기실타입공사를 본격적으로 밀고나가고있음

4. 지질과 지형

■ 30만산대발파 련이어 진행(『노동신문』, 2020.12.23)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3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였음
- 건설자들은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거나 재생리용하면서 착암기,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음
- 석화간석지건설분사업소와 장송간석지건설분사업소에서 발파를 위한 굴진작업을 끝내고 월도에서 3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여 많은 막돌과 흙을 확보하였음

■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20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2021.1.24)

-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 월도지구에서 20만산대발파가 진행되었음
-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로동계급들은 정머리, 정대를 비롯한 부속과 자재를 해결하고 기계설비들의 정상가동을 보장하면서 발파준비를 다그쳤음
- 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월도간석지 2구역 3호방조제공사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됨

■ 21만산대발파로 생산정상화의 담보 마련(『노동신문』, 2021.1.30)

- 당이 제시한 세멘트생산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순천석회석광산에서 21만산대발파를 진행함
- 광산로동계급은 단 며칠 동안에 수백 m^3 의 박토를 처리하여 발파준비를 제 기일에 끝낼 수 있게 하였으며 대형굴착기, 화물자동차들의 수리정비를 책임적으로 하여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준비를 갖추었다 함
- 현행 및 전망생산을 편파성 없이 보장할 수 있게 효율적인 발파구역을 확정하고 발파

를 진행하였음

■ 철광석 생산 활성화를 위한 작전을 현실성 있게(『노동신문』, 2021.2.6)

- 새로운 5개년계획에 반영된 철강재생산목표를 관철하기 위해 금속공업식 일군들은 과학적인 타산 밑에 철광석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매장량이 풍부하고 채굴조건이 좋은 여러 광구와 갱들을 환원복구하고 중요설비들을 보수, 보강하는 등 현존생산토대를 정비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실속 있게 진행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철광산들의 현행생산에 필요한 자재보장, 채굴방법의 개선, 채광 및 운광설비들의 정비보강은 물론 전망생산토대강화를 위한 작전이 심화되고 있음

■ 해산세멘트공장에서 10만산발파 진행(『노동신문』, 2021.2.20)

- 당 제8차대회 결정관철을 위해 해산세멘트공장에서 10만산발파를 진행함
- 일군들과 기술자들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발파구역을 정하고 과학적인 지질조사와 측량에 기초하여 발파효율을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설계를 완성하였음
- 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도안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더 많은 세멘트를 생산보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15만산대발파 련이어 진행(『노동신문』, 2021.3.6)

- 평안북도 간석지건설종합기업소가 월도지구와 보산지구에 연이어 15만산대발파를 진행하였음
- 암질상태에 따르는 능률적인 작업방법들을 받아들인 로하간석지건설분사업소에서 착암기, 압축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면서 날마다 굴진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였고 보산간석지건설분사업소의 로동계급이 천공위치와 발파각도를 합리적으로 정하고 앞선 발파방법을 도입하여 짧은 기간에 수십 m의 도갱굴진을 마무리하였음
- 15만산대발파로 수십만 m^3 의 토량과 막돌이 확보되어 월도간석지 2구역 3호방조제공사를 중단 없이 내밀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음

■ 26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2021.3.11)

- 당 중앙위원회 제 8 기 제 2 차 전원회의 결정관철을 위해 순천석회석광산에서 10일 26만산대발파를 진행하였음
- 이들은 암석균기와 단면에 맞는 천공깊이를 확정하고 발파순환당 효률을 최대한 높여 수백 m에 달하는 갱도굴진을 짧은 기간에 끝냈으며 발파구멍뚫기, 장약 등 일정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수백 개의 예비채탄장 마련(『노동신문』, 2021.3.17)

- 석탄공업 부문의 일군들과 탄부들이 예비채탄장을 확보하는 중임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석탄공업성적으로 수백 개의 예비채탄장이 마련되어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예비채탄장이 수십 개 더 늘어났음
- 2.8 직동청년탄광, 천성청년탄광, 령대청년탄광의 탄부들은 탄상조건, 막장조건에 맞는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압축기를 비롯한 굴진설비들의 리용률을 높여 예비채탄장확보에서 뚜렷한 전진을 이룩하고 있다 함

■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25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2021.4.1)

- 월도간석지건설장에서 25만산대발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음
- 간석지건설자들은 필요한 자재와 부속품들을 자체로 만들어 내거나 재생리용하면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였음
- 월도간석지 2구역 1차물막이가 마감단계에 들어선 데 맞게 제방공사를 위한 막돌과 흙보장을 확고히 하였음

■ 건재생산토대를 강화할 목표밑에(『노동신문』, 2021.6.11)

- 념변군에서 군을 자기 고유의 특색을 가진 발전된 지역으로 꾸리기 위한 지방건설에 큰 힘을 넣고 있고 여기서 주목되는 것이 자체의 건재생산토대를 강화해 나가는 중임
- 지난해 군에서는 자기 지방에 흔한 화강석을 가공하여 건재생산을 늘일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놓았고 이에 의거하여 군 자체의 힘으로 여러 가지 규격과 색깔의 석재를

만들어 학생소년회관과 체육관 등의 개건 및 건설공사를 진행하였음

- 군에서는 수백 m의 도로를 내는 등 이미 시작한 채석장 건설을 끝내는 데 힘을 집중하고 양수장 공사와 압축기, 대절기설치 등도 진행하여 질 좋은 화강석 생산을 늘일 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는 사업을 적극 내밀었음

■ 30만산대발파 성과적으로 진행, 세멘트증산을 위한 담보 마련 (『노동신문』, 2021.6.16)

- 순천석회석광산의 로동계급이 30만산대발파를 진행하였음
- 대발파가 성과적으로 진행되어 다량채굴의 담보가 마련됨으로써 순천세멘트연합기업소에 주원료를 중단 없이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암질조건에 맞게 발파직장에서는 천공위치와 발파각도, 발파구멍개수를 과학적으로 선정하고 능률적인 발파방법들을 도입하여 교대당 발파회수를 늘여나갔음

■ 운반능력을 높여 석탄생산을 추동(『노동신문』, 2021.8.26)

- 덕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서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채굴심도가 깊어지는 데 맞게 탄광들에서 운반능력을 결정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생산장성의 기본 고리로 틀어쥐고 현존 운반수단들의 정상가동과 함께 그 능력을 확장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운반설비들의 점검보수체계를 정연하게 세워놓은 남양탄광에서 3단계 벨트콘베아공사를 위한 사갱굴진과 기본굴진에 힘을 넣어 석탄생산을 늘일 수 있는 전망을 마련해가고 있음

■ 신평발전소 물길굴도갱 관통(『노동신문』, 2021.9.4)

- 발전소 건설에 참가한 황해북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1천여 m 구간의 물길굴도갱을 관통하였음
- 현장지휘를 맡은 일군들은 고속도굴진소대를 조직하고 암질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굴진속도를 높이도록 하였음
- 은파군과 연산군의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은 연속천공, 연속발파를 들이대며 매일 굴진

과제를 수행하였음

■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성탄광 준공(『노동신문』, 2021.9.8)

- 명천지구탄광연합기업소 석성탄광이 일떠섰음
- 이 지구에 매장되어 있는 질 좋은 석탄을 더 많이 캐내어 금속, 화학, 전력공업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보내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음
- 도안의 일군들과 건설자들은 제대군인들의 살림집과 공공건물들을 일떠세워 탄부들과 주민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하였으며 철도건설자들은 철길로반을 형성하고 철다리 등 구조물공사를 다그쳐 철도인입선공사를 완성하였음

■ 25만산대발파 진행(『노동신문』, 2021.9.16)

- 순천석회석광산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25만산대발파를 성과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광물증산을 위한 담보를 마련하였음
- 일군들은 현지답사를 통하여 채굴계단을 전망성 있게 형성하도록 효율적인 발파구역을 확정하고 품위가 높은 석회석을 확보하는 데서 나서는 기술적 문제들을 풀어나갔음
- 굴진공들은 암석균기와 단면에 맞는 천공깊이를 확정하고 굴진설비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면서 발파순환당 효율을 높임으로써 수백 m에 달하는 소갱굴진을 짧은 기간에 끝냈음

5. 수자원

■ 동래강저수지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2020.12.1)

- 평안북도에서 동래강저수지를 완공하였음
- 인민군 군인들과 도 안의 근로자들은 군민협동작전으로 방대한 토량처리와 수만㎡의 장석쌓기 등을 해제끼고 1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언제를 일떠세웠음
- 저수지가 건설됨으로써 홍건도간석지의 수천정보에 달하는 농경지에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할 수 있게 되었음

■ 고원대흥발전소 조업(『노동신문』, 2020.12.1)

- 지역적 특성에 맞게 물자원을 효과적으로 리용하는 고원대흥발전소가 조업하였음
- 련관단위 일군들과 연구사, 로동계급은 전력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게 자동화체계구축과 발전설비보장 등을 책임적으로 했음
- 도대흥관리국 산하 단위들에서 지대정리와 원림록화사업을 다그쳐 완공을 앞당기는 데 기여했음

■ 정화장 건설 결속(『노동신문』, 2020.12.9)

- 혜산시에 선진기술이 도입된 정화장이 새로 건설되었음
- 부지절약형으로 건설된 이 정화장은 침전지, 려과지, 뽕프장을 비롯한 시설물들과 현대적인 설비들로 지대적 특성에 맞게 꾸려졌음
- 처리능력이 높은 생물학적 정화방법을 받아들인 정화장이 건설됨으로써 주민지구에서 나오는 생활오수와 공장, 기업소들의 산업폐수를 정화하여 생태환경을 더 잘 보호할 수 있게 되었음

■ 각지에서 온천탐사 활발히 진행(『노동신문』, 2020.12.20)

- 온천들을 개발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문화정서생활에 리용할기 위하여 자원개발성에서 온천탐사에 힘을 넣어 성과를 거두었음
- 올해에 들어와 황해남도 삼천군 읍지구와 황해북도 곡산군 문양리지구, 함경남도 금야군 온향리지구와 함경북도 명천군 황진리지구, 경성군 관모리지구들에서 온천의 물량을 늘이기 위한 탐사를 끝내었음
- 평안북도 운산군, 자강도 동신군, 량강도 보천군, 강원도 법동군, 남포시 온천군 등의 여러 지역들에서는 온천을 새로 찾았거나 물량을 늘이기 위한 사업이 계속 힘 있게 벌어지고 있고 평양시의 여러 지역과 백두산지구의 온천탐사에서 성과가 이룩되고 있음

■ 간석지포전에 하루빨리 생명수 흘러들게(『노동신문』, 2021.1.30)

- 남포시에서 간석지포전에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는 것을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지난해에 시에서는 논두렁짓기와 포전물길, 관개구조물, 포전도로공사 등 내부망공사를 진행하면서 새로 개간된 백수십 정보의 간석지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일련의 준비를 해놓았으나 간석지에 물을 끌어올 수 있는 조건을 미처 갖추지 못하였음

■ 우리 식의 새로운 오수정화공정 개발도입(『노동신문』, 2021.2.11)

- 평양건축대학에서 새로운 오수정화공정을 개발도입하여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함
- 도시경영학부의 연구집단은 일체식산화도랑에 의한 오수정화공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다중분리판을 대신하여 우리 식으로 새로운 분리판을 개발도입하여 오수정화공정에서 정화효과를 훨씬 높이였다 함
- 대학의 연구집단은 현재 개건확장되고 있는 여러 오수정화장에 대한 기술지도를 진행하면서 현실적 조건에 알맞는 새로운 오수정화공정을 각지에 도입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계속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함

■ 어랑천4호발전소, 여러 대상 건설 결속(중앙통신, 2021.2.18)

- 함경북도에서 계단식으로 일떠세우는 어랑천발전소의 4호발전소 여러 대상 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되었음
- 현재까지 공사량이 방대한 창포언제와 발전소 종업원들의 살림집과 공공건물 건설이 완료되었음
- 또한 수천 m에 달하는 물길굴과 발전기실공사, 압력철관로 설치, 발전기 시운전 준비가 끝났음

■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노동신문』, 2021.3.22)

- 자강도에서 물이 흐르는 곳마다에 발전소들을 더 많이 건설하여 긴장한 전력문제를

풀기 위한 사업이 추진 중임

- 고풍군에서는 하천을 따라 중소형발전소를 건설하는 것과 함께 여러 개의 극소형발전소도 일떠세웠음
- 전력수요를 자체로 보장할 목표를 세운 리에서는 모두가 떨쳐나 수십 m의 물길을 형성하고 발전기실을 건설하였고 생산된 전기는 학교와 사무실, 주민세대들에 공급되고 있음

■ 전국적으로 2만여km의 물길가시기 진행(『노동신문』, 2021.4.5)

- 새로운 5개년계획의 농업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물길가시기를 진행하여 전국적으로 2만여 km의 물길가시기가 진행되었음
-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에서 물길가시기와 함께 파괴된 물길구조물 보수도 진행하고 우물, 굴포를 비롯한 보조수원을 만들어 농사에 이용하기 위한 사업도 추진되었음
- 천내군, 문천시, 통천군에서 물길확장공사를 크게 진행하여 굴착기와 로력을 동원하여 지난해 큰물피해로 매몰되거나 파괴되었던 물길을 복구하고 물통과능력을 높이었음

■ 포전마다 관개용수 흘러들게(『노동신문』, 2021.4.29)

- 황해북도에서 수리화의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여 흉풍을 모르는 농업생산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는 중임
- 물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올해 농사에 필요한 관개용수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저수능력확장공사, 양수기 생산, 양수장 건설 등을 적극 추진하면서 물잡이성과를 높여가고 있음
- 여러 단위에서는 양수설비수리정비를 끝내고 물잡이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으며 하천물, 비물 등을 모조리 잡기 위한 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지는 과정에 도적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하여 1.3배 이상의 물을 확보하였음

■ 동래강저수지에서 홍건도간석지까지 물길통수식 진행(『노동신문』, 2021.5.19)

- 동래강저수지로부터 홍건도간석지까지의 물길이 완공되어 물길통수식이 18일 현지

에서 진행되었음

- 건설자들은 수십만 m^3 의 방대한 토량을 처리하고 백수십 개소의 구조물을 일떠세워 수십리 구간의 물길공사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 물길 건설이 성과적으로 결속됨으로써 홍건도간석지와 선천군의 드넓은 전야에 관개 용수를 원만히 대주어 알곡생산을 늘일 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었음

■ 강원도청년돌격대 물길굴확장굴진 결속(『노동신문』, 2021.8.7)

- 고성군민발전소건설장의 강원도청년돌격대원들이 맡은 수천 m 구간의 물길굴확장굴진을 결속하였음
- 이들은 착암기, 압축기의 가동률을 높이고 연속천공, 연속발파를 들이대며 하루에 최고 25m씩 천연암반을 밀고 나가는 기록을 세웠음
- 강원도청년돌격대원들은 확장굴진을 성과적으로 결속한 충천한 기세로 갱공크리트 피복공사를 힘있게 추진해나가고 있음

■ 백두산샘물공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2021.10.4)

- 량강도 삼지연시의 리명수지구에 백두산샘물공장이 일떠서 완공되었음
- 백두산천지를 시원으로 하고있는 샘물은 인체활성화에 필요한 여러가지 광물질이 충분히 들어있어 시원하고 상쾌한 감을 주는 천연샘물임
- 건설자들은 여러건의 기술혁신안과 창의고안을 도입하여 많은 자재를 절약하면서도 종합조종실, 분석실, 과학기술보급실 등 생산건물과 문화후생시설들을 일떠세웠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14기 17차 전원회의 진행(조선중앙TV, 2021.10.31)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7차 전원회의가 29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 전원회의에서는 철도화물수송법, 보통강오염방지법, 정보식별부호관리법, 국제상품 전람회법, 전자결제법, 령수증법, 부림소관리법의 채택과 중앙재판소 판사, 인민참심원 소환 및 선거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

- 보통강의 오염을 철저히 막고 수도의 생태환경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 작성된 보통강오염방지법에는 조사, 보호관리, 과학연구 등과 관련한 조항들과 함께 범위반행위에 따르는 처벌내용들도 기재되어있음

6. 산림

■ 림업 부문에서 피해복구성과 달성(『노동신문』, 2020.12.4)

- 림업 부문에서 큰물과 태풍피해복구사업을 성과적으로 결속하였음
- 함경북도 림업관리국의 여러 사업소에서 수십 km 림산도로와 림철길, 수십 개소의 다리들을 원상복구하여 통나무 생산을 정상화할 수 있는 담보가 마련되었음

■ 보호림조성사업을 전망성있게(『노동신문』, 2020.12.5)

- 황해북도에서 국토를 보호하면서도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를 많이 심기 위한 보호림조성사업을 진행하였음
- 도에서는 발전용수와 관개용수의 원천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산림, 농경지, 강하천 등을 보호하면서도 풍치를 돌굴 수 있게 다양한 형식의 혼성림조성방법을 받아들이는데 중점을 두고 보호림을 조성하기 위한 나무심기 작전을 세웠음
- 여러 가지 병해충에 대한 견딜성이 높고 보호적 기능을 잘 수행할 수 있으며 보기에도 좋은 것은 물론 오래 살고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를 널리 심는 사업도 추진되었음

■ 나무모생산에서 전례없는 혁신을(『노동신문』, 2020.12.7)

- 황해북도 안의 산림 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양묘장 개건사업에서 나무모생산의 과학화, 공업화, 집약화 수준을 높여 올해 나무모생산에서 성과를 거두었음
- 잣나무와 창성이깔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나무모종자를 충분히 확보한 토산군산림경영소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와 부식토를 많이 생산하여 지력을 높이고 온도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워 나무모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였음
- 일군들은 과학기술보급실운영을 정상화하여 종업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부단히 높

이고 나무모들의 생물학적 특성과 계절적 조건에 맞게 공정별 작업에서 기술규정을 철저히 지키도록 하여 수지경판온실, 야외재배장 등에서 많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겨울철 통나무생산을 본격적으로(『노동신문』, 2021.1.19)

- 자강도림업관리국의 여러 생산 단위에서 겨울철 산지통나무생산을 늘려나가고 있음
- 희천갱목생산사업소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나무베기와 아지따기 등 공정마다에서 합리적인 작업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설비가동률을 높여 실적을 올리고 있음
- 강계갱목생산사업소에서는 나무베기공, 밀대공, 아지따기공들의 역할을 높이도록 하면서 사이나르기에 소발구와 통쏘이운반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음

■ 수도의 거리들에 소나무들을 새로 심었다(『노동신문』, 2021.2.18)

- 평양시 중심부의 여러 곳에 국수인 소나무를 많이 심었음
- 시당위원회와 시인민위원회에서 시 주변과 지방들에 나가 관상적 가치가 큰 소나무들을 찾아 옮겨심기를 진행하였음
- 수도의 원림조성사업에서 모양새가 좋은 소나무들을 찾아 평양시 안의 여러 곳에 심고 주변정리를 끝어내었음

■ 880만 그루의 산열매나무모 확보(『노동신문』, 2021.3.4)

- 강원도에서 산림자원을 늘이기 위해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모를 키워냈음
- 안변군의 근로자들이 자급비료를 장만하여 지력을 높이고 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 요구대로 알심있게 하여 잣나무, 밤나무를 비롯한 많은 나무모를 실하게 키워냈음
- 평강군, 철원군에서 돌배나무, 단나무를 비롯한 산열매나무모들을 각각 95만 그루, 84만여 그루씩 생산하였음

■ 전국적으로 1억 수천만 그루의 나무심기 진행(『노동신문』, 2021.4.20)

-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나무심기를 진행하여 1억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토산, 금천, 곡산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도 구덩이파기와 밭아주기를 비롯한 공정별

작업에서 기술규정의 요구를 철저히 지키고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리용하여 심은 나무들의 사름률을 높일 수 있게 하였음

- 중앙과 지방의 산림 부문 일군들은 지역별, 수종별 특성에 맞게 일별, 주별계획을 세우고 단위들에 나가 조림구역설정과 분담, 나무모 확보 및 나무심기정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문제들을 풀어주었음

■ 산림보호사업 활발히 전개(『노동신문』, 2021.5.15)

- 만경대구역에서는 혁명사적지구역과 룡악산지구를 비롯한 산림들에 설치한 감시가 메라와 산불막이선, 돌뚝차단물, 집수터들의 관리운영에서 철저한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음
- 사리원시와 봉산군 등에서는 증설된 산불감시초소와 이동초소들에 통신기재들을 갖추어주어 감시자료들을 제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과 함께 정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주민들이 제정된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교양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것을 비롯하여 신천군, 벽성군에서는 산림감독원들과 산림순시원, 산불감시원들의 역할을 더욱 높여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대책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 있는 중임

■ 전국적으로 단나무재배면적 확대(『노동신문』, 2021.5.17)

-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철 나무심기기간에 전국적으로 550여 정보의 단나무재배면적을 확보하였음
- 단나무열매는 심장혈관계통질환과 동맥경화증, 고지혈증, 고혈압병 등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좋은 약용물질이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하여 의약품과 식료품 생산에 널리 리용되고 있음
- 황해북도에서는 단나무를 많이 심어 경제적 효과를 보고 있는 연탄군의 경험을 널리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 있게 내미는 한편 단나무 발들에 대한 비배관리를 간지게 하고 있는 중임

■ 수만 정보의 산열매나무림 조성(『노동신문』, 2021.5.21)

- 봄철나무심기가 시작된 때로부터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잣나무, 밤나무, 돌배나무를 비롯한 수종이 좋은 3,000여만 그루의 산열매나무들이 뿌리를 내리었으며 수만 정보의 산열매나무림이 새로 조성되었음
- 평안북도에서 지역별 자연경제적 조건과 산열매에 대한 수요에 맞게 새로 심을 나무 종류와 정보당 그루 수를 바로 정하고 나무모 보장과 기술지도를 짜고들어 산열매나무림조성계획을 115.9%로 넘쳐 수행하였음
- 정주시, 운산군, 구장군에서는 적지적수, 적기적수의 원칙에서 조림대상지를 정하고 구덩이파기와 거름주기, 물주기 등을 기술적 요구대로 하면서 산열매나무를 심었음

■ 함경북도 산림과학연구소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2021.6.28)

- 함경북도 산림과학연구소가 새로 일떠섰음
- 연구소에는 산림조성연구실, 산림보호연구실을 비롯한 여러 개의 연구실과 실험실들이 꾸려져 있으며 필요한 설비와 실험기구들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음
- 연설자들은 연구소의 일군들과 연구사들이 도의 기후풍토에 맞는 수종이 좋은 나무종자와 나무모를 더 많이 연구육종하는 데 지혜와 열정을 바쳐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 수백 정보의 경제림 새로 조성(『노동신문』, 2021.7.2)

- 순천시에서 올해에 들어와 수백 정보의 경제림을 새로 조성하였음
- 시에서는 산림조성 및 보호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모든 기관, 공장, 기업소들에서 담당림을 기름나무림, 산열매나무림으로 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밀고 나갔음
- 수유나무림사업소, 식료공장, 건물보수사업소를 비롯한 시안의 근로자들이 잣나무, 가래나무, 수유나무 등 기름나무림조성사업을 힘 있게 벌리고 있으며 순천편직공장, 시편의봉사관리소에서는 수십 정보의 산열매나무림을 새로 조성하였음

■ 원림록화를 고산지대특색이 살아나게(『노동신문』, 2021.7.10)

- 삼지연시에서는 거리의 곳곳에 만수천 그루의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많은 화초들을

심어 산간도시의 면모를 더욱 일신시키였음

-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삼지연시의 특색을 살리기 위해 붓나무와 종비나무, 정향나무를 많이 심어 백두의 천연수림 한가운데 일떠선 산간도시의 특색이 더 잘 살아나게 하였음
- 시에서는 전망적인 원림조성을 위해 수종이 좋은 나무들과 화초와 꽃관목들을 자래우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순환식채벌구역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다(『노동신문』, 2021.7.17)

- 립업 부문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현행생산을 다그치면서 1만 1천여 정보의 채벌뒤 자리와 무림목지에 수천만 그루의 나무를 심었음
- 여러 도림업관리국에서는 사름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활성촉진제를 생산하여 해당 단위들에 공급해주어 나무심기에서 높은 실적이 기록되게 하였음
- 백암림산사업소, 갑산림산사업소, 백암림산조림사업소, 풍서림산조림사업소들에서 채벌뒤자리와 무림목지정리를 앞세우고 나무모 준비를 착실히 하여 계획된 나무를 최단기간에 질적으로 심었음

■ 경제적 가치가 큰 나무모생산을 대대적으로(『노동신문』, 2021.8.27)

- 산림복구전투의 병기창과도 같은 양묘장들에서 수종이 좋은 나무모들을 대대적으로 생산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음
- 도산림관리국에서는 도 안의 산림실태를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수종별, 품종별에 따르는 나무모생산계획을 바로세우고 종자준비로부터 비배관리에 이르기까지 나무모생산의 전 과정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음
- 회령시, 명간군을 비롯한 여러 시, 군에서도 인민생활향상에 절실히 필요한 경공업 제품원료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할 목표를 세우고 기름밤나무, 수유나무 등의 나무모생산을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음

■ 향토애가 펼친 수백 리 바람막이숲(『노동신문』, 2021.9.19)

- 강원도 인민들은 동해안지구에서 치산치수를 위주로 나무를 심어 바람막이숲을 조성

하는 사업에 큰 힘을 기울이었음

- 통천군의 어느 한 리의 농업협동조합원들은 해마다 바람의 피해를 입던 논 주위에 높이 50cm의 뚝을 쌓고 4정보의 바람막이숲을 조성하였음
- 고성군의 청년들은 이틀 동안이나 산판에서 숙식을 하면서 200정보에 달하는 면적에 나무를 심었음

■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나무모 생산(『노동신문』, 2021.9.28)

- 국토환경보호 부문의 양묘장들에서 가을철나무심기에 필요한 수십 종의 수종이 좋은 나무모를 생산하였음
-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여 포전수로와 암거정리, 웅벽보수 등도 예견성 있게 내밀고 병해충예찰예보체계를 강화하여 나무모생산에 지장이 없도록 하였음
- 여러 가지 영양제와 성장촉진제를 적극 개발리용하고 비배관리를 짜고든 노력에 의해 단나무를 비롯한 수천만 그루의 나무모들이 층하 없이 자랐음

■ 산림보호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노동신문』, 2021.10.18)

- 산림조성에 못지 않게 중요한것이 보호관리사업이며 특히 산불방지는 선차적인 관심을 돌려야 할 문제이며 이로부터 대성구역일군들은 가을철에 구역안의 산림에서 산불발생요소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세우고 있음
- 일군들은 료전기재와 사람들의 래왕이 잦은 산림지역들에 감시초소를 더 늘일 것을 계획하였음
- 산불이 쉽게 날수 있는 가을철에 모든 사람들이 입산질서를 철저히 지키도록 요구성을 높여나갔음

■ 국토환경보호 및 산림복구 강조 동향(『노동신문』, 2021.11.7~11.10)

- 국토환경보호사업은 우리 국가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강하게 밀고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임
- 산림조성과 보호관리사업을 잘하여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여야 함

- 북한은 지난해 여름 연이은 자연재해(장마, 태풍 등) 이후,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국토관리사업을 강조함

7. 농업과 축산

■ 우량품종의 풀먹는집짐승을 더 많이(『노동신문』, 2020.12.4)

- 세포지구축산경영리위원회에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가까운 앞날에 세포지구의 기후풍토에 적응된 새 품종들을 생산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함
- 세포지구의 자연지리특성에 맞는 집짐승축척체계를 세우고 파울염소와 땃산고기양을 비롯하여 집짐승종자들을 밀천으로 삼아 우량품종을 퍼트리고 있다 함
- 따라앞서기, 따라배우기, 경험교환운동을 활발히 벌리면서 앞선 기술과 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양, 염소의 한배새끼수를 종전보다 늘렸고 또한 재래종집짐승들을 우량품종으로 개량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 중이라 함

■ 평북돼지공장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2020.12.7)

- 평안북도에 있는 평북돼지공장이 개건현대화되었음
- 생산과 경영활동의 정보화와 먹이생산의 공업화를 실현할 수 있는 공정들이 꾸려짐으로써 고기생산을 늘일 수 있는 또 하나의 튼튼한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6일에 진행된 준공식에는 평안북도 당위원회 문경덕 위원장, 관계 부문 일군들, 공장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하였음

■ 온실남새 생산성과 계속 확대(『노동신문』, 2020.12.7)

- 농업성과 각 도, 시, 군의 일군들은 온실남새 생산단위들에서 작물들의 품종별 생육조건에 맞는 온습도 조절과 영양관리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단위면적당 수확고를 높이는 데 힘을 넣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음
-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의 근로자들이 작물배치를 합리적으로 하고 수경재배를 비롯한 선진적인 재배방법들을 도입하면서 영양관리도 잘하여 계획보다 많은

량의 남새를 생산하고 있음

- 항구구역, 와우도구역 등의 1정보온실 관리공들은 토양관리, 환경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고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를 생육단계별에 따라 합리적으로 뿌려주어 남새작물들이 자라는 데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음

■ 차나무밭면적을 늘이기 위한 개간사업 추진(『노동신문』, 2020.12.11)

- 금동은정차재배원에서 차나무밭면적을 늘이기 위한 개간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은정차재배원의 일군들은 작업조건을 구체적으로 따져보고 일정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있고 특히 로력과 기계화 수단을 집중하여 개간실적을 높이면서 질도 철저히 보장하도록 하였음
- 농업성에서는 비경지를 개간하여 차나무밭면적을 늘일 목표를 세웠고 얼굴피해를 받지 않고 센바람의 영향도 적으며 물스밈성이 좋아 차나무 재배에 유리한 지역을 적지로 선정한 다음 개간사업을 진행하였음

■ 평남새온실농장에서 1만 수천 톤의 남새 생산(『노동신문』, 2020.12.26)

- 중평남새온실농장에서는 조업 후 1년 남짓한 기간 과학농사에 큰 힘을 넣어 오이, 도마도, 배추, 무우를 비롯한 1만 수천 톤의 갖가지 신선한 남새들을 생산하여 도안의 인민들에게 공급하였음
- 해당 연구기관과의 연계 밑에 생산성이 높은 새 품종들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어린 모시기부터 영양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남새 생산량을 높이였음
- 농장에서는 온실호동들에서 혁신적인 재배방법을 적극 받아들여 남새 생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었고 또한 사용한 영양액을 회수리용하여 원가를 줄이면서도 생산을 늘이는 데 이바지하였음

■ 부포오리공장 현대적으로 개건(『노동신문』, 2020.12.27)

- 라선시에서 부포오리공장을 현대적으로 개건하였고 총 부지면적은 수만 m^2 이며 여기에는 교양 및 생활구역과 생산구역이 있음

- 설비조립을 맡은 과학자, 기술자, 기능공들은 알깨우기실의 자동온습도조종체제와 생산공정의 자동화를 실현한 것을 비롯하여 공장을 로력절약형, 기술집약형으로 꾸리는 데 적극 기여하였음
- 알깨우기실에는 현대적인 알깨우기설비들이 갖추어져 있어 연간 많은 비육 및 알낱이 용새끼오리를 생산할 수 있으며 오리가공장에는 털 뽑는 기계, 제품포장기를 비롯한 가공, 행동설비들이 구비되어 있어 모든 작업을 험하게 할 수 있다 함

■ 수십만 톤의 자급비료를 생산(『노동신문』, 2021.1.27)

- 도당위원회의 지도 밑에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지난해의 농사경험에 기초하여 자급 비료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조직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발효퇴비생산에 필요한 종균과 소석회를 협동농장들에 원만히 보장해주기 위한 사업에도 힘을 넣고 있음
- 중화군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포전별, 필지별에 따르는 구체적인 토양분석에 기초하여 니탄, 개바닥흙, 부식토 등을 리용한 자급비료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1.2.5)

-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제8기 제11차 전원회의가 2월 4일 평양에서 진행되었음
- 전원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당 제8차 대회 결정을 관철할 데 대한 문제를 토의하였음
 - 참가자들은 농근맹 사업에서 근본적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방도들에 대해 토론하였음. 토론자들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에 농근맹 조직들이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새 땅 찾기를 중심 과업으로 내세우고 대중운동을 조직전개함으로써 농업 생산을 추동해나갈 데 대하여 강조하였음. 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에 대한 결정서가 전원 일치로 채택되었음

■ 올해 농사차비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2.8)

- 평안남도에서 130여만 톤의 거름을 포전들에 실어내고 1만여 정보의 산성토양, 랭습 지들을 개량하였음
- 덕천시, 청남군에서 종전보다 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우고 농장, 작업반, 분조별 사회주의경쟁과 돌격대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여 정보당 수십 톤의 거름을 실어냈음
- 우시군의 협동농장들에서 작업반, 분조들에 비료생산장들을 갖추고 조성 성분의 요구에 맞게 원료장입을 기술규정대로 진행하여 1만 3,000 톤 이상의 비료를 생산하고 있음

■ 과일나무비배관리에 힘을 집중(『노동신문』, 2021.2.11)

- 북청군 과수농장경영위원회와 덕성사과농장에서 자연지리적 조건을 잘 타산한 데 맞게 과일나무의 열매맺이률을 높이는 데 중심을 두고 가지자르기를 하였음
- 과일나무들의 품종별 특성과 생육상태 등 생물학적 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 데 기초하여 곽산과수농장, 구성과수농장에서는 가지휘여주기와 가지자름, 갱신가지숙음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음
- 과일군과 온천과수농장, 평양과수농장에서는 꽃눈형성을 촉진시키는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통기조건과 해비침조건을 개선하고 기계화를 하는 데 유리하게 과일나무들의 모양만들기를 품들여 진행하고 있음

■ 과학자들을 위한 현대적인 은정돼지공장 준공(『노동신문』, 2021.2.16)

- 국가과학원 은정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되어 준공하였음
- 공장이 일떠섬으로써 종자와 먹이,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 등 고기 생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최량화, 최적화, 현대화하여 그 성과를 전국에 도입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가 마련되었음
- 모든 생산공정이 로력절약형, 에네르기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꾸려지고 우리의 설비들로 장비되어 있음

■ 봄보리씨뿌리기 한창(『노동신문』, 2021.2.28)

-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서해지구 농업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봄보리씨뿌리기를 진행 중임
- 도농촌경리위원회 일군들은 우량품종의 종자 도입과 지력 개선, 적지 선정을 비롯하여 앞그루농사준비를 빈틈없이 갖추고 시, 군들에서 씨뿌리기를 적기에 진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시, 군들에서는 지력이 높은 포전, 토양감새가 좋고 습해를 받지 않으면서 물대기를 쉽게 할 수 있는 논, 가물을 타지 않거나 관수조건이 유리한 밭을 적지로 선정하고 씨뿌리기를 진척시키고 있음

■ 유기질복합비료생산을 늘인다(『노동신문』, 2021.3.2)

- 평안북도에서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큰 힘을 넣고 있고 현재 수십만 톤의 원료를 확보하고 수만 톤의 유기질복합비료를 생산하였음
- 도 일군들은 정초부터 유기질복합비료생산에 필요한 원료확보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들었음
- 도 일군들은 도, 시, 군급기관들과 공장, 기업소들에서 많은 원료를 확보하여 유기질복합비료생산단위들에 보내주었음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온천연구분소 준공(『노동신문』, 2021.3.12)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온천연구분소가 남포시에 새로 건설되어 준공하였음
- 남포시 농촌경리위원회와 농업연구원은 생물공학실험실, 전자도서실, 분석실을 비롯한 연구실들과 생활구역의 설비, 비품들을 원만히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여 연구사들에게 훌륭한 사업조건과 생활환경을 마련해주었음
- 농업연구원 벼연구소 온천연구분소가 현대적으로 일떠섬으로써 서해안의 간척지농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 문제들과 종자문제해결의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었음

■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노동신문』, 2021.3.13)

- 농업생산을 늘이는 데서 농촌경리의 기계화를 중요한 전략적 과업으로 틀어쥐고 나갈 데 대한 당 정책에 대한 농업 부문에서 농산작업의 기계화비중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농업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올해에 들어와 수만 대의 트랙토르를 수리정비하고 각종 농기계 부속품을 생산하였음
- 수안군, 황주군, 신계군, 연탄군, 봉산군에서는 필요한 전력을 자체로 생산보장하고 부속품 생산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원만히 풀어나가면서 트랙토르 수리정비 일정 계획 수행률을 110% 이상 끌어올리었음

■ 전국의 협동벌들에서 논밭갈이 한창(『노동신문』, 2021.3.21)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째 알곡생산목표를 위해 전국의 협동벌들에서 당면한 논밭갈이가 벌어지고 있음
- 트랙토르들의 만가동, 만부하를 보장하고 있는 송림시, 수안군, 상원군, 승호군 등에서는 농기계작업소들의 역할을 높여 필요한 부속품들을 자체로 해결하고 이동수리정비를 제때에 따라 세우면서 매일 많은 면적의 논과 밭을 갈아엎고 있음
- 룡천군, 운전군, 박천군, 구장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여러 군에서는 토양의 감새 등의 조건에 따라 같이순서를 바로 정하고 각종 농기구와 축력을 효과 있게 리용하여 날마다 각각 수십 정보의 논밭갈이를 진행하고 있음

■ 운전삼광축산전문농장건설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4.5)

- 평안북도에서 염소 기르기를 대대적으로 하여 치즈와 빠다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젓가공품을 생산할 수 있는 운전삼광축산전문농장건설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일군들은 현재까지 수십 km의 도로를 새로 닦거나 개건하고 10여 km의 하천을 정리하였으며 수백 세대의 다층, 단층살림집을 일떠세웠음

■ 각지 과수농장에서 수백만 그루의 과일나무를 심었다(『노동신문』, 2021.4.19)

- 과일생산에서 새로운 혁신을 일으킬 비상한 각오 안고 전국의 과수 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당면한 영농공정수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농업성 과수관리국에서는 각지 과수농장에서 올해 과일생산계획과 우량품종 과일나무모생산, 그루바꿈과 갱신계획을 무조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어 지역별, 단위별 임무분담을 정확히 하고 새 품종의 과일나무심기에 역량을 집중했음
- 북청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과수원에 질 좋은 거름을 듬뿍 내여 지력을 높이였으며 구덩이파기, 간격보장, 물주기 등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하면서 과일나무를 정성껏 심었음

■ 백두대지에서 감자심기 시작(『노동신문』, 2021.4.27)

- 량강도의 감자산지들이 당면한 영농작업으로 쫓아번지고 있음
- 감자종자소독과 처리 및 싹틔우기, 발갈이, 자급비료시비 등 영농공정별에 따르는 기술적인 문제들이 언급되고 앞선 경험들이 일반화되었음
- 시에서는 유리한 지대적 특성에 맞게 여러 농장에서 기계화수단들을 동원하여 감자심기에 들어가도록 하였음

■ 효능 높은 약초밭, 약나무림 적극 조성(『노동신문』, 2021.5.4)

- 량강도에서 수백 정보의 약초밭, 약나무림을 조성하고 재배를 과학기술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중임
- 백암단너삼사업소에서 해발고가 1,000m 이상 되는 불리한 조건에서도 나무뿌리뽑기, 웅덩이메꾸기, 씨레치기 등 선행작업을 앞세우면서 1년 남짓한 기간에 수십 정보의 약초밭을 새로 조성하고 근 100정보에 달하는 새 땅도 찾아내었음
- 대흥단군, 갑산군, 보천군을 비롯한 도 안의 약초관리소들에서는 거름 및 물주기 등 공정별 작업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진행하고 조성구역에 역량을 집중하여 많은 오미자나무모를 심었음

■ 전국 농업 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었다(『노동신문』, 2021.5.8)

- 태천군 은흥협동농장에서 모내기과 발작물비배관리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를 놓고 전국 농업 부문 일군들을 위한 기술전습회가 진행되었음
- 지난해 농사의 교훈을 잊지 말고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을 철저히 세우는 문제가 특별히 강조되었고 당면한 영농공정들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데서 나서는 관건적인 문제들이 체계적으로 언급되었음
- 모내기를 질적으로 하기 위해 평당 포기수와 포기당 대수를 비료 주는 량, 지력, 모내는 시기를 고려하여 정하는 문제, 모판흙이 붙은 채로 모를 떠서 포전에 넘으로써 모살이기간을 없애며 모 쫓는 깊이를 정확히 보장할 데 대한 문제가 강조되었음

■ 북부지대에 적응된 과일나무들이 늘어난다(『노동신문』, 2021.5.18)

- 도 안의 일군들과 해당 부문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과일나무들을 북방의 자연기후에 적응시키기 위한 사업을 근기있게 내밀었음
- 도농업과학연구소와 혜산농림대학, 도과학기술위원회의 과학자, 연구사들은 여러 가지 과일나무들을 북부고산지대에 풍토순화시켜 추위견딜성이 강한 품종들을 육종하는데 지혜와 열정을 다 바치었음
- 중앙의 과학연구기관들에서도 량강도에 과일나무들을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과 관련하여 방조를 주었음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완수 독려 동향(『노동신문』, 2021.6.3~6.4)

- 모내기의 성과적 결속을 위해 총매진 …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 농사의 성과가 모내기를 적기에 끝내는 데 달려 있다는 것을 명심
- 각지 농촌들에서 모내기가 마감 단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여러 갱목생산 사업소에서 나무 베기에 힘을 집중하면서 운반수단들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통나무 생산실적을 부쩍 높였음

■ 축산 부문 먹이풀과 단백질먹이 보장대책 강조(『노동신문』, 2021.6.4)

- 축산 부문의 일군·근로자들은 먹이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축산업 발전의 결정적 담보임을 명심하고 이 사업을 강하게 내밀어야 함
 - 알곡먹이 대신 풀을 이용하여 축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은 ‘애국풀’ 재배에 큰 힘을 넣어야 함
 - 먹이첨가제 생산 문제, 집짐승 먹이 생산을 공업화하는 사업 등도 중요함

■ 황해북도에서 광천닭공장 사료보장농장건설 힘있게 추진(『노동신문』, 2021.6.7)

- 황주군 광천지구의 농촌마을들에 학교와 유치원, 문화회관이 훌륭히 일떠서고 있고 버섯재배장과 온실 등도 건설되고 있음
- 황해북도 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광천닭공장 사료보장농장들의 공공건물 및 생산건물, 시설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는 중임
- 사리원시대대의 건설자들은 건설의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합리적인 작업방법들을 적극 받아들이면서 일손을 다그쳐 광천지구의 농장마을들에는 수많은 공공건물, 생산 건물 등이 일떠서고 있는 중임

■ 그물우리양어장이 늘어난다(『노동신문』, 2021.6.28)

- 황해북도에서 자기 지역의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양어를 발전시키기 위한 그물우리양어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평산군에서 1만여 ㎡에 달하는 그물우리양어장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고 이 그물우리양어장은 투자를 적게 들이면서도 저수지의 풍부한 자연먹이조건을 리용하여 많은 물고기를 생산할 수 있어 전망이 큼
- 특히 지난해 큰물로 인해 적지 않은 시설들이 피해를 입은 데서 교훈을 찾고 재해성 이상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예견성 있게 해나가고 있음

■ 자연먹이의 리용비중을 높인 비결(『노동신문』, 2021.6.28)

- 재령군 래림협동농장에서 해마다 물고기들을 많이 길러 리 안의 탁아소와 유치원

등에 공급하고 있음

- 양어분조에서는 난알짚과 집집승배설물을 가지고 싸그쟁이와 지렁이 등의 서식에 필요한 조건을 충분히 마련해주어 떠살이생물이 대대적으로 번식하였고 단백먹이서식장에서는 지렁이도 많이 서식하게 되었음
- 농장에서는 알곡부산물과 콩깍지를 가지고도 먹이문제를 해결해나갔고 양어분조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여주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었음

■ 밀·보리 수확 동향(중앙통신, 2021.7.1)

- 황해남도에서는 밀, 보리 정보당 수확고를 지난해보다 훨씬 높였으며, 알곡 생산을 늘려면 두벌농사를 추켜세워야 한다고 함
- 씨뿌리기 적기인 9월 가을걷이와 난알털기가 겹치다 보니 밀, 보리씨뿌리기를 적기에 질적으로 하지 못함
- 겨울에 얼곰피해를 받아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지 못하였음

■ 활발히 벌어지고 있는 토끼기르기(『노동신문』, 2021.7.3)

- 강원도에서는 토끼종축장들에서 우량품종의 종자토끼확보에 힘을 넣는 것과 함께 협동농장들의 공동축산과 농촌세대들의 토끼기르기를 적극 장려하고 있음
- 먹이풀판을 많이 조성하고 토끼의 생리적 특성에 맞게 사양관리를 과학적으로 하고 있는 안변군과 금강군 안의 학교들에서도 새끼낳이률을 높여 마리수를 늘이고 있음
- 사리원시 안의 협동농장들에서는 자체의 실정에 맞게 배합먹이생산공정을 꾸려놓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여 우량품종토끼의 새끼낳이률과 증체률을 높이고 있음

■ 고려약의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여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자(『노동신문』, 2021.7.13)

- 고려약 생산 부문의 전체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약품의 효능을 높이고 가지수와 생산량을 늘이기 위하여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장수고려약공장에서는 상반기 기간에 알약 생산에서 큰 몫을 맡고 있는 설비를 새로 제작하여 생산능력을 1.5배로 높인 결과 치료예방사업에 절실히 필요한 약품 생산을

늘이는 데서 일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고려약을 엑스화하여 리용하면 사람들이 쓰기에도 편리하고 적은 양으로도 약 효능을 훨씬 높일 수 있음

■ 새로운 단백질먹이생산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7.16)

- 최근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단위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이 뽕물 등예를 단백질먹이로 리용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광범히 도입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고기와 알 생산을 늘이는 데 기여하고 있음
- 지난 시기 우리나라에서는 축산과 양어에서 먹이로 리용하는 콩깨묵과 물고기가루대용으로 지렁이, 밤색쌀방아벌레번티기 등을 써왔으나 생산에 품이 많이 드는 것으로 하여 광범히 도입하지 못하고 있었음
- 연구소에서 뽕물등예를 돼지와 닭, 오리, 메기먹이로 리용할 수 있는 적합한 먹이처방을 연구하여 많은 축산 및 양어단위들에 도입해본 데 의하면 그 경제적 실리가 높다고 판단함

■ 활발히 벌어지는 풀먹는집 짐승기르기(『노동신문』, 2021.7.17)

- 풀먹는집 짐승기르기를 군중적 운동으로 벌릴 데 대한 만포시에서 이 사업을 일관성 있게 내밀어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고산협동농장에서는 지난해보다 염소와 양 마리수를 1.2배로 늘이고 많은 축산물을 생산하여 농장원들의 생활향상에 이바지하고 있음
- 십리동협동농장과 연하협동농장에서는 좋은 품종의 염소 마리수를 늘이고 풀판조성과 방목, 수의방역사업을 적극 내밀어 고기와 젖 생산량을 끌어올리고 있음

■ 축산토대를 튼튼히 다져나간다(『노동신문』, 2021.8.7)

- 평안북도적인 작전에 따라 운전삼광축산전문농장건설과 신의주닭공장, 구성닭공장, 군민룡천돼지공장 개건현대화공사 등이 힘있게 추진되고 있음
- 평안북도에서는 건설력량과 자재보장사업을 앞세워 운전삼광축산전문농장에 양 우

- 리와 보조건물을 새로 건설하여 우량품종의 양을 키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추어놓았음
- 신의주닭공장에서는 종합먹이가공장을 개건보수하고 발효먹이생산공정과 먹이첨가제생산공정을 새로 꾸리였으며 강냉이짚, 여러 가지 건초 등을 분쇄하여 대용먹이로 리용할 수 있게 하였음

■ 새로 일떠선 북청돼지공장 준공(『노동신문』, 2021.8.11)

- 북청돼지공장이 새로 일떠서 준공되었음
- 북청돼지공장에는 위생통과실, 비육호동, 종축호동들로 이루어진 공장에는 사료가공과 운반계통, 고기 가공, 유기질비료생산공정 등이 갖추어져 있으며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어 있음
- 련관 단위 공장, 기업소들에서 내부예비를 탐구동원하여 사료운반콘베아를 비롯한 수십 종에 100여 점의 설비를 성과적으로 제작설치하였음

■ 량강땅에서 과일수확 한창(『노동신문』, 2021.8.21)

- 도 안의 농촌리들에 조직된 과수분조들과 기업소들에서는 수확순차를 바로 정하고 과일을 적기에 따들이고 있음
- 특히 김형직군 련하리, 풍서군 신명리, 혜산광물생산사업소 등에서 추리수확에 이어 사과수확이 진행되고 있음
- 도에서는 과일나무재배에서 모범을 보이고 있는 단위와 가정들의 경험을 널리 소개하고 일반화하면서 우량품종의 과일나무들을 널리 퍼치기 위한 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토끼기르기를 군중적으로 전개(『노동신문』, 2021.8.22)

- 함경북도 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고기 생산량이 많고 병견딜성이 강한 우량품종의 종자토끼를 많이 퍼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원만히 갖추는 사업에 품을 들이고 있음
- 도에서는 청진토끼종축장을 개건현대화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음
- 도에서는 수의방역 단위들을 분발시켜 자기 지역에 흔한 약초를 리용하여 토끼질병치

료와 예방에 좋은 여러 가지 수의약품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도록 하는 사업에 깊은 주의를 돌리고 있음

■ 풀베기에 역량을 집중(『노동신문』, 2021.8.27)

- 지난해보다 풀거름생산목표를 높이 세운 구성시, 창성군, 동창군, 삭주군, 대관군, 구장군, 향산군의 농업근로자들은 최뚝, 물길, 강하천주변 등에서 련일 수백 톤의 풀을 베어들이고 있음
- 황해남도의 농근맹일군들과 농근맹원들이 집단적 혁신으로 한 주일 동안에 9만 2,400여 톤의 풀을 거두어들였음
- 성간군에서 초급 일군들의 역할을 높여 매일 수천 톤의 풀을 베어들이고 만포시에서도 사회주의 경쟁 열풍 속에 현재까지 6만 6,000여 톤의 풀더미를 쌓아놓았음

■ 종어기지건설을 힘있게 추진(『노동신문』, 2021.9.4)

- 평안남도에서 양어를 발전시켜 가물치와 정장어, 쏘가리, 산천어종어기지를 꾸려 맛 좋은 물고기를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음
- 도 일군들은 청남군과 덕천시 등에 종어기지를 일떠세우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음
- 종어기지설계를 지방의 특성이 살아나게 독특하게 하도록 하는 한편 강력한 건설력량을 꾸려주어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척되게 하고 있음

■ 남새농사에 품을 들여(『노동신문』, 2021.9.5)

- 사리원시의 농촌들에서 남새 생산이 힘있게 벌어지고 있음
- 시에서는 가을남새재배면적을 늘이고 정보당 수확고를 높일 치밀한 작전을 세웠음
- 일군들은 각종 영양액과 종자를 앞세워 보장하면서 현지에 나가 강냉이뒤그루로 심는 남새면적을 늘일 수 있게 적지를 확정하였음

■ 가을철 수확기 관련 농사 성과 결속 강조 동향(『노동신문』, 2021.9.19~9.24)

- 기상수문국에서는 강풍과 폭우, 우박을 예보하면서 농업 부문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을 언급함

- 중요 부문 당 조직들, 특히 화학·기계·전력·철도 부문은 농사에 필요한 물질적 조건 보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기상관측과 농업과학연구 부문 등은 자연재해로부터 곡식을 보호하는 데 앞장설 것을 강조함
- 수확작업 여건 지원에 대해서는 농사가 잘되는 지역은 일꾼들과 노동자들이 농촌지원 사업을 자기의 본분으로 여기고 헌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일부에서 불리한 조건을 핑계로 농기계 수리가 제때 이뤄지지 않은 부정적 상황을 지적함
- 김덕훈 내각 총리는 평안남도과 황해도 지역 농장을 방문하여 농민들에게 추수·탈곡·보관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농업성과를 위해 노력하는 근로자들을 격려하였음

■ 산열매따들이기가 한창이다(『노동신문』, 2021.9.25)

- 평안북도 안의 시, 군들에서는 갖가지 산열매가 무르익는 계절에 맞게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많은 산열매를 거두어들이고 있음
- 지방 공업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해 나갈 뚜렷한 목표를 세우고 산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사업을 치밀하게 조직하고 있음
- 시, 군의 일꾼들은 직접 산판을 돌아보며 현지확인을 하는 것과 동시에 산열매들을 적기에 거두어들이 수 있게 로력동원과 수송조직을 짜고들고 있음

■ 김덕훈 내각총리 농업부문 사업을 현지료해(『노동신문』, 2021.10.5)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덕훈이 황해북도, 황해남도의 농업 부문 사업을 현지에서 료해하였음
- 시, 군량정사업에서 본보기를 창조하고 일반화하여 밀, 보리파종면적을 늘이고 다음해 농사준비를 잘하는데서 나서는 대책적문제들이 토의되었음
- 평양강냉이가공공장 등에서 현실적요구에 맞게 량곡가공, 공급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문제들을 협의대책하였으며 이에 앞서 대안중기계련합기업소의 대상설비생산정형을 료해하였음

■ 가을밀보리씨뿌리기 마감단계(『노동신문』, 2021.10.8)

- 황해남도의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가을밀보리씨뿌리기를 마감단계에서 힘있게 다그치고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에서는 두벌농사면적이 훨씬 늘어난데 맞게 시, 군, 협동농장들에서 적지를 바로 정하고 로력조직을 잘하여 적기에 밀보리씨뿌리기를 진행하도록 요구성을 높이고있음
- 해주시, 신천군, 장연군에서는 가을걷이와 낱알털기가 본격적으로 벌어지는데 맞게 가을밀보리씨뿌리기를 끝냈음

■ 전국적으로 가을밀, 보리씨뿌리기 결속(『노동신문』, 2021.10.16)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으로 전국적인 가을밀, 보리씨뿌리기가 전부 결속되었음
- 평양시의 농업근로자들이 지난해보다 밀, 보리파종면적을 1.8배로 늘인데 맞게 공정간 맞물림을 치밀하게 하면서 씨뿌리기를 해제졌음
- 광산군, 운전군, 태천군을 비롯한 평안북도의 여러 군에서는 해당 지역의 기후풍토에 맞으면서도 소출이 높은 다수확품종의 종자를 확보하고 씨앗의 싹트는률을 높이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면서 파종을 짧은 기간에 결속하였음

■ 가을걷이 진행상황 보도 동향(『노동신문』·중앙통신, 2021.10.16~10.22)

- 북한은 수확기를 맞아 ‘가을걷이(추수)’와 ‘낱알털기(탈곡)’에 총력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며 진행상황을 보도되었음
- 10월 15일 기준 황해남도에서 도적인(도 전체적인) 가을걷이 실적은 80% 계선을 돌파하였음
- 10월 16일 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양시, 남포시가 벼가을(벼베기)을 결속하였음. 다른 도들에서도 벼가을을 끝낸 시, 군들이 늘어나고 있음

■ 벼가을을 끝낸 시, 군들이 늘어난다(『노동신문』, 2021.10.18)

- 사회주의협동벌마다에서 올해 농사를 성과적으로 결속하기 위한 투쟁이 강도높이 벌어지는 속에 벼가을을 끝낸 단위들이 늘어나고있음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16일까지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평양시, 남포시가 벼가을을 결속하였음
- 현재 평안남도적으로 10여 개의 시, 군들과 200여개의 농장들이 벼가을을 결속하였고 강원도에서는 원산시를 비롯하여 10여 개의 시, 군들이 벼가을을 마무리하였음

■ 가을누에고치생산계획 초과완수(『노동신문』, 2021.10.19)

- 자강도에서 가을누에고치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이룩하였음
- 미량원소비료와 영양액비료를 만들어 뽕잎생산을 늘일수 있게 되었음
- 희천시, 고평군, 성간군을 비롯한 시, 군들에서는 비료주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뽕잎생산과 그 질을 다같이 높이였음

■ 순천시에서 염소목장 새로 건설(『노동신문』, 2021.10.20)

- 순천시의 일군들은 여러 차례의 현지답사를 통하여 축산전망이 좋은 곳에 목장위치를 정하고 건축설계와 로력보장, 자재보장대책을 적극 따라세웠음
- 건설자들은 며칠동안에 수백 m³의 토량굴착을 진행하고 1,500여 m³의 골재를 채취 및 운반하면서 공사속도를 높여나갔음
- 백수십 정보의 자연풀판이 펼쳐져있는 매봉골기슭에 새로 건설된 염소목장은 통풍조건과 수의방역학적요구가 철저히 보장된 종자염소호동, 새끼염소호동, 비육호동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위생통과실, 수의실, 젓가공실 등도 훌륭히 갖추고있음

■ 시, 군들사이의 토끼기르기경쟁열의 고조(『노동신문』, 2021.10.23)

- 평안북도에서는 태천청년토끼종축장과 시, 군들의 토끼종축장들을 개건하고 많은 종자 토끼를 확보하였음

- 군당위원회에서는 짧은 기간에 토끼사개건공사를 끝내고 우량품종의 어미토끼와 후보 토끼들을 확보하였음
- 비경지를 찾아 풀판을 조성하였으며 청사주변에는 왕사라구를 비롯한 먹이풀도 많이 심었음

■ 광포오리공장 선덕종금직장 고니작업반 고니사 준공(『노동신문』, 2021.10.25)

- 광포오리공장에 고니사가 새로 건설되었음
- 선덕종금직장 고니작업반에 꾸려진 고니사에는 야외와 실내에 여러 개의 호동과 새끼호동, 위생통과실 등 고니기르기에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져있음
- 고니사가 건설됨으로써 희귀한 관상용조류이며 고기맛이 좋고 약용가치가 있는 검은 고니를 공업적방법으로 길러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할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밀, 보리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작전을 심화(『노동신문』, 2021.11.6)

- 황해북도에서 밀, 보리재배면적을 늘이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있음
- 도에서는 가을밀, 보리재배면적을 종전의 2 배로 늘이기 위한 목표를 내세웠음
- 점파재배와 줄씨뿌리기를 비롯한 여러가지 방법이 도입되고 토양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두벌농사적지를 바로 정하기 위한 조직사업이 이루어졌음

■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 시작(『노동신문』, 2021.11.7)

- 원산제염소에서 지하초염수에 의한 소금생산을 시작하였음
- 강원도의 해당 부문과 단위의 일군들은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를 중요한 정책적과업으로 틀어쥐고 뽐프들과 각종 규격의 관, 고압호스, 지구장비 등 필요한 설비, 자재들을 원만히 확보하는 데 힘을 넣었음
- 10여 개 작업반의 소금밭에서 지하초염수매장지를 찾아냄으로써 소금생산량을 늘일 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음

■ 가을밀, 보리파종면적 확장, 비배관리에 힘을 집중(『노동신문』, 2021.11.10)

- 함경남도안의 농업근로자들이 두벌농사에 달라붙어 파종면적을 지난 시기보다 1.7배로 늘이고 비배관리에 힘을 집중하고있음
- 파종면적이 많은 조건에 맞게 매일 계획을 110% 이상 수행한 인흥, 청동협동농장의 뒤를 따라 군안의 협동농장들에서도 농업근로자들이 수백정보의 면적에 씨뿌리기를 하였음
- 토양상태와 물보장조건 등을 구체적으로 료해한 데 기초하여 두벌농사계획을 세운 함주군, 흥원군 등의 많은 협동농장에서도 밀, 보리파종을 질적으로 진행하였음

■ 논밭가을갈이 본격적으로 추진(『노동신문』, 2021.11.19)

-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 전국적인 논밭가을갈이실적이 각각 50%, 75%계선을 넘어섰음
- 신의주시, 정주시, 구장군, 벽동군, 운전군에서 트랙토르들의 가동률을 최대로 높이면서 논과 밭을 날마다 백수십 정보씩 갈아엎었음
- 벽성군, 은률군, 봉천군, 안악군, 배천군을 비롯한 황해남도의 여러 군에서는 포전별, 필지별특성에 맞게 기계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논밭갈이깊이를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보장하면서 련일 높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

■ 개건현대화된 군민룡천돼지공장 준공(『노동신문』, 2021.11.24)

- 평안북도에서 군민룡천돼지공장을 개건현대화하여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는 고기생산기지로 일떠섰음
- 군민룡천돼지공장에는 종합조종실, 사료가공장, 과학기술보급실, 위생통과실 등이 꾸려져있음
- 과학기술보급실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꾸리고 생산건물과 살림집들을 일떠세웠으며 구내도로포장과 양어장건설 등을 내밀어 공장의 면모를 일신시키였음

■ 개건현대화된 구성닭공장 준공식 진행(『노동신문』, 2021.11.25)

- 평안북도에서 구성닭공장을 훌륭히 개건하여 공장을 현대적인 가금생산기지로 전변시켰음
- 공장이 개건됨으로써 더 많은 고기와 알을 생산하여 도안의 인민들의 식생활향상에 적극 이바지하고 농업생산을 장성시킬수 있는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었음
- 건설자들은 수십 개의 생산호동들을 개건하고 자동화, 공업화를 실현하였으며 첨가제 및 발효먹이생산장, 메탄가스발전소, 유기질복합비료생산기지 등을 새로 건설하였음

■ 개건현대화된 신의주닭공장 준공(『노동신문』, 2021.11.29)

- 평안북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신의주닭공장이 훌륭히 개건되었음
- 공장의 노동자들과 건설자들은 집단적혁신으로 국내원료에 의한 먹이첨가제 및 발효먹이의 공업적인 생산공정을 확립하고 불물등에서식장, 대용먹이생산장을 건설하였으며 통합조종실 등을 꾸려 닭호동들의 온습도, 배풍, 먹이공급을 자동적으로 조종할수 있게 하였음
- 고리형순환생산체계가 확립되고 배합사료운반과 배설물처리를 위한 벨트콘베아화가 실현된 가금생산기지에 알깨우기실, 수십개의 닭, 오리호동이 개건되고 과학기술보급실, 액체배양실, 광물질첨가제생산실, 알포집실, 유기질복합비료생산장 등이 갖추어졌음

8. 식량

- 해당 사항 없음

9. 토양

■ 토지정리성과 확대(『노동신문』, 2021.4.21)

-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봄철토지정리를 힘있게 내밀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연탄군, 송림시, 황주군에서 5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였으며 성과를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은파군대대에서는 토지정리를 하나하나 모가 나게 해제길 목표 밑에 불도젤들의 가동률을 높이는 데 힘을 넣어 일군들은 자검자수체계를 세우고 예비부속품을 보장하는 사업을 중시하였음
- 려단에서는 모내기철 전으로 봄철토지정리를 결속할 목표 밑에 작업조건을 따져가며 대상별일정계획을 현실성 있게 세우고 기계화 수단을 충집중하였음

■ 새땅찾기와 알곡재배면적확보에서 성과 달성(『노동신문』, 2021.5.16)

-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해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900여 정보의 새 땅이 확보되고 많은 면적의 알곡재배지가 늘어났음
- 함경남도 단천시 여러 농장의 많은 미광침전물을 처리하고 그에 따르는 측량과 조사를 선행시켜 포전정리, 관개물길건설, 구조물공사를 위한 설계를 짧은 기간에 끝냈음
- 북청강 상류의 제방공사에 필요한 1만여 m³의 막돌채취 및 수송을 한 달 동안에 끝내고 자재확보 등도 신속히 따라 세워 수역토지를 농경지로 개간할 수 있는 담보를 마련하였음

■ 1,000여 정보의 토지를 규격포전으로 정리(『노동신문』, 2021.5.23)

-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 일군들과 돌격대원들이 두 달 남짓한 기간에 1,0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였음
- 송림시, 연탄군의 토지정리를 결속하고 황주군의 많은 농경지를 규격포전으로 만들어 첫 모를 낼 수 있게 하였음
- 황주군대대에서는 불도젤들의 가동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서 운전수들의

기술기능수준에 맞게 작업조를 묶고 토량처리와 완성작업을 진행하여 계획보다 1.5배 이상의 농경지를 기계화포전으로 변모시켰음

■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늘여(『노동신문』, 2021.6.14)

- 동림군 일군들과 농업근로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토양의 영양물질함량을 늘이는데 힘을 넣고 있는 중임
- 군에서는 유기질복합비료를 질적으로 생산하여 저수확지농사에 리용하는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 나갔음
- 진거름을 비롯한 많은 원료를 확보하는 사업이 줄기차게 벌어졌고 군유기질복합비료 공장에서 질이 담보된 유기질복합비료를 많이 생산하여 농장들에 공급할 수 있었음

■ 효능 높은 유기질비료를 리용하여(『노동신문』, 2021.7.16)

- 량강도의 농촌들에서 유기질비료를 적극 리용하여 농작물 성장을 촉진시키고 있음
- 삼지연시, 대흥단군, 백암군의 농장들에서 불리한 일기조건에서도 종균을 리용하여 많은 유기질비료를 생산함으로써 농작물의 영양상태를 개선하고 있음
- 김정숙군, 김형권군의 농업근로자들이 여러 가지 효능 높은 영양액을 생산하여 앞뎛 비료로 줌으로써 강냉이들을 하나같이 싹하게 자래우고 있음

■ 가을철토지정리에 진입(『노동신문』, 2021.10.15)

- 토지정리돌격대 황해북도려단에서는 가을철에 은파군, 봉산군, 사리원시, 황주군에서 1000여 정보의 토지를 정리하기로 하였음
- 가을걷이가 끝나는 차제로 불도젤들을 들이밀기로 하고 농장들에 나가 물빠기를 앞세우면서 돌격대원들이 벼단운반을 적극 도와주도록 하였음
- 기계수단의 리용률을 최대로 높이기 위해 자체로 필요한 예비부속품을 충분히 장만하고 대대별로 불도젤출동식을 진행하게 하였음

10. 해양

■ 수산자원을 적극 보호증식(『노동신문』, 2020.12.26)

- 강원도 수산관리국에서 올해에 각각 수십만 마리의 새끼해삼, 새끼참성게를 동해에 놓아주었다 함
- 관리국적인 계획에 따라 여러 단위에서는 기술자, 양식공들에게 해삼과 참성게양식의 우월성과 경제적 효과성을 깊이 인식시키면서 해당 기관과의 연계 밑에 양식에서 제기되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였다 함
- 관리국 일군들은 사업소들에 내려가 걸린 문제를 알아보고 제때에 대책을 세워주었고 종자확보를 앞세우고 필요한 자재, 기구들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떠밀어주었다 함

■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에 역량 집중(『노동신문』, 2021.2.22)

- 소금생산종합기업소에서는 여러 제염소의 현 실태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여 소금생산의 집약화, 기계화, 현대화를 실현하는 데 모를 박고 그를 위한 작전을 심화시키고 있음
- 양수동력설비들의 가동률을 높이고 소금건이기계를 비롯한 설비들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들과 과대용량전동기들을 합리적으로 정돈하는 등 생산토대를 정비보강하는 사업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음

■ 전국 수산 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신문』, 2021.5.8)

- 전국 수산 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와 수산성의 공동 주최로 4일부터 6일까지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발표회에는 양식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하며 생산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할 60여건의 논문들이 제출되었음
- 발표회는 양식 부문의 과학화 수준을 한 계단 높이기 위한 교류 및 협조를 더욱 강화하고 선진기술을 일반화하는 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음

■ 새로 등록된 천연기념물-비파물범(『노동신문』, 2021.8.8)

- 최근 비파물범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었음
- 비파물범은 몸길이가 1.5~2m이고 몸질량은 120~150kg이고 대가리의 앞면은 좁고 귀바퀴가 없음. 등 부위는 재색이면서 불규칙적인 검은색의 반점들이 많고 배 부위는 누른색이면서 검은색의 반점들이 성글게 있음
- 이번에 비파물범이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됨으로써 그에 대한 보호사업이 국가적인 관심 속에서 진행되게 되었음

■ 그물우리양어의 과학화 실현에 적극 기여(『노동신문』, 2021.8.18)

- 최근 김책공업종합대학 선박해양공학부 선박공학연구소의 연구집단이 그물우리양어의 지속적 발전을 과학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양어장 설계의 표준화를 실현하였음
- 과학자들은 종합적인 수역별 특성자료들에 기초하여 그물우리를 제작에 쓰이는 각종 관 규격을 확정하고 강바닥의 상태에 적합한 계류설비들을 하나하나 선정하는 데도 솜한 품을 들이었음
- 선박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은 2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에 그물우리양어장 설계의 표준화를 실현하였으며 도입 과정에 제기되는 문제들도 완벽하게 해결하였음

■ 동해지구 수산단위들 물고기잡이에 일제히 진입(『노동신문』, 2021.10.28)

- 수산성에서는 물고기잡이철에 맞게 동해안의 도수산관리국, 수산사업소들에 일군들을 파견하여 배수리와 어구준비를 비롯한 물고기잡이준비정형을 따져보고 필요한 대책을 세웠음
- 모든 수산단위들에서는 어황상태에 따라 해상지휘조에 고기배들의 기동지시를 주고있으며 중심어장을 제때에 찾아 적극적인 어로전을 벌리고있음
- 송도원수산사업소에서는 부두에 하륙되는 물고기들을 제때에 처리하여 작업선들의 물고기잡이시간을 늘이도록 하고있음

■ 올해 전국적으로 2천여정보의 새땅찾기 진행(『노동신문』, 2021.11.4)

- 올해 각지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새땅찾기운동을 힘있게 벌려 2천여 정보의 새땅을 찾아냈음
- 천리마구역과 온천군을 비롯한 다른 구역, 군의 근로자들도 새땅을 찾아 알곡재배 면적을 늘이기 위해 올해 새땅찾기계획을 150% 이상 넘쳐 수행하였음
- 과일군의 일군들은 새땅예비는 얼마든지 있다는 관점에서 로력과 수단을 집중하여 결과 올해 계획한 새땅찾기목표를 130%로 넘쳐 수행하였음

11. 생태계(동식물)

■ 태천자라공장 준공(『노동신문』, 2020.12.2)

- 평안북도에서 태천자라공장을 새로 준공하였고 공장에는 알깨움장, 사료가공장, 종어장, 야외못을 비롯하여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를 실현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훌륭히 갖추어져 있다 함
- 평안북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장세철은 건설에 동원된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사무청사와 후생 건물, 야외못과 제방성토 등 방대한 공사과제들을 성과적으로 끝내었다고 하였다 함

■ 김정은 위원장,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발굴된 새를 《백토새》로 명명(중앙방송, 2021.2.19)

- 백토동지구에 분포되어 있는 중생대 백악기 하세층에 속하는 신의주주층의 3번층(약1억 3,000만 년 전)에서 새의 대가리뼈, 발가락뼈, 날개의 1차 날깃 11개와 작은 깃가지들까지 선명하게 보존되어 있는 세계적으로 희귀한 새화석을 찾아냈음
- 김정은 위원장은 이번에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화석으로 발굴된 중생대의 새를 《백토새》로 명명하도록 하고 유원지총국 자연사박물관에 전시해서 청소년 학생들에 대한 교육교양과 과학연구사업에 리용하도록 조치를 취해주었음
- 이와 함께 공룡이발화석과 원시포유동물화석, 물고기화석 등을 발굴하고 지금까지 발

- 굴된 척추동물화석, 무척추동물화석, 식물화석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백토동지구가 중생대의 우리나라 모든 척추동물들이 출현한 곳이라는 것을 과학적으로 해명했음
- 국가과학기술심의회에서는 백토동지구에서 진행한 고생물학적 연구결과가 우리나라의 중생대 백악기 생물군에 대한 연구를 심화시키는 데서 학술적 가치가 큰 연구 성과라고 평가했음
 - 신의주시 백토동지구에서 깃을 보존한 중생대의 새화석이 발굴 고증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인류의 발상지일 뿐 아니라 조류의 발상지라는 것을 보다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게 되었음

■ 새끼물고기의 사름률보장에 힘을 넣어(『노동신문』, 2021.4.19)

- 수산자원을 보호증식하는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속 있게 진행하며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 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일 데 대한 양어 부문에서 새끼물고기의 사름률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공장에서는 뽕물등에서식장을 과학기술적 요구에 맞게 꾸려놓고 새끼물고기 기르기에 필요한 단백질먹이를 확보하고 있고 수질을 정확히 검사하는 체계, 물 온도를 자동조종하는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
- 수산성에서는 수질이 좋은 물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우고 있고 순천메기공장의 기술자들은 메기의 종자를 개량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벌려 새끼메기의 생활력을 높였음

■ 유용동물들을 적극 보호증식하자(『노동신문』, 2021.4.21)

- 유용동물들을 보호증식하는 것은 생물다양성을 보장하고 동물자원을 적극 늘이기 위한 사업으로서 국토의 많은 부분이 산으로 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졌음
- 보호구들에서 서식하는 동물들과 보호증식대상으로 정한 동물,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산종, 희귀종의 동물, 위기종의 동물분포상태, 자원량 같은 것을 정기적으로 조사등록하며 그에 기초하여 유용동물보호증식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함

■ 태천호에 많은 새끼쏘가리 방류(『노동신문』, 2021.7.2)

- 얼마 전 태천군종어사업소 쏘가리작업반에서 많은 새끼쏘가리와 먹이용 새끼물고기를 태천호에 놓아주었음
-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 대처하여 물려과실을 새로 건설하고 보이라를 제작설치함으로써 쏘가리알깨우기에 적합한 수질과 온도를 보장할 수 있게 하였음
- 태천군 종어사업소 쏘가리작업반에서는 중앙양어연구소 과학자들의 방조 밑에 남아 있는 새끼쏘가리로 먹이순치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수산자원을 늘리기 위한 사업을 더욱 즐기치게 별려나가고 있음

■ 수천만 마리의 새끼물고기 방류(『노동신문』, 2021.7.11)

- 각지 양어 단위들에서 올해에 들어와 수천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강과 호수 등에 방류하였음
- 평안남도에서 양어의 물질기술적 토대강화에 힘을 넣어 상반기 새끼물고기 방류계획을 115%로 넘쳐 수행하였음
- 평성시 대동강양어사업소에서는 해당 단위와의 긴밀한 연계 밑에 산소발생기와 물려과장치를 제작하여 물고기 기르기를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백수십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대동강에 방류하였음

■ 새로 등록된 천연기념물-오가산자연보호구(『노동신문』, 2021.8.29)

- 최근 오가산자연보호구가 천연기념물로 새로 등록되었음
- 오가산이라는 이름은 해발 1,000m 되는 다섯 개의 아름다운 산봉우리들이 태고연한 밀림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데로부터 유래되었음
- 랑림산 줄기에서 북쪽으로 뻗어나간 산줄기 한끝에 속하는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아한대성식물분포구와 온대성식물분포구의 경계에 있으므로 식물의 종구성이 다양한 것이 특징임

■ 많은 새끼물고기 방류(『노동신문』, 2021.10.8)

- 평안남도에서 올해에 천수백만 마리의 새끼물고기를 충실하게 자래워 도안의 강과 호수들에 놓아주었음
- 종어, 양어기지에서 자체의 기술력량과 내부예비를 총동원하여 새끼물고기를 더 많이 자래우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설비를 원만히 갖추어놓도록 하였음
- 먹이보장에 힘을 넣으면서 알반이와 새끼물고기자래우기 등을 과학기술적으로 진행하여 사름률을 높이도록 하였음

1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재해성 기후에 대처한 과학적인 방책을(『노동신문』, 2021.4.3)

- 연백별 안의 연안, 배천, 청단군 일군들이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기 위해 재해성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도를 찾고 완강하게 실천해 나가고 있음
- 자기 고장 특히 바다를 끼고 있는 농장들의 기후변동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자연재해를 극복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게 작물구조를 개선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음
- 논벼, 강냉이의 품종별 특성을 세밀하게 따져본 데 기초하여 지대적, 기후적 조건에 맞으면서도 생산성이 높고 가물, 큰물, 고온, 저온, 병견딜성이 강한 다수확품종들과 생육기일이 짧은 품종들을 배치하는 사업을 조직하였음

■ 태풍과 큰물(홍수)에 대처하기 위한 철저한 사전준비 강조(『노동신문』, 2021.5.28)

- 태풍과 큰물에 의한 피해를 철저히 막는 것은 인민들의 생명재산과 나라의 귀중한 재부를 보호하고 8차 당 대회 결정관철을 위한 절박한 요구임
- 국가비상재해위원회가 자기의 기능과 본분을 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태풍과 큰물이 들이닥친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재해방지를 소홀히 하는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총화를 짜고 들어야 함
 - 특히 해안방조제와 언제, 저수지들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들을 철저히 세워야 하며 비상재해 물자를 미리 조성하기 위한 사업도 매우 중요함

■ 자연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빈틈없이(『노동신문』, 2021.7.6)

- 각 도, 시, 군들에서는 중소하천 및 물길정리, 양수동력설비들에 대한 수리정비 등에 힘을 넣고 있고 해안연선의 시, 군들에서는 해안방조제를 비롯한 구조물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염주군, 신의주시, 룡천군에서는 하천, 물길바닥을 깊이 파내고 제방과 뚝을 든든하게 쌓는 등 무더기비가 내려도 피해가 없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
- 재해성 기후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노력에 의하여 도안의 전반적인 중소하천, 물길들에 대한 정리공사와 저수지 제방, 방수로, 취수문보수공사가 마감단계에서 추진되고 있음

■ 자연재해에 주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사업 전개(『노동신문』, 2021.7.10)

- 자강도에서 큰물과 비바람피해를 입을 수 있는 대상들을 구체적으로 료해장악한 데 기초하여 짧은 기간에 12만 4,500여 m^3 의 강바닥파기와 제방공사 등을 진행하였음
- 만포시에서는 력량과 기계수단들을 집중하여 강바닥파기와 제방보수, 수km 구간의 웅벽보수를 질적으로 함으로써 산사태를 비롯한 자연재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였음
- 장마철 피해막이 사업을 군중적 운동으로 내밀고 있는 시종군, 송원군 등지에서 장자강호안보강공사, 철길과 령길의 락석방지, 암거, 수통가시기를 결속하였음

■ 여러 지역에서 가물피해 발생, 적극적인 대책 강구(『노동신문』, 2021.7.26)

- 북서태평양아열대고기압의 영향으로 지난 12일부터 우리나라의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이 지속되면서 농작물들이 가물피해를 받기 시작하였음
- 7월 중순까지의 강수량은 전국 평균 21.2mm로서 평년의 25.8% 정도이며 1981년 이후 기상관측 이래 두 번째로 비가 적게 내렸음
- 서흥군, 중강군, 자성군, 고성군, 안변군, 홍원군, 신흥군 등지에서 많은 면적의 강냉이, 콩밭들이 깊이 5~20cm까지 마르고 그 이하의 토양습도는 30~50%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지속되는 폭염으로 가물피해면적이 계속 늘어나고 있음

■ 큰물과 폭우에 의한 피해막이사업 적극 추진(『노동신문』, 2021.8.3)

- 연백벌의 농촌들에서 재해성 기후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작물생육을 안전하게 담보하기 위한 사업을 긴장하게 추진하고 있음
- 농업근로자들은 받머리도랑과 사이도랑을 잘 정리하는 한편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과 고인물에 의하여 부침땅이 류실되거나 농작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군의 수십 km 구간에서 해안방조제공사가 마감 단계에서 추진되고 농촌들에서는 양수기 가동률을 최대로 높일 수 있게 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음

■ 해일피해막이에 역량을 집중(『노동신문』, 2021.8.4)

- 함경남도에서 재해성 기후에 대처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짜고들고 있음
- 특히 해안방조제공사를 실속 있게 진행하여 해일피해를 극력 줄이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워나가고 있음
- 도에서는 해안방조제 건설을 적극 다그치는 것과 함께 해일피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에도 큰 힘을 넣고 있음

■ 자연재해를 하루빨리 가시기 위해 계속 분투(『노동신문』, 2021.8.14)

- 함경남도 피해지역의 살림집 건설을 맡은 시, 군의 전투원들이 골재장들을 신속히 전개하고 블로크찍기성과를 련일 확대하고 있음
- 피해를 입은 논밭의 물빼기와 배수로짜기를 비롯하여 긴급대책을 세운 이들은 현재 가능한껏 농작물 생육을 추켜세우기 위해 잎씻어주기, 살균제 처리 등의 사업을 본격적으로 내밀고 있음
- 또한 피해를 입은 농경지에서의 농작물 생육보장에도 깊은 주목을 돌리고 있고 환원 복구할 수 있는 농경지들에서 농작물의 잎씻어주기를 진행한 데 이어 살균제 처리와 영양액으로 잎덧비료주기를 제때에 따라세우고 있음

■ 많은 새끼물고기 방류(『노동신문』, 2021.11.2)

- 평양시안의 양어단위들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하여 최근에 1,500만 마리의 새끼물고

기가 대동강과 보통강을 비롯한 강하천들에 방류되었음

- 청년두단종어사업소와 대동강양어 및 종어생산공급소에서 정연하게 세워진 새끼 물고기생산체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음
- 생산성이 높은 엄지물고기들을 확보해놓고 앞선 인공수정방법을 도입하여 알깨우기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새끼물고기의 생육활동에 유리한 물온도와 수질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수백만 마리의 기념어를 길러냈음

■ 유용동물보호와 보호구(『노동신문』, 2021.11.14)

- 최근 도, 시, 군들에서 유용동물보호구를 잘 꾸리고 유용동물들을 많이 번식시키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있음
- 유용동물보호구는 경치가 좋고 꿩, 노루를 비롯한 동물들의 서식조건이 충분히 보장되면서 산림의 풍치와 생태보호에 손상이 없게 야산지역을 위주로 선정함
- 보호구 안에서 유용동물들의 보호증식에 지장을 주는 각종 개발 및 자원리용을 하지 않도록 하며 나무심기와 가꾸기, 병해충구제 등 산림조성과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에도 동물들의 번식에 지장이 없도록 시기선정을 바로하고 조직사업을 짜고 들어야 함

13. 보건과 환경오염

■ 자강도 희천입원침대공장 준공식 진행(중앙통신, 2020.12.7)

- 자강도에서 희천입원침대공장을 건설하였음
- 능력이 큰 의료비품생산기지가 특색 있게 일떠선 것은 보건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또 하나의 성과임
- 준공식이 10일에 진행되었음

■ 당의 이민위천의 사상과 이념을 구현한 사회주의보건사업 소개(중앙통신, 2021.1.28)

- 각지 의료기관들에서 내적잠재력을 총 발동하여 의료봉사활동과 의학과학기술발전,

물질기술적 토대강화 등에서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구체적인 방도들이 토의되고 뚜렷한 목표들이 세워지고 있음

- 평양의 옥류아동병원과 류경치과병원, 량강도의 삼지연시인민병원 등을 본보기로 하여 전국의 치료예방기관들의 면모를 더욱 일신하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지고 있음
- 제약, 의료기구, 고려약 공장들에서 개건현대화를 다그치며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 정상화와 원료, 자재의 국산화를 실현하기 위한 작전들이 펼쳐지고 있음
- 위생방역 부문에서 우리의 힘과 기술로 그 어떤 세계적인 보건위기에도 대처할 수 있는 방역기반을 더욱 튼튼히 다지기 위한 사업들이 전개되고 있음
-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 가치 있는 연구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 나라의 보건발전을 견인해갈 목표를 내걸고 의학과학연구 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두뇌전, 탐구전을 힘있게 벌리고 있음

■ 중앙비상방역 부문, 전 국가적 비상방역사업 심화(중앙방송, 2021.2.8)

- 중앙비상방역 부문에서는 전 국가적인 비상방역전을 보다 철저히 공세적으로 벌리도록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치밀하게 짜고들고 있음
- 각급 비상방역 부문에서는 국경과 해상에 대한 봉쇄장벽을 더욱 튼튼히 다지면서 철새와 동물에 의한 전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감시 및 취급처리 절차와 즉시적인 통보체계를 강하게 세우고 있음
- 검사검역기관들에서는 물자들에 대한 검사검역을 비상방역 규정과 질서대로 엄격히 진행해서 사소한 류입공간도 허용하지 않고 있음
- 각지에서 공공장소와 열차, 지하철도, 무궤도전차와 버스를 비롯한 운수수단들에 대한 소독사업이 매일 정확히 진행되고 있으며 의료기관들에서는 주민들에 대한 의학적 감시와 검병검진을 빠짐없이 하고 있음

■ 생산에 앞서 중시한 환경보호사업(『노동신문』, 2021.7.10)

- 당 제8차대회에서는 국토관리와 생태환경보호사업이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고

조국산천을 더욱 아름답게 하기 위한 중대사이며 나라의 장래와 관련되는 전략적인 사업이라는 데 대하여 강조되었음

- 강원도에서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제진설비와 밀폐장치 등을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산업폐수처리시설 등도 잘 꾸려놓아 대기오염과 강하천, 바다오염을 철저히 막도록 하고 있음
- 천내리세멘트공장에서는 일군들부터가 환경보호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있으며 올해에 여러 생산공정의 제진장치와 밀폐장치들을 보강하거나 새로 제작설치하였음

14. 환경정보화와 과학기술

■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 진행(중앙통신, 2020.12.2)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이 진행되었음
- 우주과학기술토론회는 당과 정부의 평화적 우주개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성과들을 널리 소개하고 보급일반화하며 우주과학기술발전을 적극 추동할 목적으로 해마다 열리고 있음
- 인공지구위성분과, 우주관측 및 기초과학분과, 우주재료 및 요소분과, 응용기술분과로 나뉘어 열린 토론회는 해당 단위들에서 제출된 170여 건의 논문을 심의하여 등수를 발표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음
- 이번 토론회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농업성을 비롯한 과학교육기관, 성, 중앙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일군들이 참가하였음
- 위성 및 그 부분품들의 수명과 안전성, 위성의 동작 정확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성과자료들이 전문가들의 관심을 끌었음
- 위성정보자료와 기상관측자료를 결합하여 농업과 국토환경보호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여러 부문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논문들이 평가를 받았음

■ 감자농사의 과학화를 위한 작전 심화(『노동신문』, 2021.2.19)

- 량강도에서 감자농사의 과학화 수준을 끌어올려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농업생산

을 안전하게 장성시키기 위한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삼지연시를 비롯한 도안의 시, 군들에서는 다수확우량품종의 감자종자들의 보관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것과 함께 지대별 특성과 불리한 일기조건에 맞게 품종배치 사업을 짜고들고 있음
- 협동농장들과 작업반, 분조들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실, 농업과학기술선전실을 통하여 농업근로자들에게 해당 지역의 풍토와 기상기후조건에 맞는 과학농법을 깊이 인식시키고 있음

■ 농업연구원 본원지구에 여러 연구소 준공(『노동신문』, 2021.5.3)

- 농업연구원 본원지구에 농업생물학연구소, 식물보호학연구소, 농업나노기술연구소, 농업화학화연구소가 훌륭히 꾸려져 준공되었음
- 지효성비료연구실, 유전자분석실, 선충연구실, 유기재료실험실, 농업화학제품분석실을 비롯한 수십 개의 연구 및 실험실을 갖춘 현대적인 연구소들이 일떠섬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할 과학연구사업을 위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게 되었음
- 나노기술, 초립계류체기술 등을 리용한 나노기술제품들과 각종 비료, 영양강화제, 종자피복제들을 비롯한 농업화학제품들을 연구하고 효과적인 생산방법, 적용기술을 확립할 수 있는 튼튼한 토대도 마련되었음

■ 양어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추진(『노동신문』, 2021.5.28)

- 양어를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각지 양어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양어의 경제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청년두단종어사업소에서는 먹이를 적게 먹으면서도 빨리 자라고 생활력이 강한 물고기종자를 얻어내는 데 힘을 넣어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물려과장치를 새롭게 설치하여 알깨우기의 실수률을 높이고 있는 중임
- 서흥범안양어사업소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먹이서식장을 잘 꾸려놓고 단백질먹이를 충분히 보장하고 있으며 순천메기공장에서는 양어못들을 물고기의 종류와 생육단계에

맞게 배치하고 먹이주기와 물 온도 보장 등을 과학적으로 하고 있음

■ 보통강의 수질개선을 위한 연구사업 심화(『노동신문』, 2021.9.8)

- 보통강 류역에 수질정화, 큰물조절, 생물다양성보호와 같은 기능들이 결합된 생태복원시범구역을 꾸리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는 사업을 진행해나가고 있음
- 수질을 정화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큰단백풀의 공업적 재배와 처리기술을 완성하여 보통강 류역에 도입하기 위한 과학기술적 대책들이 세워지고 있음
- 김일성종합대학과 평양잔디연구소의 과학자들은 큰단백풀을 시험재배하기 위한 현지조사를 면밀히 진행하면서 재배에 적합한 위치를 확정하였으며 큰단백풀의 처리기술과 관련한 연구사업을 벌려나가고 있음

■ 앞선 양어기술을 적극 받아들여(『노동신문』, 2021.9.14)

- 서흥범안양어사업소에서 양어의 과학화, 집약화 실현에 큰 힘을 넣고 있음
- 사업소에서는 뽕물등에생산을 활성화하는 데서 고리형순환생산체계확립에 큰 힘을 넣었음
- 생산성이 높은 우렁이생산방법을 적극 받아들이는 한편 양어못마다에 빛수감식유인등을 설치하여 곤충을 물고기 먹이로 리용하고 있음

■ 알곡수확고를 최대한으로 높일 수 있는 과학기술적 대책 강화(『노동신문』, 2021.9.15)

- 연구소의 일군들과 과학자들은 알곡수확고를 조금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방도들을 적극 탐구동원하기 위해 과학연구활동을 강력히 전개해나가고 있음
- 도농촌경리위원회의 방조 밑에 많은 액체복합비료를 짧은 기간에 생산해낸 연구소의 일군들은 즉시에 도 안의 협동농장들에 보내주어 벼영양상태를 빠른 기간에 개선할 수 있게 하였음
- 강원도 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천알질량을 기준보다 더 늘일 수 있는 중요한 방도의 하나가 벼영양관리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지역별, 포전별로 벼영양상태를 개선할

수 있는 대책안들을 집행해나가도록 과학기술적 지도를 하고 있음

■ 석탄공업 부문에서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 적극 창안도입(『노동신문』, 2021.9.19)

-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9월 초까지 석탄공업성적으로 300여 건의 가치 있는 기술혁신안이 창안도입되었음
- 제남탄광의 노동자, 기술자들이 긴장한 석탄운반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의의가 있는 기술혁신안을 도입하였으며 남양탄광에서는 휴대용 직류용접기를 만들어 생산에 널리 리용하고 있음
- 순천지구 청년탄광연합기업소의 탄광들에 V형쇠동발생산지지가 꾸려지고 부속품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열처리로가 건설되었고 안주지구 탄광연합기업소에서는 사슬전동식감탕뿔프를 비롯한 여러 설비를 제작하였음

■ 바다양어의 물질기술적 토대 강화(『노동신문』, 2021.9.21)

- 함경북도 수산관리국에서는 바다양어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다져 물고기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데 힘을 집중하고 있음
- 관리국적인 조직사업에 따라 직하대서양련어종어장 2단계 대상공사가 적극 추진되고 있음
- 근로자들은 수십 개의 수조를 갖춘 실내호동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있으며 수질보장을 위한 공사도 진행하여 새끼물고기 생육에 좋은 조건을 마련하고 있음

■ 적극적인 연구도입사업으로 농업생산을 추동(『노동신문』, 2021.9.28)

- 농업연구원에서는 우리나라의 지대적, 기후적 특성에 맞으면서도 맛이 좋고 영양가와 생산성이 높으며 가물과 추위, 병해충견딜성이 강한 다수확우량품종들을 육종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내밀고 있음
- 벼연구소에서는 간석지논에 적합한 논벼품종과 생육기일이 짧은 벼품종, 불리한 환경조건에서도 높고 안전한 소출을 내는 벼품종 등에 대한 육종연구를 다그치면서 합리적인 두벌농사방법, 다수확재배기술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치고 있음

- 강냉이연구소와 발작물연구소를 비롯한 여러 연구소에서는 소출이 높고 안전한 강냉이 품종육종과 그 다수확재배기술확립, 용도별에 따르는 각이한 밀품종육종을 위한 연구 사업에 힘을 넣고 있음

■ 전력생산을 늘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 창안 도입(『노동신문』, 2021.9.29)

- 자강도 희천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계급이 발전기와 차단기대보수기일을 앞당기고 발전기수차날개각도를 합리적으로 조절하여 효율을 올리였음
- 장자강발전소에서 기술자, 기능공들의 역할을 높여 언제구조물관리를 과학적으로 함으로써 올해에 들어와 전력생산을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훨씬 끌어올리였음
- 위원발전소에서는 발전기들의 조속기 성능을 개선하고 변압기에 수자식온도측정장치를 받아들여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고 있음

■ 재자원화기술경험발표회 진행(『노동신문』, 2021.10.2)

- 재자원화기술경험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화상회의체제로 진행되었음
- 이번 발표회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를 실현할 데 대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널리 보급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국가과학원, 강계농림대학, 김정숙평양제사공장, 사리원방직공장, 은률광산을 비롯한 70여 개 단위의 일군, 과학자, 기술자, 교원, 3대혁명소조원 등이 참가하였음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신문』, 2021.10.14)

- 전국수의축산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12일과 13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발표회에는 국가과학원 미생물학연구소, 농업연구원 축산학연구소, 평양농업대학, 평성수의축산대학, 안악군 구와협동농장을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현장일군 등이 참가하였음
- 축산업발전을 위한 과학연구와 생산활동을 힘있게 벌리는 과정에 이룩된 5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들이 제출되었음

■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사리원연구분소 새로 건설(『노동신문』, 2021.10.25)

- 농업연구원 과수학연구소 사리원연구분소가 새로 건설되어 준공되었음
- 연구분소에는 종합실험실, 재배연구실, 병해충연구실 등 과수연구사업에 필요한 조건이 충분히 갖추어졌음
- 사리원시에서는 연구분소를 현대적으로 건설할 목표밑에 과수연구기지의 특성에 맞게 설계와 시공을 질적으로 하여 짧은 기간에 일떠세웠음

■ 큰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이바지하는 정보체계 개발도입(『노동신문』, 2021.11.5)

-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와 수리공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수력발전소들에서 자연재해예방능력을 높일수 있는 큰물재해관리정보체계를 개발도입하였음
- 저수지류역의 비내림상황에 따르는 저수지와 물길들의 수위변화와 큰물량을 사전에 예측조절할수 있는 정보체계의 개발도입으로 큰물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전력생산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할수 있는 또 하나의 과학적토대가 마련됨
- 지역의 특성을 정확히 반영한 정보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현장기술자들과 함께 10여 일 동안 고심어린 노력을 기울이며 수십 리에 달하는 하천구간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하였음

■ 산림조성과 보호를 위한 과학연구사업 추진(『노동신문』, 2021.11.9)

- 산림자원보호연구소에서는 전국의 여러 지점들에서의 토양상태, 비탈상태, 나무수종 등에 대한 조사사업을 진행함으로써 해당 지역 산림의 물저장능력을 평가하고 큰물피해를 최소화할수 있는 산림건설방안을 작성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수행하였음
- 과학자들은 산림생태환경평가지표와 기준을 새롭게 선정한데 기초하여 평가방법을 확정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다그치고 있으며 전국의 여러곳에 설치된 생태관측기지들을 통하여 연구과제수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들을 수집하기 위한 사업을 일정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음

- 산림조성학연구소의 과학자들이 잣나무와 함께 자래울수 있는 2개 수종의 나무를 선발해내고 참나무류잡관목지를 개량하기 위한 방도를 적극 탐구하는 것과 동시에 창성이깔나무의 사름률을 90%이상 보장하면서 초기성장률을 1.2배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성장촉진제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사업도 마감단계에서 다그치고 있음

■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신문』, 2021.11.13)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0일부터 12일까지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를 비롯한 20여 개 단위의 교원, 연구사, 현장일군 등이 참가한 과학기술발표회에서는 석탄공업을 전망성있게 발전시키는 데 이바지하는 16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이 발표되었음
- 종합물리탐사 및 시추자료에 의한 심부무연탄층의 수학적예측방법과 우리식의 질 좋은 경질합금재료를 개발하는데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들을 깊이있게 론증한 연구 논문들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음

■ 수력발전설비제작과 운영의 과학화를 위한 토대 마련(『노동신문』, 2021.11.22)

- 국가과학원 수리공학연구소에 수력발전설비제작과 운영의 과학화를 실현하는 데서 실천적의의가 큰 수력타빈모형시험장이 꾸려지고 그 운영이 적극화되고 있음
- 시험장에서 진행하는 수리모형실험은 각이한 락차와 류량조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측정이 쉽고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이 실험방법은 세계적으로도 널리 리용되고 있음
- 과학자들은 수력타빈모형시험기술공정을 보다 훌륭히 완성하게 되었고 지난 6월 이들은 단천1호발전소 혼류타빈과 조수력발전소 갑실타빈에 대한 수리모형실험을 진행함으로써 새롭게 연구개발한 수력타빈들의 최고효률을 정확히 확정하였음

■ 다음해 농업생산장성을 위한 과학기술적대책 강화(『노동신문』, 2021.11.25)

- 강원도농업과학연구소에서는 불리한 기상기후조건에서도 높은 소출을 낼 수 있는 종자들을 육종, 개량하기 위한 연구사업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량한 논벼품종들과 밀품종육종연구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고 있음
- 연구소에서는 벼모를 튼튼하게 자랄 수 있는 유기광물복합영양제와 다기능종자피복제를 대량생산하여 시, 군들에 보장할수 있게 생산공정을 개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 있음
- 도의 주요알곡생산지들에 파견된 연구소과학자들은 해당 지역의 농업생산에 이바지할수 있는 수십 건의 선진영농기술과 방법들을 새롭게 도입하였으며 결과 수만 톤의 알곡을 증수할 수 있게 하였음

■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노동신문』, 2021.11.26)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23일부터 25일까지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동물성 및 식물성단백먹이원료의 대응》이라는 주제로 열린 발표회는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하여 수산물생산을 계통적으로 늘일 데 대한 기본인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소개선전하고 보급일반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음
- 발표회에는 단백질과 첨가제를 생산하여 물고기먹이문제를 풀고 과학적인 사양관리체계를 세우며 양어기술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7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이 제출되었음

■ 뽕물등에리용에 관한 기술경험발표회 진행(『노동신문』, 2021.11.26)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의 주최로 뽕물등에리용에 관한 기술경험발표회가 24일과 25일 화상회의방식으로 진행되었음
- 농업성 가금연구원,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 평양타조목장, 만경대닭공장, 서흥범안양어사업소를 비롯한 수십개 단위의 과학자, 연구사, 3대혁명소조원, 현

- 장일군 등이 참가한 이번 발표회에는 70여 건의 가치있는 논문이 제출되었음
- 기술경험발표회는 단백질분해 효소를 리용하여 축산과 양어에 필요한 먹이문제를 해결하는데서 이룩한 과학기술성과와 경험들을 교류하고 널리 보급일반화하기 위한 계기로 되었음

15. 정치경제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 진행(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0.12.5)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 전원회의가 12월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함에 대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과학기술성과도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립업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하여’, ‘중앙재판소 판사 소환 및 선거에 대하여’ 등의 의안들이 상정되었음
-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립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함에 대한 정령들이 전원 찬성으로 채택되었음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 식의주문제 해결작전 돌입 소개(중앙통신, 2021.1.27)

-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기간 식의주문제 해결에서 기어이 돌파구를 열고 인민들이 폐부로 느낄 수 있는 실제적인 변화와 혁신을 이룩하려는 것은 조선로동당의 확고한 결심임
- 조선로동당 제8차 대회 결정관철에 펼쳐나선 농업 부문 일군들이 과학농사의 생활력이 다발적으로 뚜렷이 나타나도록 하는 데 모를 박고 혁신적인 작전을 세우고 있음
- 우선 재해성 기후에 대처할 수 있는 과학농사체계와 방법을 확립해 나가고 있음
- 농업생산단위들에서 기후적, 토양학적 특성과 농작물의 품종별 특성에 맞게 올종,

중간종 등을 합리적으로 배치하며 지력을 높이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이와 함께 지면피복재배, 물질약형농법을 비롯한 선진영농기술과 방법을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내밀고 있음
- 특히 화학비료를 적게 쓰면서도 효과성을 높일 수 있게 하는 지효성알비료생산기술을 널리 받아들이도록 대책하고 있음
- 여러 가지 성장촉진제와 영양강화제를 리용하는 사업도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음
- 각 도에 지난해 농사경험자료를 보급일반화하고 컴퓨터망을 통해 농작물생육예보와 영농공정별기술자료들을 제때에 보급하는 사업도 적극 밀고 나가고 있음

■ 전체 인민들에게 ‘새로운 5개년계획 관철 총진군’ 독려(중앙통신·『노동신문』, 2021.1.30)

- 1월 30일부 중앙신문들은 새로운 5개년계획을 수행할 데 대해 강조한 사설을 실었음
- 노동신문은 당 제8차 대회에서 사회주의 건설의 새 승리를 쟁취할 데 대하여 강조하였 다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
 - 자력갱생의 기치를 더 높이 들고 나가는 것은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근본 담보임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총적 방향을 경제발전의 중심 고리에 역량을 집중하여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는 것임
 - 5개년계획의 기본 종자는 자력갱생, 자급자족임. 새로운 전망 계획 기간의 자력갱 생은 국가적·계획적·과학적 자력갱생으로 발전하여야 함

■ 인민경제 여러 부문 및 단위, 첫 달 전투목표 완수(중앙통신·중앙방송·『노동신문』, 2021.2.2)

- 인민경제 여러 부문과 많은 단위들에서 첫 달 전투목표를 완수하였음
- 금속공업 부문 노동계급이 비상한 창조적 적극성을 발휘하여 금속공업성적인 첫 달 생산목표를 넘쳐 수행하였으며 새로운 5개년계획 수행에서 관건적 고리의 하나인 화학공업 부문이 분발하여 화학공업성적인 첫 달 생산목표를 달성하였음
- 전력공업성적인 첫 달 전력생산목표가 초과완수되고 석탄공업성적인 1월 전투목표가

성과적으로 달성되었음

- 기계공업 부문의 여러 단위가 월 생산목표를 점령하였으며 채취공업 부문에서 혁신이 이룩되었음
-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서는 원료와 연료보장대책을 따라세우고 소성로를 비롯한 설비들을 만가동하여 월세멘트생산을 결속하였음
- 순천세멘트련합기업소의 로동계급은 완강한 생산돌격전을 벌려 1만여 톤의 세멘트를 증산하였으며 천내리세멘트공장의 로동자들도 세멘트생산실적을 끌어올리었음

■ 당 중앙위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 관한 보도 및 공보' 발표(중앙방송·중앙통신, 2021.2.12)

-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021년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었음
 - 당 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하고, 당 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부장들과 위원회, 성, 중앙기관 당·행정 책임일군들, 도급 지도적 기관 책임일군들, 시·군 당 책임비서들, 중요공장·기업소 당·행정 책임일군들이 화상회의 체계로 방청하였음
- 김정은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전원회의를 운영집행하였음
-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올해 인민경제 부문들 앞에 나서는 과업들을 제기하였음
 - 보고에서는 금속, 화학, 전력, 석탄, 자원개발 및 채취, 기계공업, 림업을 비롯한 기간공업 부문에서 현행 생산을 진행하면서 생산 토대를 보강하는 데서 올해에 수행하여야 할 중점 과제들이 제기되고 그 실현 방도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음
-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국가경제지도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결정적으로 높여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특별히 언급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 진행(중앙방송·중앙통신, 2021.3.4)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3차 전원회의가 3월 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음
- 전원회의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주체110(2021)년 인민경제발 경제사업을 혁신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과업들을 특별히 언급하였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4차 전원회의의 진행 (『노동신문』·중앙통신, 2021.5.2)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4차 전원회의가 4월 30일 진행되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음
- 전원회의에서는 「혁명사적(김씨일가 활동과 관련된 시설물)사업법」, 「소프트웨어 보호법, 상품식별부호관리법」의 채택과 「환경보호법」, 「건설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최고인민회의 휴회 중의 최고 주권기관으로서 북한은 이번 회의를 통해 3개 법령을 제정하고 2개 법령을 개정하였음
 - 그간 「금연법」, 「이동통신법」 등 경제 관련 법령을 비롯하여 「수입물자소독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등이 제정되었으며 「기업소법」 등이 개정되었음

■ 당 중앙위 제8기 제3차 전원회의(『노동신문』·중앙통신, 2021.6.16~6.19)

- 올해 농사에 힘을 총 집중할 데 대한 문제
 - 이례적으로 “인민들의 식량형편 긴장”을 공개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올해 정책적 과업 무조건 완수” 등 경제 안정·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주문함
 - 농업 사업을 당·국가가 “최종대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전투적 과업”으로 강조하며, 농업·기상관측 부문 간 협력을 통해 자연재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수립하도록 지시함
- 비상방역상황의 장기성에 철저히 대비할 데 대한 문제
 - “비상방역상황 장기화는 경제 전반을 유지하고 인민들의 식의주 보장을 위한 투쟁의 장기화”라고 보며 인민들의 생활상 요구를 제때에 원활히 해결할 것을 지시함

■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 중심과업 재강조 및 차질 없는 수행 독려(『노동신문』, 2021.8.13)

- 5개년계획의 중심과업은 금속공업과 화학공업을 경제발전의 관건적 고리로서 기간공업 부문들 사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여 실제적인 경제활성화를 추동하는 것임
- 농업 부문의 물질기술적 토대를 향상시키고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의 국산화 비중을 높여 세우는 것임

- 종자혁명, 과학농사, 저수확지에서의 증산, 농촌경리의 수리화, 기계화를 전략적 과업으로서 농업생산을 결정적으로 추켜세우고 식량의 자급자족을 확고히 실현해야 함
- 경공업 부문에서 원료·자재의 국산화·재자원화를 생명선으로 틀어쥐고 우리의 힘, 우리의 것으로 인민소비품의 가짓수를 늘이고 그 질을 높여나갈 때 인민생활안정향상에서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됨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의 진행(『노동신문』·중앙통신, 2021.8.26)

-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4기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되었으며,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룡해가 전원회의를 집행하였음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의 소집과 「도로교통법」, 「산림법」의 수정보충에 관한 문제가 의안으로 상정되었음
- 전원회의에서는 상정된 법 수정보충안들에 대한 진지한 연구토의에 기초하여 수정보충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전원일치로 채택하였음

■ 내각 전원회의의 확대회의 개최(『노동신문』·중앙통신, 2021.10.27)

- 북한은 내각 전원회의의 확대회의를 10월 26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하였음
- 김덕훈 내각총리가 지도하고, 내각부총리 전현철, 박정근 등이 참가하였음
- 보고에서는 연말 경제조직사업을 전개하여 5개년계획 수행의 첫 해 인민경제계획을 지표별로 완수함으로써 실제적인 성과,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데 대하여 강조되었음

제2장

국내 매체 보도 동향

1. 한반도 및 국토 환경

■ 금강산, 새해 남북관계 화두로 떠오르나 북한 김덕훈 총리 현지 방문 점검 행보(『한겨레』, 2020.12.20)

- 김덕훈 북한 내각 총리가 “금강산지구의 개발사업을 현지에서 요해(점검)했다”고 <노동신문>이 20일 1면 기사로 보도함
 - 김덕훈 총리는 “고성향해안관광지구, 해금강해안공원지구, 체육문화지구 등”을 돌아보며 “당의 구상을 금강산관광지구총개발계획에 정확히 반영하고 집행하는 실무적 문제들을 토의했다”고 신문은 전함. <노동신문>은 “주체적 건축 사상”과 “세계적 수준”을 함께 강조함
 - 경제정책 총괄 책임자이자 조선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인 김 총리의 금강산지구 방문은 내년 1월 노동당 8차 대회를 앞두고 지난해 10월 김정은 위원장의 금강산관광지구 관련 ‘특별지시’ 진행 상황을 현지에서 점검하려는 행보로 풀이됨

■ “南시설 싹 들어내라” 1년여 만에… 北 ‘금강산 독자개발’ 재천명(『동아일보』, 2021.1.10)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지구를 우리 식의 현대적인 문화관광지로 전변시켜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 9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한 제8차 당 대회 사업총화 보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금강산관광지구 총개발계획에 따라 새로운 5개년계획 기간에 연차별로

단계별로 진행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함

- 앞서 지난달 20일 김덕훈 내각 총리는 금강산관광지구 현장을 시찰하면서 “금강산 지구를 자연경관에 어울리면서도 민족적 특성과 현대성이 결합된 우리 식으로 건설하라”고 언급함

■ 김정은, 사상 첫 강습회 열고 시·군·당 간부들 훈시(『국민일보』, 2021.3.4)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상 첫 시·군·당 책임비서 강습회를 열고 지역균형발전을 주문함
- 금강산 관광지구 개발이 포함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을 채택함
- 북한은 강습회가 열린 같은 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3차 전원회의를 열고 회사보험·사회보장법, 수입물자소독법의 채택 및 2021년 인민경제발전계획, 동해안지구 국토건설총계획 승인에 관한 문제를 상정해 의결하였음
- 코로나19 사태로 1년 넘게 걸어 잠근 북·중 국경을 다시 열고, 동해안 지역을 개발해 경제난을 해소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됨

■ 북한 “조평통,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한 관련 기구 정리 추진”(『NK경제』, 2021.3.16)

- 북한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며 조국평화통일위원회, 금강산국제관광국 등 남한 관련 기구를 정리할 수 있다고 밝힘
- 김여정 부부장은 “병적으로 체질화된 남한 당국의 동족대결의식과 적대행위가 이제는 치료불능상태에 도달했으며 이런 상대와 마주앉아 그 무엇을 왈가왈부할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다시금 확증하게 된 결론”이라고 말함

■ 김정은, 평양 주택단지 부지 시찰…전술유도탄 시험발사 불참(『한국경제』, 2021.3.26)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평양 시내 도심에 건설 예정인 주택단지를 시찰함. 같은 날 진행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 발사 참관 대신 민생 행보에 나선 것임
-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수도의 중심부를 감돌아 흐르는 경치 좋은 보통강반을

따라 현대적인 다락식 주택구를 형성하고 다층, 소층 살림집들을 조화롭게 배치하여 이 지구를 특색 있게 변모시킬 구상”에 대해 설명함

■ 김정은도 연일 부동산 행기기…6일 만에 또 주택건설현장 찾아(『헤럴드경제』, 2021.4.1)

- 북한 노동신문은 1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 도심의 보통문 옆에 조성 중인 고급주택단지인 보통강 강안 다락식(계단식) 주택구 건설 현장을 찾아 지도했다고 보도함
- 김 위원장은 현장에서 “800세대 다락식 주택구 건설은 새로운 형식의 주택들로 도시의 면모를 일신하고 인민들에게 발전된 생활환경과 조건을 제공해주려는 당 중앙의 구상과 의도가 비껴있는 대상 건설”이라며 “늘 관심을 가지고 직접 공사에 대한 조직 지도사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앞으로 수도 건설과 지방 건설에서 우리 당이 제시한 인민대중제일주의와 민족성과 현대성의 정확한 배합에 기초한 건축의 조형화, 예술화 방침을 계속 철저히 관철하라”며 “인민생활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절실한 문제의 하나인 주택 건설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인식하고 평양시 5만 세대 건설과 함께 지방 건설에서도 변혁적인 실천을 이룩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함

■ 북, 신의주-의주 사이 국제화물철도 신설(자유아시아방송, 2021.4.13)

-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에서 의주까지 국제화물철도가 신설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 방역기간에 중국에서 들어오는 국제화물열차는 전부 신설된 철도를 이용하게 된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 신의주-의주 사이 국제화물철도가 완공된 데 이어 당국은 철도 전 구간 철조망을 설치하라는 지시를 하달했음
- 이에 신의주-의주 사이 신설된 철도 양 옆으로는 철조망이 설치되고 있음

■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1만 세대 살림집 과학적으로 설계”(『NK경제』, 2021.4.30)

-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평양도시계획설계연구소 관계자들이 평양시 사동구역 송신, 송화지구 1만 세대 살림집 건설현장에서 계획 설계를 과학적으로 선행시켜

나가고 있다고 4월 30일 보도함

- 아리랑메아리는 건설의 선행 공정을 담당할 설계가들이 건축물의 배치설계, 건설명시 설계를 빠른 시일 안에 완성한 것에 이어 건설 현장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장악하면서 설계의 과학화 수준을 높여나가고 있다고 전함
- 도로다리설계 집단의 설계가들이 기본간선도로설계를 끝냈으며 이어 건설 영역에 대한 구획도로설계를 완성했고 공사를 입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도로구간별 설계에서 제기되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고 함

■ 함경북도, 산림복구·국토관리 사업 앞장섰다며 ‘치하문’ 받아(데일리NK, 2021.5.6)

- 함경북도 소식통은 “함경북도가 올해 산림 복구와 국토관리 사업에서 전국의 앞장에서 가장 잘하고 있다는 치하지시문이 지난달 19일 도 인민위원회에 내려왔다”고 전함
- 한편 북한 당국은 함경북도의 산림 복구와 국토관리 성과를 치하하면서 주민들의 땀감 문제에도 신경을 써 땀나무 숲을 꾸리는 사업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짐

■ 北 '초고속 평양 주택건설' 독려...경쟁시켜 인센티브(YTN, 2021.5.21)

- 북한이 평양에 연내 1만 세대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매달 팀별로 건설성과를 비교해 물질적인 인센티브까지 주겠다고 밝힘
- 건설공법을 지키고 자재와 노력절약형 공법 등 선진기법 도입, 능률적 건설장비 창안·도입, 전형단위 창조 등을 비교 요소로 뽑음
- 공사 속도는 높이되 '날림식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한다면, 속도와 질을 다 같이 보장하는 과정이 되게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북한, 내년 김정은 집권 10주년 맞아 평양종합병원 개원 계획(데일리NK, 2021.7.6)

- 북한 당국이 내년 초 평양종합병원 개원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권력 승계 10주년에 맞춰 개원식을 진행함으로써 인민애를 부각하려는 의도로 분석됨

- 구체적인 개원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2022년 1월과 4월 사이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임

■ 북한, 금강산 南시설 철거 잠정 보류… “코로나 대비가 우선”(데일리NK, 2021.7.12)

- 2년 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금강산관광지구를 찾아 남측 시설물의 철거를 지시했지만, 아직 진행되지 않음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수요가 줄어든 상황에서 철거 후 신축 건물을 건설하는 일이 효과적이지 않을뿐더러 방역이 우선이라는 판단 때문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유류난’ 北, 남포항에 새 유류 하역용 부두 건설(OBS뉴스, 2021.7.28)

- ‘평양의 관문’으로 꼽히는 최대 항구 남포항에 기존 3개의 유류 하역용 부두에 이어 길이 300m가 넘는 새로운 부두를 건설 중인 것으로 파악됨
- 국제사회 제재에 따른 유류난과 공해상 불법 환적 위험성, 코로나19 사태를 겪은 북측에서 유류 비축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보임

■ 북한, 폭염 속에서도 평양에선 살림집 건설·농촌에선 가뭄 막기(『경향신문』, 2021.7.20)

- 북한은 지난 3월 평양 외곽 사동구역 내 송신·송화지구에 1만 세대의 새 살림집을 건설하는 대규모 공사를 시작해 올해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자발적 참여로 포장한 내부 동원을 통해 사회주의 제도를 선전하고, 내부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임

■ 北 김정은, 평양 주택건설현장 시찰 "독특하고 예술적으로"(『경향신문』, 2021.8.21)

- 김 위원장이 평양 보통강강안다락식주택구 건설사업 현장을 시찰함
- 평양 보통강 강변에 조성 중인 테라스형(다락식) 고급주택단지 건설 현장임

■ “질 낮은 자재로 속도전”…평양 1만 세대 곳곳서 벌써 ‘하자’ 포착(데일리NK, 2021.9.1)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직접 ‘중대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규정한 평양시 1만 세대

건설 현장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됨

- 북한 내부 소식통은 “건설지휘부 시공 검수가 지난달 16일부터 진행됐는데 송신지구 건설장 아파트 3개동에서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이에 합격도장을 못 찍고 오히려 대대적인 시공검열에 돌입했다”고 말함
- 건설 경험이 부족한 인력들을 무리하게 현장에 투입한 것과 아울러 국가설계지표와 공정대로 자재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드러남

■ 수해 시달린 북한 "국토관리, 경제정책 최우선과제"(YTN, 2021.9.6)

- 지난해와 올해 연달아 홍수에 시달린 북한이 국토환경 관리를 경제정책 집행의 최우선 과제로 꼽으면서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섬
- 노동신문은 국토관리 사업은 열을 투자해 백을 지키고 천을 얻는 일이라며 빠르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자면 반드시 자연의 대재앙을 극복하기 위한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함

■ 北, 평양 보통강 고급주택 단지 행정구역 명칭 '경루동' 확정(『중앙일보』, 2021.9.13)

- 북한이 평양 도심 보통강변 인근 김일성 주석이 살던 집 자리에 조성한 '리버뷰 테라스형 아파트' 완공을 앞두고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음
-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이 살았던 '5호택 관저' 자리에 테라스형 아파트 800세대 건설을 지시했는데 보통강이 내려다보이는 이곳은 김 주석이 거주하여 의미가 있는 지역으로, 북한은 김 위원장이 이곳을 내어줬다며 '애민 정신'과 연관지어 선전하고 있음

■ 나선시에 평양종합병원 부속 전문병원 건설 지시…일꾼들 '한숨'(데일리NK, 2021.9.24)

- 북한이 나선특별시에 자체의 힘으로 평양종합병원 부속병원을 새로 지을 데 해당 당 및 내각의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나선시 내 평양종합병원 부속 전문병원 설립에 관한 당과 내각 보건성의 지시문을 내리면서 전염병 병동, 격리 병동, 입원 병동, 진료·치료 병동, 의사 병동, 구급

병동, 종합약국, 창고·물류보관실 등을 훌륭히 갖춘 조감도 설계도까지 세세히 내려보내 이에 따른 계획안을 세우도록 요구했다는 전언임

- 나선시 당위원회 일꾼들은 갑자기 내려온 이 같은 지시에 당황해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고 함

■ 북한, '관광 중단' 금강산 가을 풍경 대대적 소개(YTN, 2021.10.6)

- 북한 대외용 월간지 '조선' 10월호는 단풍이 붉게 물든 비봉폭포와 구천폭포, 삼선암, 귀면암 등 금강산 명승지의 모습을 소개했음
-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관광객 피격 사건 이후 중단된 뒤 지난 2018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관광 재개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지만 2019년 2월 북미회담 결렬과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남북 당국 간 관련 논의가 멈춰진 상태

■ 북부 철길 보수 위해 돌격대 증강 움직임…北, 주민에 지원 독려(데일리NK, 2021.10.26)

- 북한이 북부 철길구간 정비 사업에 동원할 돌격대 여단 인원을 증강하기 위해 지원자를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부 철길구간 정비 작업은 해마다 김정숙군, 김형직군, 대흥단군, 삼수군, 갑산군, 삼지연시 등 각 시·군에 존재하는 정규 돌격대 여단이 진행해왔는데, 북한은 올해 갑작스레 돌격대 인원을 더 모집하고 나섰다는 전언임
- 공장기업소별로 인원을 뽑고 있는데 추위가 닥쳐도 북부 철길구간 보수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선포했다고 함

■ “대평지구에 텃밭 갖춘 단층집 건설”…북한, 타운하우스 조성하나?(YTN, 2021.10.28)

- 북한이 평양 외곽인 대평지구에 대규모 살림집 건설을 진행하는 가운데 이 중 20%는 텃밭을 갖춘 단층집인 것으로 전해짐
- 평양 도심과 떨어진 교외 지역이라는 특성과 용지 확보가 용이하다는 측면을 이용해 일부 살림집을 텃밭이 있는 단독주택 형식으로 건설 중인 것으로 보임
- 대평지구 살림집은 다양한 기관과 돌격대 등이 특정 구역을 책임지는 ‘도급제’ 형태로

건설 중인 것으로 전해짐

■ 북, 큰물막이 제방공사 주민들에게 떠넘겨(자유아시아방송, 2021.10.29)

- 북한당국이 큰물 피해를 막기 위한 강하천 제방보수공사를 주민들에게 온전히 떠맡기고 있어 이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이 크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양강도의 경우 압록강 류초제방을 비롯해 도 안의 주요 강하천이 30여 km에 달하는데 이 구간을 각 기관, 기업소와 인민반들에 과제로 할당했음

■ 北 평양 초고층 1만 가구 건설 완공 마무리 단계(『세계일보』, 2021.11.3)

- 조선중앙통신은 김덕훈 북한내각 총리가 평양시 1만 가구 건설장을 방문했다고 전하면서 “살림집 건설이 완공단계에 들어섰다”라고 밝힘
- 김 내각총리는 건설자들을 격려해주면서 “인민이 보다 문명하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려는 당의 구상과 의도를 빛나게 실현할 것”을 강조함

■ 평양시 만경대구역 1만 세대 살림집 건설장서 벌어지는 광경들(자유아시아방송, 2021.11.11)

- 북한은 지난 1월 노동당 제8차 대회 직후 노동당과 김정은 체제의 치적을 만들어내기 위해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발기함
- 북한이 최근 만경대 인근에도 추가로 주택단지를 건설 중인 것으로 확인됨
- 김일성의 생가와 이른바 혁명사적지가 많이 있는 만경대구역에 대규모 살림집을 건설하는 것은 좀 이례적임

■ 재자원화 강조하는 北 “살림집 건설에 재자원화 재료 사용하라”(데일리NK, 2021.11.26)

- ‘재자원화’를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전국의 모든 살림집 건설에 필요한 자재를 재자원화한 원료로 사용하도록 하면서 구체적인 생산지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이에 함경북도 당위원회는 지난 15일 도내 단위별 책임자들을 도당 회의실에 불러 도당 책임비서가 주최하는 회의를 열고, 평양에서 내려온 해면 장식판과 해면 벽지 등을 비롯한 해면 제품 견본품들을 직접 보여주고 나눠주면서 생산지표를 정해준

것으로 전해짐

2. 기상

■ 북한, 기상서비스 및 재해경보프로그램 ‘날씨 2.0’ 개발(NK경제, 2020.12.13)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기상수문 부문이 국가망 기상봉사(서비스) 및 재해경보프로그램 ‘날씨 2.0’을 개발해 국가적인 위기관리체계의 과학성과 신속성을 철저히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12월 13일 보도함
- 새로 개발 및 완성된 날씨 2.0은 폭우와 많은 비, 강풍과 홍수, 해일 등 기상, 해양, 재해경보가 국가망과 연결된 컴퓨터들에 사용자의 조작이 없이도 자동적으로 보여주는 정보화체계(시스템)라고 함

■ 북한, 기상정보서비스 다각화(NK경제, 2021.2.21)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기상수문국 중앙기상예보대 기상정보교류소가 여러 기상 정보 봉사 프로그램들을 이용해 기상정보의 신속 정확한 보급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지난 2월 19일 보도함
- 휴대폰용 기상 봉사 프로그램 날씨 3.0과 국가망을 통해 서비스하는 기상 봉사 및 재해 경보 프로그램 날씨 2.0은 여러 그림기호와 음성자료를 이용해 정보서비스 편리성을 높였다고 함
- 조선의오늘은 기상수문국이 미세먼지 상태, 대기질 상태, 기온변화 상태, 대기습도를 비롯한 기상 정보 봉사의 다각화를 실현하고 대중보도 수단과 통신 수단을 통해 기상 정보 봉사, 기상 상식 봉사를 다양하게 하기 위한 연구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전함

■ 북한 기상수문국, 기상관측 관련 설비 현대화 추진(NK경제, 2021.3.24)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기상수문국이 최근 기상관측 관련 장비들을 개발하고 있다고 3월 23일 보도함
- 기상수문국은 일기예보의 첫 공정인 기상관측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해 지면자동기

상관측과 레이더 관측설비 등을 개발하고 기상관측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함

- 북한식 초단기, 단기, 중기, 장기에보 방법들에 대한 공정시스템을 개발해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폭우와 많은 비, 우박수치 예보방법, 태풍실태 분석과 태풍경로 예보 방법을 비롯한 재해성 기상현상 예보 방법들을 연구, 도입했다고 함

■ 北, 장마 앞두고 수해 대비 강조...폭우경보 설명(YTN, 2021.7.4)

- 조선중앙TV는 모든 단위에서 일기예보에 언제나 주의하며 재해를 막기 위한 철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시간당 강수량에 따라 주의경보, 중급경보, 특급경보가 정해지지만 양강도, 나선시, 함경북도 두만강 지역은 비가 조금 내려도 위험성이 커지는 만큼 경보 기준을 다르게 정했다고 설명함

■ 이상 고온 이어지던 北에 이틀째 단비...평양 낮 최고 31도(YTN, 2021.8.1)

- 조선중앙방송은 오늘 평양을 비롯해 신의주·혜산·강계·원산·해주·청진·함흥·나선·개성·평성·남포시 등에서 오전 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봄
- 평양의 오늘 오전 최저기온은 평년보다 4℃ 높은 26℃였으며, 낮 최고기온은 3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함
- 중강은 낮 최고 기온이 33℃, 함흥은 31℃, 개성과 청진은 30℃에 이를 것으로 보이며 모두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

3. 대기과 에너지

■ 북한, 대기오염 예보 시스템 개발(NK경제, 2020.12.8)

- 북한이 대기오염 예보를 위한 소프트웨어(SW)를 개발한 것으로 알려짐
- 12월 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과학백과사전출판사가 발간한 「예방의학」 2020년 제1호에 ‘대기오염도 예보를 위한 프로그램 작성에 관한 연구’라는 내용이

계재됨

- 북한 연구원들은 기상정보와 대기오염과 관련된 정보를 결합해 프로그램을 작성한 것으로 보임

■ 1인당 CO₂ 배출량 130위 북한도 “기후변화, 전 지구적 문제”(『한겨레』, 2020.12.15)

- 북한 외무성은 지난 14일 공식 누리집에 ‘외면할 수 없는 기후변화 문제’라는 제목의 글을 올림
 - “인류의 장래는 세계가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처해나가는가 하는 데 달려있다”, “현실은 그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기후변화를 막기 위하여 어느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모든 나라는 눈앞의 경제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기후변화를 외면하지 말고 국제적인 협력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라며 지구적 위기를 절절히 호소함
 - 외무성은 또 북한이 2015년 파리기후변화협정 당사국으로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함

■ “북한 주민 4명 중 1명만 전기 쓴다”…美 CIA 추정(『조선일보』, 2021.2.6)

- 북한에서 주민 4명 가운데 1명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추정이 나옴
 - 6일 ‘CIA 월드 팩트북’에 따르면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은 2019년 기준 26%인 것으로 추정됨
 - 시골 지역은 11% 수준에 불과하고, 도시 지역도 36%에 그침
 - 전력 접근성은 총인구 가운데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의 비율임
- 북한의 전력 생산량은 165억 7,000만 kWh(2016년), 소비량은 138억 9,000만 kWh로 추정
 - 정전력 생산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0(제로)’였고, 화력 발전과 수력 발전이 각각 45%와 55%였음
 - CIA는 “전력 생산량은 1990년 이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 상태로 정체돼 있다”고 함

■ “北, 밀수 후 남은 석탄 활용 방안 내놔… “화력발전소에 우선 공급”(데일리NK, 2021.2.9)

- 8차 노동당 대회에서 전력생산 목표 미달 책임으로 전력공업성이 교체된 가운데, 당국이 최근 전력 정책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짐
- 화력발전소의 생산량을 최대로 끌어올리고, 전기세 납부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전언
- 당국은 전력 정책에 각 화력 및 수력 발전소에 노후화된 발전 설비를 내각에서 책임지고 즉각 보수하라는 지시도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짐
- 앞으로는 내각의 전력 생산량에 대한 모니터링이 강화될 것으로 보임
 - 도별 송배전부가 집계하던 총 전력생산량을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내각에서 직접 보고 받고 관리하라는 내용도 담겨있었기 때문

■ 北전력난 예년보다 심해져…“전기 하루에 2시간 들어오기도”(데일리NK, 2021.2.12)

- 북한의 만성적인 전력난이 최근 더 심화됨
- 수력 발전 의존도가 높은 북한은 일반적으로 겨울철 전력 공급량이 여름철보다 적지만 올해는 예년보다 문제가 심각했다고 함
-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지난 6일 새로 개편된 ‘CIA 월드 팩트북’에서 북한 주민의 전력 접근성(총인구 중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인구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26%였으며, 농촌 지역은 11%에 불과했다고 밝힘. 도시 지역의 전력 접근성 또한 36%에 불과했음
- 김 위원장도 이례적으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8~11일) 보고를 통해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며 사실상 전력난을 인정함

■ 北 전력생산 40년째 제자리…김정은 “전기가 경제 발목” 연일 뒤통스(『동아일보』, 2021.2.26)

- 북한 일반 주민들이 하루 종일 전기를 쓰는 일을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짐

- 탈북자들의 증언을 종합하면 북한 내 저조한 전력 생산량으로 인해 오래 전부터 주민들에게 배급되는 전기가 끊긴다고 함

■ 북한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 옥상에 태양열온실 설치(NK경제, 2021.3.15)

-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평양치과위생용품공장에서 생산직장 건물 위에 2동의 태양열온실을 만들고 채소를 생산하고 있다고 3월 15일 보도함
- 아리랑메아리는 영양액에 의한 무토양 재배방법과 수경재배 기술을 도입한 온실에서 환경관리와 생육조사, 영양액 주입, 온습도 조절 등 모든 관리를 통합조종체계로 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에너지 절약형 새로운 제철로 건설 추진(NK경제, 2021.4.18)

- 북한이 에너지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선전매체 내나라는 “주요 제철소들에서는 현존 생산 공정들을 선진기술로 개조해 에너지 절약형의 새로운 제철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4월 18일 보도함
 - 내나라에 따르면 김책공업종합대학 주체철 연구실은 지난해 연구를 마쳐 새로운 제철로를 김책제철련합기업소에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고 함
 - 연구실은 새 제철로에서 산소와 석탄 소비를 줄이면서 주체철 생산을 지금보다 더 늘리고 제철로에서 폐가스를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 북한, 전자자동화 장치 국산화 추진(NK경제, 2021.4.23)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전자공업 부문 관계자들이 전자자동화 장치들을 국산화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4월 23일 보도함
- 관련 기업들은 핵심적인 전자요소들의 국산화를 중심 과업으로 내세우고 측정설비, 전기조작기구 등을 북한의 원료, 자재로 설계,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전자자동화설계연구소는 교류사보전동기용 조종 장치와 각종 운전 기계에 쓰이는

전자자동화장치들을 국산화하는 설계를 했다고 함

- 또 정보기술개발사 연구원들은 북한식의 승강기 조종체계를 새롭게 연구 완성하고 있으며 전자기술제품연구소는 대출력 반도체 정류 소자를 북한 원료와 자재로 제작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북, 전력난 해소 위해 정치·경제적 개방 필요”(자유아시아방송, 2021.4.27)

- 미국의 민간 공공정책연구기관인 노틸러스연구소(Nautilus Institute)는 26일 ‘북한 에너지 안보의 토대 마련(Laying the foundations of DPRK energy security)’이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함
 - 북한은 노후된 시설과 비효율적인 배전으로 평양에서조차 정전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함
 - 바람과 햇빛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중심의 소규모 발전시설을 먼저 설치한 다음 그것들을 점차적으로 연결해 전력 공급지역을 넓혀 나가는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는 설명임
 - 하지만 북한은 이러한 새로운 전력생산 방식에 대한 지식 및 기술이 없어 외부로부터의 지원이 필요한데 북한의 정치적, 경제적 개방 없이는 에너지 재건에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임

■ 북한 녹색지붕, 지붕온실 등 녹색건축 연구(NK경제, 2021.5.4)

- 5월 4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지구환경과학 및 지질학』 2020년 제66권 제4호에 ‘녹색지붕과 지붕온실이 결합된 녹색건물 설계에서 빗물저장탱크 용적 결정 방법’이라는 논문을 수록함
- 녹색지붕과 지붕온실이 결합된 통합지붕에 의한 빗물수집체계가 도시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홍수피해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건물의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는 매우 효과적인 방도라는 것을 증명했다고 설명함

■ 유엔환경계획 “북 메탄가스 치사율 전 세계 5번째로 높아”(자유아시아방송, 2021.5.7)

- 유엔환경계획(UNEP)은 메탄가스로 인한 북한 주민들의 치사율이 100만 명당 6.9명으로 조사됐다고 하며 이는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높은 수치라고 밝힘
- 보고서는 북한 주민 100만 명 당 6.9명이 메탄가스로 사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며 전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1인당 메탄가스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함
- 북한의 경우 ‘메탄가스 10메트릭 톤당으로 인한 30세 이상 추정 사망자 수와 치사율’(Modelled total deaths and per million people aged 30+ per 10 Mt methane)은 ‘호흡기와 심혈관 질환’(Respiratory&Cardiovascular)으로 100만 명당 평균 6.9명,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높았음

■ 북한 함경남도, 전력지리정보체계도입을 위한 DB 구축(NK경제, 2021.5.11)

- 북한 선전매체 통일의메아리는 함경남도 송배전부가 지난 4월 말까지 도 안의 송배전망과 관련해 전력지리정보체계도입을 위한 자료기지(DB)를 구축했다고 보도함
- 전력 지리정보체계 도입을 위한 DB가 구축됨으로써 함경남도 송배전부에서 전력생산지와 소비지 사이의 거리를 가깝게 접근시키는 원칙에서 합리적인 선로 정리 방안을 찾아 송배전 계통을 정리해 전력의 도중손실을 줄이고 전력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현재 함경남도 송배전부는 DB를 이용해 세운 계획에 따라 도 안의 불합리한 배전선들을 합리적으로 재구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함

■ 北, 장벽·고압선 설치 속도 끌어올리려 ‘내각 돌격대’까지 국경 파견(데일리NK, 2021.6.11)

- 북한이 중국과 맞닿은 국경 전 구간에 콘크리트 장벽과 고압선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양강도 일부 국경 지역에 ‘내각 돌격대’까지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은 대부분 토목, 도로, 건축 등을 담당하고 있는 내각 산하 기관들에 소속된 노동자들로, 노동성이 선발해 인원을 보장함

■ 북한, "식량, 에너지 생산 차질, 의약품도 부족"...유엔에 자체 평가 보고서 제출(『경향신문』, 2021.7.14)

- 북한은 유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HLPF 화상 회의에 제출한 ‘자발적 국가별 검토’(VNR)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봉쇄, 자연재해와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 경제 발전과 주민 생활향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함
- 전력 생산량과 1인당 전력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는데 가뭄으로 전력 생산에 차질이 발생했고 전력 생산량이 인구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임

■ 북한에도 녹색경제 열풍?...녹색경제 발전 강조(NK경제, 2021.7.21)

-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조선중앙TV는 최근 ‘발전하는 녹색경제’라는 제목의 영상을 만들었음
- 영상은 녹색 에너지 열풍을 소개하며 재생에너지가 막강한 힘을 자랑하고 있다고 주장함
 - 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에너지 수출국과 수입국이 달라지고 있다며, 화석연료 대신 태양광, 풍력 등 녹색 에너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고 함
 - 제로 에너지 건축, 제로 탄소 건축이 주목받고 있음

■ 북한, 에너지 절약형 건축 시행(NK경제, 2021.9.13)

- 북한 로동신문은 녹색건축과 에너지 절약을 강조하기 위한 전문가 인터뷰 내용을 소개함
- 로동신문은 평양건축대학 건축과학연구소 지성철 실장과 인터뷰 내용을 9월 11일 보도함
- 지 실장은 “자연생태환경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녹색건축에서 건물의 건설 및 운영 기간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이 자원소비를 줄이고 환경보호에 적극 이바지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문제”라고 설명함
- 건물에 자연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 생산설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함

■ 북한 국경봉쇄로 가정용 태양전지 10배 상승(자유아시아방송, 2021.10.4)

- 북한에서는 현재 전력부족때문에 경제가 심대한 타격을 입고 있다고 함
- 우선 북한이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노후한 발전설비를 수리하기 위한 부품을 수입하지 못해 전력생산이 차질을 빚는 것으로 나타남
- 심각한 전력난을 겪고 있다는 반응이 나오는 데도 지난 2월 2일자 대외선전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는 “전력공업부문에서 1월 전력생산목표를 빛나게 완수했다”라는 기사를 내보냄

■ “폐갱서 자체 석탄 확보”…북한, 全軍에 ‘전문 경리부대’ 조직 명령(데일리NK, 2021.10.5)

- 북한 당국이 전군(全軍)에 ‘월동준비 계절’을 맞아 자체적으로 석탄을 확보하기 위한 실무 작업에 돌입하라는 명령문을 하달한 것으로 전해짐
- 연일 ‘자력갱생’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이 인민군에도 월동준비용 석탄 채굴, 생산, 보관, 운반 등 관련 업무를 부대 단위 자체 해결 과제로 돌리면서 자강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됨
- 소식통은 “이제는 인민군대의 월동준비 석탄은 전적으로 부대 자체의 힘으로 생산해 인민들에게 손 내밀면 안 된다”고 상부에서는 강조하고 있다”면서 “군에서 다 가져가면 정작 산업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졌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는 셈”이라고 함

■ 北 수풍댐 발전 전면 가동 확인…中 수입 62%↑(KBS NEWS, 2021.10.25)

- 그동안 일부 가동에 머물던 북한의 수풍댐이 전면적인 전력생산에 나서고 있는 사실이 포착됨
- 북한의 전력 수출은 유엔의 대북제재를 받지 않는 만큼 중국 동북지역으로 계속 공급될 것으로 보임
- 유엔의 대북제재와 코로나19로 국경이 차단되면서 막힌 북한의 석탄 수출이 전기 수출로 바뀌고 있음

■ 전기부족으로 마냥 늦어지는 북한 탈곡(자유아시아방송, 2021.10.26)

- 북한당국이 한 해 농사 결속을 위한 낱알 털기(탈곡)를 거듭 독려하고 있지만 전력부족으로 탈곡이 턱없이 늦어지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힘
- 평안북도 관산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26일 “최근 때 없이 내리는 늦가을 비와 한파로 가을걷이 전투가 예년에 비해 불리한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다”며 “특히 전력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 탈곡이 매우 더디게 진척되고 있다”고 함
- “밭로 기계를 돌려 탈곡하는 구식 수동탈곡기까지 동원하고 있지만 어렵도 없다”며 “전력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11월 말까지도 탈곡을 끝낼 수 없다”고 주장함

■ “평북 가정·기업소 전기 공급 축소”…수풍댐 전력 판매 영향?(데일리NK, 2021.11.10)

- 평안북도 소식통은 10일 데일리NK에 “최근 가정에 공급되는 전기가 하루 2~5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었다”면서 “주변의 많은 군수 공장들이 교차생산에 들어갔다”고 전함
- 제련소나 화학공장 등은 특성상 전기공급이 중단되면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고 이를 복구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중요 군수 공장은 교차생산 대상이 아니었으나 전력난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군수 공장마저 ‘교차 생산’이 대상이 된 것으로 보임

■ “석탄·나무 못 구해 난방 못 하는 가구, 함남 OO군 전체 약 18%”(데일리NK, 2021.11.25)

- 일부 북한 주민들이 석탄과 나무를 구하지 못해 혹한의 겨울을 난방 없이 보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실제 자재가 부족하기보다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난이 주원인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북한의 상당수 가정은 난방과 취사를 겸하고 있어 난방 연료 부족은 취사에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4. 지질과 지형

■ 북한, 시멘트 생산 확장 위해 ‘10만산 발파’(『서울신문』, 2021.3.10)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양강도에서 시멘트 생산 능력 확장 공사를 추진했다며 관련 사진을 보도함
- 신문은 해산시멘트공장이 자리 잡고 있는 지역에 풍부히 매장된 석회석의 다량채굴을 위해 얼마 전 10만산 발파가 진행되었다고 설명함

■ “북한 무산 수출가공구 설치, 中 방조 광산 설비 현대화 전략”(데일리NK, 2021.5.11)

- 최근 북한 당국이 북중 접경지역인 함경북도 무산에 수출가공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힌 것은 중국으로부터 무산광산에 대한 설비 투자를 받고, 광물 수출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이 크다는 전언임
- 중국에서도 철광석, 아연, 마그네시아 클링커 등 북한산 광물에 대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북한산 광물 수출이 용이한 무산을 수출특구로 지정키로 했다고 함

■ 북한 강원 접경 지역 규모 2.1 지진(YTN, 2021.8.20)

- 20일 밤 10시 20분쯤, 남북 접경 지역에서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은 북한 강원도 회양 남동쪽 50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감지됐다고 밝힘
- 이번 지진의 계기 진도는 2로 조용한 상태에 있거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수준임

■ 북한 길주 북북서쪽서 규모 2.4 지진(『아시아경제』, 2021.9.1)

- 1일 오후 6시 39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2km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41.30도, 동경 129.13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5km임
- 이번 지진의 규모는 올해 한반도에서 발생한 지진 중 13번째로 큼

■ 기상청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서 규모 2.1 지진 발생"(『매일경제』, 2021.9.11)

- 11일 오전 3시 47분 27초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함
-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15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8km임
-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함

■ 기상청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에서 규모 2.5 지진 발생"(『경향신문』, 2021.10.11)

- 11일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39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힘
- 지진이 발생한 진앙은 북위 41.29도 동경 129.20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20km임
-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함

■ 함경북도 길주 부근 규모 2.4 지진(KBS NEWS, 2021.10.18)

- 11시 13분 북한 함경북도 길주 부근 지역에서 규모 2.4의 지진이 발생함
- 지진의 진앙은 북한 함경북도 길주에서 북북동쪽으로 36km 떨어진 지역이며, 진원의 깊이는 33km로 분석됨
- 기상청은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라고 전함

■ 北함경남도 장진서 두차례 지진…기상청 “모두 자연지진”(『헤럴드경제』, 2021.10.19)

- 북한 함경남도 장진에서 19일 오전 지진이 두 차례 발생함
- 기상청은 이들 지진이 모두 자연지진이라고 분석함
-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41분께 장진 동남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하고 뒤이어 오전 6시 45분께 장진 북동쪽 4km 지역에서 규모 2.8의 지진이 또 나타남

5. 수자원

■ 북한 “수력발전 통합전력관리체계, 전력지리정보체계 개발 중”(NK경제, 2021.1.26)

- 북한이 전력정보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시스템)를 만들었으며 수력발전 통합전력관리시스템, 전력지리정보시스템의 개발도 추진하고 있음
- 북한 노동신문은 전력공업성 전력정보연구소가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수준을 높이고 새로운 시스템을 개발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월 25일 보도함
 - 노동신문에 따르면 연구소는 국가통합전력관리체계의 운영수준을 보다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들을 찾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또 전국의 수력발전소들에 통합전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되고 있으며 전력지리정보시스템 개발도 추진 중이라고 함

■ 북한 평안북도 관개수로 건설(『서울신문』, 2021.5.19)

- 노동신문은 19일 평안북도 동래강저수지에서 홍건도간석지까지 물길통수식이 진행됐다고 보도함
- “도 안의 일꾼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 노력에 의하여 농업 생산에 크게 이바지하게 될 새 관개수로가 건설되었다”라고 전함

■ VOA “北, 남포에 새 유류하역시설...유류 탱크 1.5배로”(YTN, 2021.6.2)

- 북한이 ‘평양의 관문’으로 꼽히는 제1항구인 남포항에 새로운 유류 하역시설을 건설하는 등 유류 반입·저장시설을 확대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 VOA 방송이 보도함
- VOA는 미국 맥사 테크놀로지가 촬영한 위성사진을 인용해, 남포 유류 저장시설 밀집 지역에서 서쪽으로 700m 떨어진 곳에 탱크 3개와 선박 접안시설이 새로 완공됐다고 전함
- 이와 별도로 지난해 12월부터 원형 부지 5곳에서 새로운 유류 저장시설을 확충하고 있는데, 완공되면 남포 일대 유류 탱크가 30개로 늘어날 것으로 2018년 20개에

비해 1.5배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함

■ 北, 대동강 수위조절 시스템에 IT 기술 도입 추진(YTN, 2021.6.13)

- 지난해 여름 장마와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본 북한이 올해 홍수에 대비해 대동강 수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구축에 나섬
- 노동신문은 홍수로부터 대동강 유역의 도시와 농경지를 보호하기 위해 평양컴퓨터기술대학 등이 대동강 수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통합지휘체계 도입에 힘을 쏟고 있다고 보도함
- 대동강 유역의 기상 자료들을 실시간으로 전송받고, 이를 바탕으로 홍수를 예측하고 분석해 대응한다는 구상으로 아직은 추진 단계지만, 홍수 대응에 IT 기술을 접목하려는 것으로 보임

■ 北, 수질 개선 안간힘...환경에 집중하며 민심 관리(YTN, 2021.9.19)

- 북한이 최근 평양 시민의 식수는 물론 수도를 관통하는 보통강 등 도시 전반의 수질 개선에 안간힘을 기울이며 경제난과 코로나19 사태로 동요하는 민심을 다독이기에 나섬
-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도시경영성,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과학원, 평양시과학기술위원회가 모여 보통강 유역에 생태복원 시범 구역을 조성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은 지난해 노동당 정치국 회의에서 평양 시민 생활 보장 문제를 안건으로 올렸고, 노동신문이 "최근 평양시 안의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이 들어서면서 일부 물 부족 현상이 생겼다"며 식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인정함

■ 북한, 최대 허용 오수방출량 연구(NK경제, 2021.10.26)

- 10월 26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은 10월 22일 '도시하천에서 수질 오염을 줄이기 위한 연구'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함
- 북한 연구진들은 하천 구간들의 수질 목표를 결정하고, 유역의 수문지리 자료들과

기상기후 자료를 이용해 WASP 모형에 필요한 수문학적 및 수력학적 파라미터들을 결정했으며 동시에 하천의 구간별 오수방출 자료를 수집함

- 하천구간들의 수질기준을 목표로 수질모의를 진행했다고 함

6. 산림

■ 북 입업법 제정으로 주민 땔감확보에 비상(자유아시아방송, 2020.12.15)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입업법」을 새로 채택하고 산림훼손 행위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주민들이 난방용 화목을 구하지 못해 추위에 떨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이 전함
- 함경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14일 “지난 4일 진행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12차 전원회의에서 「입업법」이 새로 제정된 것과 관련해 산림보호에 대한 새로운 규정들이 각 지방에 하달되었다”면서 “산림자원유지와 관련해 국가의 허가 없이 산림을 도벌하거나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통제가 크게 강화되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이번에 기존의 「산림자원보호법」보다 대폭 강화된 「입업법」이 새로 나오면서 주민들이 땔감 마련을 위해 산에 가서 나무를 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길 경우 처벌도 대폭 강화되었다”면서 “겨울이 되면 하루하루 산에 가서 난방과 취사를 위한 땔나무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주민들은 앞으로 어떻게 땔감을 구해야 할지 몰라 걱정에 휩싸여 있다”고 말했음

■ 북한, 오픈소스SW 기반으로 산림정보시스템 개발(NK경제, 2021.1.8)

- 북한이 오픈소스 소프트웨어(SW)를 기반으로 산림정보시스템을 개발함
- 1월 8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지구환경과학 및 지질학』 2020년 제66권 제3호에 ‘공개원천 소프트웨어와 SOA-SDI에 기초한 산림정보체계의 개발’이라는 논문이 게재됨
 - 논문은 “SOA-SDI에 기초해 분산된 지리공간자료를 통합하고 공개원천(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산림정보체계(시스템)를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 서술했다”고 밝힘

- 논문이 구체적인 기술 사항과 적용 SW 등을 설명한 것으로 볼 때 이미 산림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보임. 북한은 경제 전 분야의 정보화 사업을 진행 중인데 산림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추정됨

■ 北 ‘식수절’ 맞아 나무 심기·보호 강조(YTN, 2021.3.2)

- 우리나라 식목일에 해당하는 ‘식수절’을 맞아 북한이 나무 심기와 보호 관리를 독려하고 나섬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 자 신문 사설에서 산림은 나라의 귀중한 자원이자 인민 행복을 위한 밑천, 후대에게 물려줄 소중한 재부라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어떤 조건과 환경에서도 무조건 해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강조

■ 김정은 “푸른숲 황금산” 지시했는데…北 산림 20만ha 사라져(『중앙일보』, 2021.3.3)

- GFW는 지난 2001~2019년 북한에서 약 23만 3,000ha의 산림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함.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이후 감소 추세이던 벌목 면적은 2019년 급증해 2만 8,000ha로 집계됨
 - 벌목이 대대적으로 진행된 지역이 양강도·자강도·함경남도 등 북·중 접경지역에 집중됐다고 함. 이들 세 지역의 벌목 면적은 약 14만 9,000ha로 전체 벌목 면적의 64%에 해당함

■ 북, 코로나 사태 와중에 식수절 행사 강행(자유아시아방송, 2021.3.3)

-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3일 “어제(2일) 식수절을 맞아 국토환경보호성의 지시로 전국에서 나무심기운동이 진행되었다”면서 “하지만 주민들은 나무심기가 실효성 없는 선전성 행사에 불과했다며 당국의 형식적인 나무심기운동을 비난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주민들에게 할당된 나무심기 장소가 무작위로 정해지는 바람에 일부 주민들은 먼

거리를 이동해 묘목을 심어야 했다”면서 “30리가 넘는 거리를 무리지어 이동하는데 당국에서는 마스크를 필히 착용하라는 지시 말고는 코로나 방역에 대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나무심기를 독려했다”고 함

■ 산림청, 산불·산사태 등 남북 공동 대응 방안 연구(YTN, 2021.4.1)

- 산림청이 남북 산림협력의 일환으로 산불,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공동 대응하는 방안을 연구함
- 산림청은 남북 산림협력에 대비해 2020년부터 남북 기술체계정립사업을 진행해왔음
- 올해는 산불과 산사태 분야의 남북 기술체계 정립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산림청은 논문, 간행물, 언론 보도,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남북한 산불, 산사태 발생 실태 및 기술현황을 분석할 방침임
- 남북한의 산불·산사태 분야 과학기술 역량 및 차이를 알아보고 협력이 가능한 세부 분야와 기술도 확인할 예정임
- 산림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남북 간 산림 분야의 기술적 차이를 인정하고 북한이 요구하고 남한이 지원 가능한 최적 기술체계 확립 및 협력방안을 도출할 계획임

■ 북 산림복구사업 형식에 치우쳐 산림황폐화 심화(자유아시아방송, 2021.4.21)

- 북한 당국이 산림복구를 내세우며 봄철 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에 치우쳐 산림황폐화를 가속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양강도의 한 소식통은 20일 “당국에서 산림복구전투라는 명목 하에 나무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시종일관 형식에 치우치고 있어 산림복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해마다 3~4월 식수의 계절이 되면 식수행사를 요란하게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로 산림복구에 이바지될 일은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나무심기 행사에 머물고 있다”고 밝힘
- 소식통은 “중부 지역에서는 3월에, 고산지대에서는 4월에 봄철나무심기를 진행하는데 당국에서는 애국심에 기초한 국토살리기 사업이라고 떠들썩하게 선전하지만 나무심기 사업을 하는 방법을 보면 유치하기 그지없다”면서 “나무심기라면 새로 키운

묘목을 산에 옮겨 심던가, 아니면 묘목장에서 어느 정도 자란 나무를 도시와 마을에 옮겨 심어야 하는데 산에서 잘 자라고 있는 나무를 떠다가 도시 길거리에 심는 짓을 되풀이 하고 있다”고 말함

■ 산림복구에 총력 기울이는 北, “폐기발 등록 체계 갖추라” 지시(데일리NK, 2021.5.25)

- 산림복구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북한이 최근 주민 폐기발(소토지)의 국가기관 등록 체계를 갖추도록 하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린 것으로 전해짐
- 소식통에 따르면 각급 인민위원회에 내려진 이번 내각의 지시문에는 개별 주민이 일구고 있는 폐기발을 공장기업소, 동사무소 등 관계없이 국가기관이나 단체에 모두 등록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적으로 담김
- 국가는 개인 폐기발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통제하고, 기관이나 단체는 주민들이 바친 폐기발 소출로 자급자족, 자력갱생하는 소위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라는 게 소식통의 설명임

■ 홍수 걱정엔 나무 심는 북한... "수해 막아야"(YTN, 2021.6.28)

- 북한이 장마와 태풍을 앞두고 수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림 조성에까지 공을 들이고 있음
- 각지에서 산사태 방지용 나무 심기와 경사지 관리를 진행 중이고, 수자원 함양과 수질 정화를 위해 필요한 산림과 모래막이숲을 계획적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설명함
- 농경지 부족과 산림 황폐화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경사지에서 농업, 임업, 목축업을 함께 하는 '임농복합경영' 방법 도입과 등고선 방향으로 풀을 심어 산림 토지 유실을 막는 관리법 등도 소개함

7. 농업과 축산

■ 올해도 ‘개인포전제’ 성과 나타나… “감자알 커지고 땅도 걸어져”(데일리NK, 2020.12.3)

- 양강도의 일부 협동농장에서 개인 포전담당제 도입에 따른 생산량 증대 효과가 두드

러지게 나타나 농장원들에게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함

- “보천군, 은흥군 등 일부 협동농장에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개인 포전제를 실시한 데 의하면 그 우월성이 올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났다”고 소식통이 전함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개인 포전제를 시범 도입한 양강도 내 한 협동농장 관리위원회에서는 올해 농사를 짓기 전 농장원들에게 다시 땅을 나눠주면서 “농장에서 땅을 관리할 때보다 개인이 관리하니 너무 알뜰하게 관리해서 땅이 걸어졌다”며 개인 포전제의 성과를 높이 평가함

■ 북한 “모든 농사일을 과학화해야”(NK경제, 2020.12.2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모든 농사일을 과학화 해야 한다며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강조함
 - 노동신문은 “현재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 조건이 아니라 농업 과학기술에 의해 담보된다”며 “과학농사를 할 것에 대한 당 정책을 가장 절대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관철을 위해 노력한다면 불리한 조건에서도 얼마든지 알곡 소출을 높일 수 있다”고 12월 12일 보도함
 - 노동신문은 “농업과학기술이야말로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들인 농업근로자들의 첫째가는 무기이고 가장 큰 힘”이라며 “(농업과학을) 모르고서는 당의 농업정책과 주체농법의 요구대로 농사를 잘 지을 수 없다”고 주장함
 - 김 위원장은 “농업근로자들이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함
- 북한이 과학농업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내년 농사 계획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할 것으로 예상됨

■ 北 새해 첫 과제는 역시 ‘퇴비 전투’… “노동자 1인당 500kg 내라”(데일리NK, 2021.1.7)

- 신축년(辛丑年) 새해를 맞아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제시한 첫 과제는 다름 아닌 ‘퇴비 전투’였음

- 함경북도 소식통은 7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말 상부의 지시에 따라 연초부터 퇴비 전투가 시작됐다”면서 “4일부터 회령시에서는 새해 첫 전투로 직장별 인민반별 인분 생산에 돌입했다”고 전함
- 이어 소식통은 “새해 퇴비생산 과제는 4일부터 10일간 집중적으로 진행된다”면서 “공장 기업소 노동자 1인당 500kg, 인민반 세대당 150kg의 퇴비 과제를 10일간 수행해야 된다”고 설명함

■ 북한 “모든 농사일을 과학화해야”(NK경제, 2021.1.21)

- 북한 로동신문이 농업성 관계자들과 인터뷰 기사를 1월 21일 게재함. 북한 농업성 관계자들은 김정은 로동당 총비서의 지시에 따라 과학농사에 매진하겠다는 뜻을 밝힘
 - 로동신문에 따르면 정인남 농업성 국장은 “김정은 총비서가 과학기술의 힘으로 농사를 지으며 과학기술의 덕으로 흥하는 농장과 작업반, 분조들이 끊임없이 늘어나게 해 당의 과학농사방침의 정당성과 생활력이 현실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도록 할 것에 대해 가르쳐 줬다”고 주장함

■ 북한 “농업통합생산시스템 구축이 곧 농업생산의 담보”(NK 경제, 2021.2.7)

- 북한 로동신문이 농업정보화를 추진하는 농장들이 많지만 성과는 다르다며 농업정보화에 대한 확고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함
- 로동신문은 형제산 구역에서는 농업통합생산체계(시스템)를 구축했다며 그 결과 경영관리와 생산지휘,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에서 과학성, 신속성,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농업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정보기술도 풍부하게 습득하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앞장섰다고 함

■ 북한 국가과학원 은정돼지공장 새로 건설(NK경제, 2021.2.16)

- 북한 로동신문은 국가과학원 은정돼지공장이 새로 건설돼 준공했다고 2월 16일 보도함
 - 로동신문은 은정돼지공장에서 종자와 먹이, 수의방역 및 사양관리 등 고기 생산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최량화, 최적화, 현대화해 그 성과를 전국에 도입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주장함

- 로동신문은 1년 남짓한 기간에 공장이 건설됐으며 수십 종의 설비들을 제작, 설치했다고 설명함. 이 공장의 모든 생산공정은 노력절약형, 에너지절약형, 부지절약형으로 만들어졌으며 북한이 자체 제작한 설비들이 적용됐다고 함
- 농업과학기술만이 아니라 정보기술도 풍부하게 습득하도록 사업을 진행했으며 특히 구역협동농장경영위원회 관계자들이 앞장섰다고 함

■ 北 “전염병 또 생길 수도…자체 농산물 생산 늘리는 연구해야”(데일리NK, 2021.3.3)

- 북한이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국경 봉쇄 상황에 대비해 자체 농산물을 많이 생산해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연구·도입하라는 지시문을 최근 농촌들에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짐
- 2일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26일 전염병으로 국경이 막히는 일이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각 농촌에 ‘앞으로도 있을 전염병 비루스(바이러스)에 대비하여 농업 부문에서 수입 농산물에 의존하지 말고 국가 자체의 생산물로 충족하는 방식을 연구 도입할 데 대하여’라는 지시문을 내려보냄

■ 북한, 조류인플루엔자 막기 총력전…강원도 AI 발생에 촉각(『문화일보』, 2021.3.7)

- 남북 접경지인 강원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북한이 가금류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음
- 평양방송은 7일 평양 가금 생산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유행을 차단하기 위해 수의 방역사업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고 보도함

■ 옆친 데 댔친 격?… “영양 부족으로 북한 부림소 폐사율 증가”(데일리NK, 2021.3.15)

- 북한에서 역우(노역에 쓰이는 소) 폐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전해짐
- 죽은 역우를 대체하기 위해 다른 농장에서 소를 훔쳐 오는 일도 성행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북한 “스마트온실에서 채소 생산”(NK경제, 2021.3.18)

- 북한이 지능형온실(스마트온실)에 대한 연구, 개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양남새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조선의오늘과 인터뷰에서 “일반 온실에서는 모 기르기와 옮겨심기, 농약분무, 수확, 생산품의 포장과 같은 생산에 필수적인 작업들이 진행되는데 지능형온실에서는 이와 같은 공정들에 자동화 요소들이 도입돼 거의 모든 공정들이 자동적으로 진행되게 된다”고 설명함

■ 북한 “농업 부문 모든 관계자 과학농사제일주의 명심하라”(NK경제, 2021.3.19)

- 북한이 농업 부문의 모든 일꾼, 근로자들이 과학농사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함
- 로동신문은 “당 8차 대회 결정관철에 펼쳐나선 각지 농업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농사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농업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이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고 있다”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농업 부문의 모든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과학농사도 사상전이라는 확고한 관점을 가지고 이 사업에 사상적으로 달라붙는 것”이라고 3월 19일 보도함
- 로동신문은 수년 간 가뭄과 고온, 홍수, 태풍 등의 영향으로 농업 생산에서 적지 않은 지장을 받은 것이 과학농사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해주고 있다고 지적함

■ 북, 중국서 긴급영농물자 수입 시작(자유아시아방송, 2021.3.22)

- 북한이 일부 긴급물자를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올해 농사철을 앞두고 전국의 협동농장들에 당장 필요한 비료와 모내기용 씨 비닐박막을 수입하고 있다고 중국의 현지소식통들은 밝힘

■ 북한 농업성, 원격영농기술서비스 확대(NK경제, 2021.3.28)

- 북한 로동신문은 농업성이 당 8차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결정을 관철하기 위해 먼거리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시스템)를 실속 있게 운영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3월 28일 보도함
- 이 시스템은 화상회의, 원격강의, 실시간 문답 등을 제공해 농사 계획 작성과 준비를

돕는다고 함

■ 북, 지난달 중국산 농업자재 집중 수입(자유아시아방송, 2021.4.20)

- 북한이 지난 3월 중국으로부터 농업 자재들을 집중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음
- 지난 3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들여온 화학물질 ‘요소’는 총 500만 달러어치로 전체 수입액 1,300만 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양임
- 그 다음으로 북한이 많이 수입한 건 ‘인산암모늄’으로 420만 달러어치를 사들였음
- 이밖에도 북한은 비료의 재료인 유기황화합물과 살충제, 살균제, 그리고 제초제도 함께 수입함. 농사철에 꼭 필요한 비닐 박막도 110만 달러어치나 들여왔음
- 3월달 중국의 대북 수출 품목은 모두 16가지인데, 이 가운데 절반인 8가지가 농사에 직접적으로 쓰이는 것들임

■ 북, 농기계 노후화로 알곡 생산 차질 예상(자유아시아방송, 2021.4.26)

- 북한 협동농장들이 보유하고 있는 영농기계들이 노후화로 인해 작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올해 농업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밝혔음
- 함경북도의 한 농업 간부 소식통은 24일 “요즘 함경북도 내 여러 농장들이 아직도 파종을 하지 못해 생산계획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면서 “파종을 위해 밭갈이를 하려면 트랙토르 같은 농기계에 의존해야 하는데 농기계 부족으로 부림소(일소)와 인력으로 밭갈이를 하는 농장들이 많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북, 올해 군인들의 농촌동원 중요성 강조(자유아시아방송, 2021.4.27)

- 북한 당국이 농사철을 맞아 올해도 어김없이 군인들을 농장 일에 동원하고 있다고 함. 제8차 당대회 결정사항인 식량 증산을 위해 군인들을 주둔지역 인근 협동농장들에 파견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전함
- 함경북도의 한 군 관련 소식통은 26일 “올해 긴장한 나라의 식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할 데 대한 제8차 당 대회 결정에 따라 인민군 총참모부, 총정치국의 지시문이 각급 부대들에 내려졌다”면서 “지시에 따라 부대들은 농촌 지원

에 가용한 인원을 동원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군인들을 현지에 파견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북한, 모내기철 농촌 지원 총력... "경제건설 주요 전방"(데일리NK, 2021.5.3)

- 위성영상에서 주요 곡창지대인 황남 안악군, 황북 상원군과 평북 정주군 지역 저수지에서 수위가 다소 높아지고 저수지 표면의 면적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되었는데, 올해 농업용수 공급상황이 지난해보다는 양호할 것으로 보임
- 북한의 모내기는 통상적으로 이르면 5월 초순에 시작되어 6월 중순이면 끝이 나고, 기상여건(가뭄 등)에 따라서는 6월 말~7월 초순까지 지연되기도 함

■ 北, 모내기 철 농촌 지원 독려... "자급자족이 최선"(YTN, 2021.5.9)

- 북한은 모내기 철을 앞두고 식량 문제를 자력갱생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전방위적 농촌 지원을 독려하고 있음
- 노동신문은 자신들에게 다른 길은 없고, 농사를 잘 지어 식량 자급자족을 실현하는 게 최선의 방략이라고 강조함

■ 북한 모내기 준비 한창...저수지 표면적은 늘어(YTN, 2021.5.10)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내각과 성, 중앙기관 당 조직이 다가온 모내기 철을 위한 조직정치 사업에 달려들고 있다고 보도함
- 성과 중앙기관 당 조직들이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해 모내기와 김매기를 제철에 질적으로 끝내는 사업을 앞세우도록 하고 있다고 소개함

■ 北, 12~15일 '모내기전투' 진입 지시... “돈 내고 빠져도 조심해야”(데일리NK, 2021.5.11)

- 12일부터 15일 사이 전국적으로 '모내기전투'에 진입한다는 북한 중앙당과 내각 농업성의 지시문이 최근 각 도(道) 농촌경영위원회에 내려진 것으로 전해짐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민들의 먹는 문제, 식량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농업 생산성 향상에 신경 쓰고 있는 만큼 올해는 어느 때보다 농촌 동원 분위기가 뜨겁다는 전언

- 황해남도 소식통은 “12살인 초급중학교 1학년 학생들부터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모내기 전투에 총동원하라는 지시문이 떨어졌다”며 “이전에도 그랬듯 돈을 내고 안 나가려는 사람이 있지만, 올해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의 첫 해라 전투에 빠지는 것을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고 전함

■ 북한 “지금은 과학농사의 시대...과학농사제일주의 추진해야”(NK경제, 2021.5.11)

- 북한이 지금은 과학농사의 시대라며 농업에 있어서 과학기술 발전과 적용을 강조함
- 로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는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기 위해 다수확품종들을 육종하고 다수확품종 재배 면적을 늘리며 품종별 특성과 영농과정별로 과학적인 재배 방법을 확립하는 것과 재해성 기후에 대한 과학적이며 현실적인 방책을 세우는 등의 과업이 제시됐다고 설명함

■ 북한 “토끼도 과학적으로 길러야”(NK경제, 2021.5.12)

- 로동신문이 토끼기르기가 중요한 정책적 과업이라며 과학적으로 토끼를 길러야 한다고 지적함
- 토끼기르기를 잘하고 있는 기관들과 가정세의 경험이 과학축산을 틀어쥐고 끊임없는 사색과 탐구로 사양관리에 품을 들일 때 덕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로동신문은 주장함

■ 북한 “과수업도 과학적으로 해야”(NK경제, 2021.5.17)

- 북한 로동신문은 당 8차 대회 결정에 따라 과수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과수업의 과학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5월 17일 밝힘
- 로동신문은 “과수 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 앞에는 당 제8차대회 결정을 관철해 나라의 과수업 발전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할 과업이 나르고 있다”며 “과수업을 발전시키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업은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높이는 것”이라고 설명함
- 로동신문은 과수 부문에서 당의 요구대로 과수원을 조성하고 과일나무들을 제때에 갱신하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해 과수업의 과학화, 집약화 수준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강조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또?... “사리원시 목장에서 돼지 100여 마리 폐사”(데일리 NK, 2021.5.21)

-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의 돼지목장에서 100여 마리의 돼지가 집단 폐사해 북한 당국이 긴급 대응에 나섬
- 소식통은 “도 수의방역과에서는 일이 더 커지지 않게 과학적인 사육조치에 들어갔으며, 소독으로부터 모든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면서 “특히 목장에서 생산한 돼지 생산물을 절대 내지 말며 내부에서 제멋대로 처리하는 일이 없도록 전면 감시하고 있다”고 말함

■ 北 농업성 “버섯증산 활동 벌여라” 지시...내부선 “막무가내” 불만(데일리NK, 2021.5.25)

- 북한 내각 농업성이 최근 전국 도·시·군·구역의 기관기업소들과 농장들에 버섯증산 활동을 활발히 벌이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짐
- 양강도 소식통은 25일 데일리NK에 “농업성은 지난 10일 인민생활 향상을 위해 모든 도·시·군·구역의 기관기업소들과 공장들, 농장들에서 2021~2022년을 버섯증산 활동의 첫 단계로 정하고 버섯 생산을 늘리도록 하는 지시를 내렸다”고 전함

■ 북한 “모든 농사를 철두철미 과학농사로 해야”(NK경제, 2021.5.26)

- 북한이 모든 농사를 철두철미하게 과학농사로 지어야 한다고 지적함
- 로동신문은 “당 제8차대회에서는 농업을 추켜세우는 것을 식량의 자급자족을 실현하고 사회주의 건설을 다그치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국가 중대사로 내세웠다”며 “당이 제시한 알곡고지를 무조건 점령하고 먹는 문제, 식량 문제를 풀자면 농업 부문에서 과학농사제일주의를 높이 들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적으로 해나가야 한다”고 5월 26일 보도함
- 로동신문은 올해도 가뭄과 고온, 홍수, 태풍과 같은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맞는 과학기술적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고 강조함

■ 국경경비대 기동수색용 말 10여 필 죽어나가…중대 간부들 ‘벌벌’(데일리NK, 2021.5.28)

- 온성군 국경경비대에서 이달 4일 10여 필의 말이 갑자기 거품을 물고 무리로 쓰러져 죽는 사고가 발생함
- 소식통은 “파견 온 일군들은 말들이 갑자기 쓰러진 원인을 분석 중인데 중앙의 연구사들과 도 가축방역 부문에서는 말이 먹은 마른 풀이나 사료에 문제가 있다고 제시하면서 먹이를 위생적으로 잘 관리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함
- 말들이 중국에서 날아온 철새나 죽은 동물의 배설물이 묻어 있는 건초를 먹었을 확률이 높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말과 관련된 모든 곳을 체계적으로 소독관리 해왔느냐는 문제도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올해 북한 옥수수 작황 비상…농자재·인력, 벼농사에만 집중(데일리NK, 2021.6.14)

- 최근 북한의 옥수수 작황 부진이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이 제기됨
- 평안남도 소식통은 13일 데일리NK에 “평안남도의 주요 옥수수 산지인 개천, 덕천, 맹산 등의 지역에서 강냉이(옥수수) 밭의 김을 잡지 못하고 있다”며 “풀이 너무 많아 강냉이 성장에 지장을 주고 있다”고 함
- 비료, 농기계 등 기본적인 농자재가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인력동원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옥수수 밭에 잡초가 무성한 것으로 전해짐

■ FAO “올해 북 작황 조건 양호, 외부 식량은 필요”(자유아시아방송, 2021.7.6)

- FAO는 올해 현재까지 북한의 작황 조건이 양호해 식량 생산량이 예년과 비슷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북한이 외부로부터 식량 수입이나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식량 안보가 더 악화될 수 있다고 우려함
- 북한이 식량을 수입하거나 인도적 지원 등으로 부족량을 채우지 못하면 올해 8월부터 10월까지 북한 주민들이 가혹한 시기를 겪을 수 있다고 함

■ 북한, 폭염 속에서도 평양에선 살림집 건설·농촌에선 가뭄 막기(『경향신문』, 2021.7.20)

- 노동신문은 “농업 부문에서 폭염과 고온이 지속되고 가뭄이 예견되는데 대책을 철저

히 세워 수확고를 떨어뜨리지 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함

- 조선중앙통신은 “농업 부문에서는 양수장과 지하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해 농작물 생육에 필요한 물을 충분히 보장하고 관수·관개시설을 총동원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함

■ “농약 부족으로 논에 잡초 무성…지난해보다 작황 부진할 듯”(데일리NK, 2021.7.22)

- 평안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두벌 김매기가 마무리돼야 하는 시기지만 아직도 두벌 김매기를 시작하지도 못한 곳이 많다”며 “논에 보이는 곳만 김매기가 끝났을 뿐 그 외에 논은 잡초가 너무 많아 벼의 생육에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북한에서 농약과 비료 부족은 농업 부문의 고질적인 문제로 인식되지만 올해의 경우 제초제, 비료 등 농약 확보량이 지난해의 80%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상황이 좋지 않음
- 주민들이 농촌 동원을 기피하면서 수작업으로도 잡초를 제대로 제거하지 못하고 있음

■ 북한 ‘브루셀라병’ 확산… “감염된 소 섭취, 사람 감염 우려도”(데일리NK, 2021.7.23)

- 북한 일부 지역에서 세균성 전염병인 ‘브루셀라’가 유행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감염 개체 수를 훌쩍 넘어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음
- 함경남도 도 수의 방역 기관에 집계된 자료에 의하면, 1~6월 브루셀라병 발생 규모는 국영 소목장과 협동농장을 합쳐 138곳(약 600마리)이며 이는 지난해의 63곳(300마리)보다 배나 많은 수치임

■ 폭염·가뭄에 농작물 피해 잇따라…주민들 ‘물주기 전투’ 총동원(데일리NK, 2021.7.26)

- 북한 전역에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황해북도에서는 가뭄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주민들이 총동원돼 ‘물주기 전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도(道)적으로 조직별, 기관별, 학교별 담당 농장을 분담하고 주민들을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물주기에 총동원하고 있음

■ 미 농무부 “북 올해 작황도 좋지 않을 것”(자유아시아방송, 2021.7.28)

- USDA가 ‘2021/2022 북한의 계절별 수확량 전망(North Korea 2021/22 Seasonal Crop Outlook)’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지난 5년 평균 수확량보다 10%가 적은 약 200만 톤이 될 것으로 전망됨
- 농업 전문가인 미국 미저리대학의 제리 넬슨(C. Jerry Nelson) 교수는 “올해 북한의 농사는 암울하고 생산 회복 가능성이 거의 없다”면서 “가뜩이나 낮은 수확량에 유통 기지로의 운송과 곡물 저장 및 가정으로의 재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손실로 인해 수확량은 더 감소할 것”이라고 함

■ “중앙당 간부들, 황해남도 내려와 농장 돌봐…추수 때까지 머물 듯”(데일리NK, 2021.7.30)

- 황해남도에 내려온 중앙당 간부들이 현재 도당위원회 사무실 내에 책상들을 붙여놓고 그 안에서 숙식하고 생활하면서도 안의 농장들을 두루 다니며 “올해는 무조건 알곡과 지를 점령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도에서 농촌지원을 위한 노력 조직이 잘 되고 있는지 동원되는 단위들을 살피고 영농 물자들을 지표별로 따져 국가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보장하도록 농장들을 밀어주는 당의 지시를 집행하는 데 힘을 쏟고 있음
- 농장들에 화학비료와 농약 조달이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

■ “북한 도열병 확산에도 방제약 없어…수확량 감소 우려”(데일리NK, 2021.8.2)

- 과도한 거름으로 인해 거름기가 넘치는 ‘과비현상’이 도열병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토양에 수분이 부족해 작물의 생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많은 거름을 주어 질소질이 상대적으로 높아져 벼 도열병에 걸린 것으로 분석됨
- 문덕군뿐만이 아닌 곡창지역으로 유명한 숙천군, 평원군들에서도 나타나고 있다”면서 병이 서해안 벼 생산지 전체로 빠르게 번지고 있음

■ 기록적 폭염과 폭우에 과일·채소농사 피해 막심… “건질 게 없다”(데일리NK, 2021.8.16)

- 평안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한낮 최고기온이 33~38℃에 육박하는 날이 많아지면서 채소와 과수 생육이 부진하다”며 “햇볕에 데이는 등의 피해도 광범위하게 발생했다”고 함
- 이상고온과 가뭄으로 인해 과수와 채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이에 더해 과실과 잎이 타들어 가는 일소피해도 발생했다는 설명임
- 일소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차단망 설치, 충분한 물 공급, 탄산칼슘 약제를 통한 방제작업 등이 이뤄져야 하지만, 북한 내 자재 부족과 관수·관개 시설 미비, 약품 부족으로 적절한 대응이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 폭염 영향 평남서만 가축 10만 마리 폐사…돼지고기 값은 하락?(데일리NK, 2021.8.18)

- 지난달 말까지 평안남도에서 폭염으로 인해 폐사한 가축의 수가 10만 마리가 훨씬 넘음
- 축종별로는 닭이 9만 마리로 폐사율이 가장 높았고, 이어 돼지 7,000마리, 오리 2,500마리, 소 100마리가 폭염으로 폐사함
- 이 외에도 메추리 등 기타 가축도 1만 400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전해짐
- 평안남도뿐만 아니라 함경도, 황해도 등 다른 지역도 지난달 폭염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상당했다는 게 현지 소식통의 전언임

■ 북한, 온실채소 부문 과학기술토론회 진행(NK경제, 2021.8.25)

- 온실남새농사의 과학화, 집약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과학기술토론회는 온실채소 재배기술 연구와 생산과정에서의 성과와 경험들을 보급하기 위해 마련됨
- 이번 행사에 국가과학원, 농업연구원,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양농업대학, 원산농업대학, 각 도농촌경리위원회 등 수십 개 기관들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박사원생, 현장관계자 등이 참석해 70여 건의 과학기술제안에 대해 토론함
- 토론회 기간 온실채소 농사에서 재해성 기후와 병해충의 피해를 막고 다양한 조건에서 채소품종들을 재배하는 데 나서는 기술적 문제 등에 대한 강의와 다매체편집물

시청이 있었다고 함

■ 본격 가을걷이 시작한 北…지시문 내려 ‘남알 낭비’ 철저히 단속(데일리NK, 2021.9.23)

- 가을걷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북한이 모든 협동농장에 알곡 손실을 최대한 줄이고 한 알의 남알도 낭비하지 말라는 내용의 지시문을 내려보낸 것으로 전해짐
- 특히 도당은 남알을 한 알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탈곡 작업장들과 필요한 곳들에 감시 인원을 붙여 남알이 빠지지 못하도록 차단·단속하는 사업의 중요성도 밝혔다고 함

■ CSIS “올 가을 북 작황, 평년수준 이하”(자유아시아방송, 2021.10.4)

- 미국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4일 ‘2021년 가을 북한의 농업상황 평가’(Assessing Fall 2021 Agricultural Conditions in North Korea)라는 보고서를 공개함
- 보고서는 앞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밝힌 전망과는 달리 실제로는 북한의 “7월부터 8월까지 농작물 상태는 평균 또는 풍작에 미치지 못하는 수확량을 나타냈다”고 지적함
- 전반적으로 올해 북한의 곡물 생산량은 평균 수준인 약 560만 톤으로 예상하면서, 북한이 수입을 통해 들여올 곡물량을 고려하면 두세 달 치에 해당하는 86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전망함
- CSIS 보고서는 북한의 상황을 “기근의 위기는 아니지만, 부정적인 추세”로 평가하면서, “전년도의 낮은 수확량과 북동부 농경지의 홍수 피해, 또 농작물 수송시설 등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결합돼 국가의 식량 불안을 악화시킨다”고 분석함

■ ‘주렁주렁 열렸네’ 집집마다 감 열린 북한의 풍경(『서울신문』, 2021.10.7)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7일 안변군 천삼리의 풍경을 전함
- 신문은 이곳에서 많은 감이 열렸다며 “집집마다 과일나무를 많이 심을 것에 대한 당 정책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새겨보게 한다”라고 말함

■ 식량난 시달리는 북한, 가을걷이에 총력 기울여(『중앙일보』, 2021.10.21)

-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월 8차 당 대회에서 식량 확보를 주요 과업으로 제시한 바 있고,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는 “어떤 불리한 기상·기후 조건에서도 농업 생산의 안정적이며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며 농업발전 전략 수립을 주문함
- 관영매체는 올해 수확 철에 접어든 지난 달부터 연일 가을걷이 소식을 전하고 있음
- 북한은 이달에도 잦은 비와 한파로 '날씨 조건'은 불리했지만, 전국 각지에서 난알 털기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음

8. 식량

■ FAO, 북 ‘식량지원 필요국’ 재지정…“코로나로 식량난 악화”(자유아시아방송, 2020.12.3)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 중 하나로 재차 지정함
-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3일, 전 세계 저소득 국가들의 곡물 생산 및 식량 상황을 평가한 ‘작물 전망과 식량 상황(Crop Prospects and Food Situation)’ 올해 4분기 보고서를 공개했음
 - 이 보고서에서 북한은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Countrie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 For Food) 45개국 중 하나로 꼽힘
 - 보고서는 북한이 적은 식량 섭취량, 식품 다양성 부족, 경제 침체 및 홍수 등을 그 원인과 문제점으로 지적함
 -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제약이 식량 안보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취약성을 더욱 부각시켰다고 함
 - 보고서는 또 한반도 지역에 내년 봄까지 해수면 온도가 평균보다 낮게 지속되는 이상 기후인 라니냐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2021년 작황 상황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함

■ 올해 북한 식량 생산량 440만 톤...작년보다 5% 감소(YTN, 2020.12.24)

- 올해 북한의 식량 작물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24만 톤 감소한 440만 톤인 것으로 추정됨
-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올해 북한 지역의 기상과 병충해 발생, 비료 수급 상황, 위성영상 등을 종합해 분석한 결과 올해 북한에서 생산된 식량 작물은 모두 440만 톤으로 지난해보다 5% 감소함
 - 작물별로는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9.8% 줄어들었는데 이는 특히 벼가 여무는 시기인 8월부터 장마와 태풍 피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임

■ 북 주민, 생필품 부족으로 춥고 힘겨운 겨울 보내(자유아시아방송, 2021.1.15)

- 북한의 생필품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3일 “작년 초까지만 해도 잘 팔리지 않아 처치 곤란이던 중국산 싸구려 방한용품들조차 요즘엔 구하기 어렵게 되었다”면서 “코로나 사태 이전에는 중국산 저가 방한용품들이 밀려들어와 주민들이 오히려 국산품만을 찾던 시기가 있었다고 전함
- 소식통은 그러면서 “양질의 생필품을 생산해 시장에 공급하던 조-중 합작공장들이 자재를 들여오지 못하면서 대부분 생산을 중단했다”면서 “인기가 없던 중국산 방한용품마저 모두 소진되자 주민들이 극심한 생필품 부족현상을 겪고 있다”고 말함
- 소식통은 이어서 “작년부터 생필품 희귀 현상이 계속되는데도 당국에서는 장마당에서 밀수로 들여온 한국산, 일본산 생필품의 유통과 판매를 단속하였다”면서 “그런 와중에서도 중국산 싸구려 제품은 사려는 사람이 없어 재고가 많이 남아있었으나 지금은 그마저도 다 팔려나가 필요한 물건을 구할 수가 없다”고 언급함

■ 북, 지난해 말 설탕 수입 급증...“올해 경제도 어려울 것”(자유아시아방송, 2021.1.28)

- 북한은 그동안 수입하지 않던 사탕수수 설탕 종류를 중국으로부터 12월 한 달 동안 1만kg, 326만 달러어치를 사들임
- 미국 한미경제연구소(KEI)의 트로이 스탠가론 선임국장은 28일 전자우편으로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설탕 수입은 소수의 간부들을 독려하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 당국은 그 돈으로 주민들을 위한 곡물과 채소를 구입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함

■ 미 농무부 “올해 북 식량상황도 여전히 암울”(자유아시아방송, 2021.2.12)

- 미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는 10일 공개한 ‘2월 쌀 전망 보고서(Rice Outlook: February 2021)’에서 북한의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와 같이 나쁠 것으로 전망함
 - 이번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작물 중 옥수수, 콩 등을 제외한 올 가을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함
 - 136만 톤은 지난해 2월 공개됐던 보고서의 지난해 쌀 생산량과 같은 수치임
 - 북한의 쌀 수확 전망치인 136만 톤은 27년 전인 1994년 약 15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한편, 농무부는 지난달 공개한 ‘코로나19 조사 보고서: 국제 식량안보 평가 2020-2030’에서도 지난해 기준으로 북한 주민 63.1%가 식량 섭취가 부족하다고 추산한 바 있음

■ 북, 식량 부족 심각해지자 외부 지원설 흘러(자유아시아방송, 2021.2.22)

- 북한의 식량난이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더욱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임
- 당국에서는 북한에 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어 세계적으로 코로나 청정국으로 인정받았으며 국제기구의 식량 지원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20일 “요즘 여기(북한)에서는 강냉이(옥수수)죽도 없어서 굶는 절량세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루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해 굶주림에 지쳐 쓰러지는 주민이 발생하고 있어 주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함

■ 세계식량계획 “국경 봉쇄 지속하면 대북지원 일시 중단 가능성”(YTN, 2021.2.23)

- 세계식량계획, WFP는 올해에도 북한의 국경 봉쇄가 지속된다면 대북 지원 활동 자체가 일시적으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힘
 - WFP는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통해 “만약 북한에 식량 반입이 가능하지 않다면 2021년 활동이 중단될 수 있다”고 전함
-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국경을 봉쇄함에 따라 식량 반입이 어려워지고, 북한에 파견된 국제기구 요원들이 평양 밖으로 이동하는 것도 제한되자 일시적인 지원 중단 가능성을 언급한 것임
- WFP는 국경 봉쇄가 풀리는 대로 직원들을 북한에 보내 식량 분배상황을 직접 감시할 방침임

■ 옥수수값, 화폐개혁 후 최고치 돌파…돌연 3,000원대로 폭등(데일리NK, 2021.2.25)

- 최근 북한 옥수수 가격이 급등함
- 이달 초까지 1kg에 2,000원대에서 거래가 이뤄졌던 옥수수 가격이 설 명절 직전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체감 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평안남도 소식통은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나라에서 명절 공급을 생산하기 위해 강냉이(옥수수)로 과자와 사탕을 생산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면서 “이 때문에 강냉이 값이 며칠 사이에서 폭등했다”고 말함
- 실제로 23일 기준 양강도 혜산의 옥수수 가격은 1kg당 3,600원으로, 화폐개혁(2009년) 이후 역대 최고치를 나타냄

■ “명절 공급 준비” 지시에 폭등했던 옥수수값, 소폭 하락(데일리NK, 2021.3.5)

- 지난달 설과 김정일 생일(광명성절, 2·16) 등 명절을 앞두고 보름여 만에 60% 이상 급등했던 옥수수 가격이 다소 안정화되는 양상. 그러나 지역에 따라 3,000원대 가격을 유지하는 곳도 있어 아직도 주민 불만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지난 2일 기준 양강도 혜산시의 옥수수 가격은 1kg당 2,800원에 거래. 지난달 23일 3,620원이었던 것과 비교할 때 열흘 만에 20% 이상 하락함

- 갑작스러운 가격 상승으로 옥수수 수요가 줄자 자연스럽게 가격도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임

■ 북 간부들, 생활고에 무역재개 애타게 기다려(자유아시아방송, 2021.3.8)

- 평안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가 처음 발생한 후 우리(북한)나라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국경봉쇄조치를 단행했다”면서 “1년 넘게 공식무역이 중단되면서 주민들은 심각한 생계난에 직면했는데 당국에서는 무조건 국경을 차단하고 기초 생필품 수입조차 막고 있다”고 지적함
- 소식통은 “요즘 주민들 못지않게 국경이 다시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방의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 간부들”이라면서 “국경이 1년 넘게 차단되면서 가까스로 지탱해오던 무역회사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폐업할 지경에 처했다”고 함

■ 北 “인민 식탁에서 ‘만세’ 소리 나와야”...식량 계획 달성 강조(YTN, 2021.3.11)

- 북한이 본격적인 농번기를 앞두고 연일 올해 식량 생산 계획 달성을 강조하고 있는 가운데, 인민의 식탁에서부터 '노동당 만세' 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함
-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새로운 5개년계획의 첫해인 올해 식량 생산 고지를 무조건 점령해야 한다면서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반드시 결실을 보아야 한다고 강조함
- 지난해 태풍과 수해로 농업 부문에서 큰 타격을 받은 북한은 농번기를 앞두고 매일 각종 매체를 통해 과학적인 농사와 간석지 개간 등 식량 증산과 재해 재난 대비를 독려하고 있음

■ 북 군인들 땀감 없어 추위와 질병에 시달려(자유아시아방송, 2021.3.11)

- 북한 군인들이 2월 말부터 땀감이 바닥나 추위와 질병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려짐
- 군 당국은 시급한 땀감 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동계훈련 중인 일부 군인들을 땀감 확보 작업에 동원하고 있다고 현지소식통들은 전함

■ 北 10대 군인 굶주림에 무장한 채 탈북… “軍 식량문제 심각한 듯”(데일리 NK, 2021.3.16)

- 지난 1월 굶주림을 견디지 못한 북한 국경경비대원이 무장한 상태에서 탈영해 중국으로 건너간 뒤 붙잡힌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국경봉쇄마저 더해져 국경경비대 일탈이 계속되는 모양새임
- 북한 국경경비대는 주민들의 도강, 밀수, 밀매 등을 눈감아주고 뇌물을 받을 수 있어 다른 지역의 군인들에 비해 주머니 사정이 나은 편이나 코로나19로 인해 주민들의 밀수가 막히면서 이들의 수입도 크게 줄어든 상황

■ 北서 “돈도, 식량도 떨어져가…더 이상 못 버틴다” 불안감 고조(데일리NK, 2021.3.23)

- 대북제재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으로 인한 국경봉쇄가 장기화 되면서 최근 절량(絶糧)세대(식량이 떨어진 세대)가 급증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주민들은 ‘민심을 중시하고 사업에 대한 평가를 인민들에게서 받으라’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언급에도 큰 기대를 품지 않는 것으로 전해짐

■ 北, 꽃제비 중 아사자 연이어 발생(자유아시아방송, 2021.3.24)

- 대북제재에다 코로나 사태의 장기화로 극심한 생계난을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 속에서 아사자가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임
- 지방 행정기관에서는 아사한 주민을 장례절차도 없이 처리하고 있어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길어지는 국경봉쇄…북한 시장서 중국산 식료품 씨가 말랐다(데일리NK, 2021.3.26)

- 북한의 국경봉쇄 조치가 장기화되면서 최근 북한 시장에서 수입산 식료품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으로 알려짐
- 일부 품목은 국경봉쇄 전과 비교할 때 7배나 가격이 폭등함

■ 함북 청진 물가 폭락…“시장물가 규제” 소문에 싸게 내놓아”(데일리NK, 2021.3.18)

- 최근 북한의 일부 시장에서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당국이 직접 시장물가 규제에 나선다는 소문 때문에 빨리 물건을 팔아넘기려는 장사꾼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소식통이 알려옴
- 데일리NK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청진 수남시장에서 쌀의 경우 kg당 4,500원으로 거래되다 18일 현재 4,050원으로, 강냉이(옥수수)는 2,800원에서 2,300원으로 내려감
- 또한 3만 2,500원으로 판매되던 식용유가 2만 8,000원으로, 4만 8,000원이던 설탕도 4만 500원으로 톱 떨어짐
- 특징적인 점은 ‘반값’으로 폭락한 품목도 상당하다는 점임. 콩은 8,000원에서 4,800원으로, 도루메기(도루묵)는 2,000원에서 1,150원으로, 이면수(임연수)는 4,000원에서 2,450원으로 가격이 크게 내림

■ 북, 태양절 맞아 전쟁노병에 ‘껍데기 옥수수’ 공급(자유아시아방송, 2021.4.15)

- 북한 당국이 태양절(김일성 생일 4월 15일)을 맞아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옥수수를 차등 공급했다고 함
- 金正은의 배려임을 강조하며 배급한 옥수수 식량에 송치(옥수수 속)가 섞여있는 등질이 떨어져 주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소식통은 또 “중앙이 공급해야 할 식량배급을 떠맡게 된 식량판매소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공급할 식량 재고가 부족해서인지 영예군인들에게는 보름 분의 옥수수(7~8kg)를 공급했다”고 말함
- “전쟁노병과 영예군인들에게 차등으로 공급된 옥수수도 지역 식량판매소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인데, 중앙에서는 식량공급을 당의 배려로 선전하면서 전쟁노병들과 영예군인들에게 당의 은혜를 한시도 잊지 말고 충성을 다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고 지적함

■ 미 농무부 “올해도 북 식량난 여전할 것”(자유아시아방송, 2021.4.16)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가 최근 공개한 ‘4월 쌀 전망 보고서(Rice Outlook: April 2021)’는 북한의 올해 쌀 작황이 지난해와 비슷하게 나쁠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작물 중 옥수수, 콩 등을 제외한 올 가을 쌀 생산량을 조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함. 136만 톤은 지난해 4월 공개됐던 보고서의 지난해 쌀 생산량과 같은 수치임
- 이는 27년 전인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4년 약 15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유엔기구 “북 아동 영양상태, 국제기준 미달”(자유아시아방송, 2021.5.4)

- 유엔아동기금(UNICEF)과 세계보건기구(WHO), 세계은행(WB)이 공동으로 4일 북한을 포함한 세계 각국의 아동 영양실조 수치를 추정한 ‘2021 아동 영양실조 추정치-수준 및 동향(UNICEF-WHO-The World Bank: Joint child malnutrition estimates — levels and trends - 2021 edition)’ 보고서를 발표함
 -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발육부진(stunting) 비율은 2020년 기준 18.2%, 총 31만 7,800명으로 추정돼, 한국의 2.2%, 4만 1,700명과 비교해 7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의 경우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발육부진 비율이 2012년 기준 26.1%, 42만 9,800명에서 2020년 기준 18.2%, 31만 7,800명으로 감소함
 - 지난 2017년 기준 5세 미만 북한 아동의 저체중(wasting) 비율은 2.5%로 4만 3,500명으로 추정됐지만, 여전히 전 세계 기준에는 미달한다고 지적함
 - 실제 북한의 경우 5세 미만 전 세계 아동 저체중 평균인 2.0%보다 0.5% 더 높은 2.5%로, 북한 아동들의 영양상태가 좋지 못함

■ “돈 꾸는 신세로 전락”...일부 국경 보위부·안전부 1년치 식량배급(데일리NK, 2021.5.12)

- 북한 당국이 최근 군량미 등을 풀어 일부 북중 국경지역 보위부와 안전부 일꾼들의

1년치 식량을 한꺼번에 배급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짐

- 소식통은 “요즘 주민들 못지않게 국경이 다시 열리기를 애타게 기다리는 사람들은 지방의 각 기관 소속 무역회사 간부들”이라면서 “국경이 1년 넘게 차단되면서 가까스로 지탱해오던 무역회사들이 더는 견디지 못하고 폐업할 지경에 처했다”고 함
- 소식통은 “정부는 6차 당세포비서대회서 ‘고난의 행군’을 선포한 만큼 올해 탈북 시도가 많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때문에 국경지역에 대한 통제 강화를 위해 보위부, 안전부와 같은 치안기관에 우선 식량을 배급한 것으로 보인다”고 함

■ 북, 보위부·안전부 종사자들에 1년분 식량 배급(자유아시아방송, 2021.5.18)

- 북한이 어려운 식량사정에도 불구하고 군량미를 풀어 보위성, 안전성 등 사법기관 종사자들에 1년분 식량을 한꺼번에 배급한 것으로 알려짐
- 일반 주민들은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데 체제보위 관련 종사자들에게는 특별공급을 해준 것이라고 현지 소식통들이 전함

■ ‘영양실조 최악’ 보고에 김정은, ‘全軍 보양소 설치’ 지시(데일리NK, 2021.5.18)

- 김정은 무력 총사령관 명의로 전군(全軍)에 군단과 사령부 지휘부를 거점으로 하는 보양소 설치에 관한 지시가 하달돼, 영양실조 판정 군인들이 입소하는 등 관련 실무 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짐
- 올해 10월 10일(노동당 창건일)을 기점으로 전군 ‘부대 내 영양실조 군인퇴치사업 총화(평가)’를 진행, 등수를 매기겠다고 못 박음

■ “2021년 북한 식량 70~100만 톤 부족 예상”(『세계일보』, 2021.5.31)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북한경제리뷰’ 5월호에 실린 ‘북한의 농업 및 식량상황: 2020년 동향과 2021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가을 곡물 생산량은 440만 톤으로 전년(464만 톤) 대비 5.2%(24만 톤) 감소할 정도로 작황이 저조함
 - 북한의 연간 식량 수요가 575만 톤인 점을 고려하면 135만 톤이 부족함
 - 통상적인 곡물 수입 20~30만 톤과 국제 사회의 식량지원 10~30만 톤을 고려해도

70~100만 톤이 부족한데, 이 정도 규모의 부족분은 북한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분석임

■ 북한, 우여곡절 끝에 국가식량판매소 개소…시장 영향은 ‘미미’(데일리NK, 2021.6.1)

- 내부 소식통에 따르면, 각 지역에 국가식량판매소가 개설돼 운영을 시작했으며 쌀과 강냉이(옥수수)를 주로 판매하고 있음
- 현재까지는 쌀과 강냉이 외에 다른 곡물이나 식품은 판매하지 않고 있다고 함
- 국가식량판매소에서는 시장보다 1kg당 200원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쌀을 판매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들은 식량판매소보다 시장에서 파는 쌀을 선호하고 있음

■ FAO “북, 올해 외부지원 없으면 두 달 치 식량분 공백”(자유아시아방송, 2021.6.14)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의 ‘북한: 2020/21 식량 공급과 수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10월까지 식량 부족분을 채우기 위해 필요한 곡물 수입량은 약 110만 톤으로 추정됨
- 지난해 북한의 쌀 생산량은 1ha당 4.4톤 수준으로 지난 5년 간 평균치보다 10% 낮았으며, 대두는 8%, 수수, 조, 메밀을 포함한 여타 곡물 역시 13% 더 낮았다고 설명함

■ 김정은 ‘특별명령서’ 이행…주민에 “군량미 풀어 식량 공급” 예고(데일리NK, 2021.6.29)

- 북한 각 지방에 군량미를 풀어 주민들에게 공급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하달됨
- 9월 말까지 식량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당국은 약속함
 - 3개월간 국가가 책임지고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한 것
- 매주 5일분을 세대별로 성인-아동 급수에 따라 배급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공급한다는 원칙도 공표함
 - 하루에 직장인 700g, 부양가족 300g, 미취학 아동 300g의 곡물을 공급한다는 뜻임
- 무료 공급은 아니나, 다만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임

■ “북, 올해 식량 111만 톤 부족”(자유아시아방송, 2021.7.6)

- 서울대 의과대학 통일의학센터가 주최한 온라인 학술회에서 북한에는 한해 약 44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생산된 식량이 식용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와 수확 후 손실분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식량 부족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함

■ 북, 주민에 식량난 장기화에 대비하라 지시(자유아시아방송, 2021.7.6)

- 북한 당국이 코로나 비상방역기간을 최소 3년으로 예상하고 그 기간에는 각 기관 기업소 단위별로 자체로 식량문제를 해결하라는 방침을 내려 주민들이 불만에 차 있음
- 당국에서는 원래 공장, 기업소들에 자체로 배추, 무와 같은 부식물을 해결할 수 있게 부업포전을 배분해왔는데 올해에는 부업포전을 확대 배분함

■ “北 작황 예년 수준… 식량 지원은 필요”(『세계일보』, 2021.7.7)

-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정보조기경보국(GIEWS)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가 보고서는 북한에 식량 수입이나 외부 지원은 필요할 것으로 진단함
- 북한이 지난 5년간 평균과 비슷한 규모인 곡물 110만 톤을 외부에서 들여와야 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북한이 수입을 통해 들여올 곡물량을 고려하면 두세 달 치에 해당하는 86만 톤 정도의 식량이 부족할 것이라고 함
- 북한이 식량을 더 수입하거나 인도적 지원으로 부족량을 채우지 못하면 주민들이 오는 8~10월까지 힘겨운 기간을 보낼 수 있다고 밝힘

■ 유엔기구들 “북 인구 42% 이상 영양 결핍”(자유아시아방송, 2021.7.12)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유엔아동기금(UNICEF), 세계식량계획(WFP), 그리고 세계보건기구(WHO) 등 5개 유엔 주요 기구들이 12일

전 세계 식량안보 상황을 평가한 공동 연례보고서인 ‘2021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상태 보고서(The State of Food Security and Nutrition in the World 2021)’를 발표함

-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 인구의 42.4%에 달하는 1천 90만 명이 영양 결핍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14년 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양 결핍 비율이 33.8%였던 것에서 10% 가까이 증가한 것임

■ ‘곡창지대’ 황해남도 당위원회, 긴급회의 열어 식량문제 해결 강조(데일리NK, 2021.7.12)

- 황해남도에서 모내기 시기부터 주민들의 열악한 식량 사정이 긴급한 문제로 떠올라 식량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긴급회의가 벌써 몇 차례 진행됨
- 농경지 면적이 크고 논이 많은 황해남도가 계속 힘을 넣어 올해 도에 내려진 국가 의무수매 양정계획을 무조건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 특히 강조됨
- 도당은 내년부터는 전국 인민들에게 식량공급을 정상화하고 지속적으로 효과를 나타내도록 황해남도의 농촌이 앞장서서 전국의 농업 부문을 대표해야 한다고 언급함

■ “곡물·백신 부족” 北 이례적 자인(『서울신문』, 2021.7.14)

- 북한이 곡물 생산 계획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백신 등 필수 의약품도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이례적으로 인정함
- 박정근 내각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제출한 보고서에서 “곡물 700만t 생산 계획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2018년 495만 톤 생산으로 10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밝힘
- 유엔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인구의 40%가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으며 식량 수급 상태도 심각한 실정임

■ 벌레 우글거리고 묵은내… ‘김정은 쌀’에 주민 불만 쏟아져(『조선일보』, 2021.9.1)

-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특별명령’으로 공급한 2호미(전시에비식량)에서 벌레가 우글거리고 묵은 냄새가 나 주민들의 비난을 받는 것으로 알려짐

- 특히 김정은의 특별명령으로 식량공급을 약속해 놓고 무상공급이 아닌 판매형식으로 제공하면서 실망과 불만이 높은 것으로 전해짐
- 식량 사재기를 막기 위해 개인당 식량 구매량도 제한한 것으로 전해짐

■ 9·9절 맞아 10일치 식량 ‘공급’…지방은 未수급 세대 ‘수두룩’(데일리NK, 2021.9.15)

- 북한 당국이 공화국 창건(9·9절) 73주년을 맞아 명절용 식량을 공급했으나 공급량 부족으로 지방에서는 혜택을 받지 못한 주민들이 속출했다고 함
- 식량 공급을 한다는 지시만 요란하게 포치하고 실제 현지에서는 식량 부족으로 공급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이 곳곳에서 나왔다는 것임
- 평양시의 경우, 지난 1~8일 사이에 공급이 단행되었고, 이번에는 절량세대(식량과 자금이 떨어진 세대) 등 기준을 정하지 않고 희망 세대에 한해 100% 공급했다고 함
- 함경북도 청진시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식량 공급이 시작됐고, 가격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평양시보다 공급이 늦은 셈임

■ FAO, 북 ‘식량지원 필요국’ 재지정…“코로나 영향”(자유아시아방송, 2021.9.23)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AO)가 북한을 외부 식량지원이 필요한 국가(Countries requiring External Assistance For Food) 44개국 중 하나로 꼽음
- 특히 북한은 이 중에서도 레바논, 예멘과 함께 대부분 지역에서 식량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국가로 분류됨
- 보고서는 북한이 적은 식량 섭취량, 식품 다양성 부족, 경제 침체 등을 그 원인과 문제점으로 지적함

■ WFP “북 주민 3분의 1 이상 영양실조”(자유아시아방송, 2021.9.24)

-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이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영양실조 증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힘
- 자료는 영양실조 유병률이 낮을수록 푸른색이고 높을수록 붉은색으로 표시되는데, 북한은 진한 빨간색으로 나와 있음

- 앞서 지난 6월에 김정은 총비서가 제8기 3차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북한의 식량난을 인정하기도 함

■ 북한 양강도 감자 작황 심각… “공장 기업소 배급 사실상 중단”(데일리NK, 2021.10.8)

-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말부터 혜산시 공장 기업소들은 대흥단과 백암군, 삼수군 등 6개월분의 배급용 감자밭을 배정 받았지만 이 지역의 감자수확량이 형편없이 부족해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함
- 감자배급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대다수 주민들은 초가을부터 식량문제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신세가 됐다고 함

■ 추수철 맞아 농촌 내려온 ‘쌀 접수조’ 군량미 우선 확보에 혈안(데일리NK, 2021.10.19)

- 식량난에 처한 북한이 농사 결속 소식을 연이어 전하고 있는 가운데, 가을 수확 및 탈곡 시기를 맞아 ‘군량미 접수조’가 농촌에 내려와 군량미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짐
- 실제 북한은 올해 각 군단 후방창고에 비축해 둘 곡식의 양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정해진 양을 보장하지 못한 후방일꾼들을 군법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한 상태임
- 과거에는 정량 확보에 실패하면 제급 강등시키거나 비판하는 정도에 그쳤지만, 올해는 법적 처벌을 내리겠다고 예고해 후방일꾼들이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전언임

■ 미 농무부 “올해 북 쌀작황 지난해보다 악화”(자유아시아방송, 2021.10.22)

- 미국 농무부 산하 경제조사서비스(Economic Research Service)는 최근 공개한 10월 쌀 전망 보고서(Rice Outlook: October 2021)에서 북한의 올해 쌀 생산량이 지난해보다 더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보고서는 북한의 식량 작물 중 옥수수, 콩 등을 제외한 2021/22 양곡연도 쌀 생산량을 도정 후 기준 136만 톤으로 전망함
- 이는 27년 전인 이른바 ‘고난의 행군’ 시기였던 1994년 약 150만 톤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임

■ 삼지연시 주민·대흥단군 제대군인에 20여kg ‘배려미’ 공급돼(데일리NK, 2021.10.27)

- 북한은 지난 19일 이른바 ‘혁명 성지’로 일컫는 삼지연시의 주민들과 인접도시인 대흥단군의 일부 주민들에게 성인 한 사람당 20여 kg의 흰쌀을 ‘배려미’로 공급함
- 다른 지역의 주민들은 “삼지연이나 대흥단 주민들만 입이나” “우리는 감자 (먹는) 입만 가지고 태어났냐”는 등의 말을 하면서 공급 차별에 대해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식량난 비상, 김정은 “날알 한톨까지 확보하라”(『국민일보』, 2021.10.28)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근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을 걷는 심정이고, 날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함
- 북한은 식량난 타개를 위해 전군·전민 총동원체제에 돌입함
- 국정원은 올해 북한의 전체 식량 작황은 일조시간 증가로 인해 지난해 수준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함

■ 여전히 못 먹는 북한…20년 전보다 더 배고파졌다(『국민일보』, 2021.11.5)

- FAO는 4일(현지시간) 발간한 ‘2021 세계 식량과 농업 연감’을 발표하고,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 인구의 42.4%인 1,090만여 명이 영양부족 상태에 놓였다고 밝힘
- 북한의 영양부족 상태는 아프리카 최빈국으로 꼽히는 르완다(35.2%)나 에티오피아(16.2%)보다도 열악함
- “북한보다 영양부족 인구 비율이 높은 나라는 소말리아(59.5%) 중아프리카공화국(48.2%) 아이티(46.8%) 마다가스카르(43.2%) 등 손에 꼽을 정도”라고 함

■ 북 주민, 최악의 생활난에 '고난의 행군' 각오(자유아시아방송, 2021.11.16)

- 평안북도의 한 주민소식통은 “여기(북한)는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가 최악이다”라면서 “요즘 주민들은 3차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었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히 하고 있다”고 전함
-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당국이 그동안 봄철 농번기와 가을걷이, 코로나방역 등을

이유로 제한해왔던 장마당 이용시간을 2시간 늘린 것으로 알려짐

- 그러나 소식통들은 당국이 장마당이용시간을 늘린 것은 경각에 다다른 주민들의 생계 문제를 돕기 위한 것이지만 정작 식량이나 물건을 살 돈도 없는 데다 생필품도 품귀현상을 빚어 장마당은 텅 비어있다고 함

9. 토양

■ 北 농업지대 토지 산성화 심각… “유기질 비료 생산 다그치지만…”(데일리NK, 2021.2.22)

- 북한의 토지 산성화 수준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짐
- 이에 토지 산성도를 중화시킬 수 있는 유기질 비료 생산을 다그치고 있지만, 산성화된 토지 면적이 워낙 방대해 제대로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이에 따라 당국은 산성화된 토양을 중화시킬 수 있는 흙보산비료, 신양2호 발효 퇴비 등 유기질 비료 생산과 실어내기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실제 현재 농촌 논밭에 정보당 수십 톤씩 유기질 비료를 뿌리면서 산성 토양과 냉습지(冷濕地) 개량, 흙갈이(객토)를 하고 있지만, 아무리 해도 전체 면적의 10%도 안 되는 형편이라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북, 개인소토지 몰수 위해 전국토지조사 실시(자유아시아방송, 2021.7.15)

- 북한 당국이 김정은 총비서의 명령으로 전국적으로 농업용 토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기관, 기업소와 개인소유의 소토지들을 파악해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기 위한 사전 조치라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음

10. 해양

■ 북, 도루묵 풍어로 주민 식량난에 도움(자유아시아방송, 2020.12.18)

- 북한에서 겨울철 물고기인 도루메기(도루묵)가 풍어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6일 “요즘 청진시 각 구역 장마당마다 물고기 매대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겨울철 물고기인 도루메기가 한창 잘 잡히고 있는데 중국에 수출길이 막혀 대부분 장마당에 흘러들면서 물고기 장사꾼도 늘어나고 값도 예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밝힘
- 소식통은 “겨울철 강추위가 계속되자 가까운 연안에서 쉽게 잡히는 연안 물고기인 도루메기(도루묵)가 풍어를 이루고 있다”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입쌀이나 옥수수 등 식량가격에 비해 비싸서 살 엄두를 못 내던 주민들이 요즘은 낮은 값에 쉽게 사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함
- 소식통은 또 “요즘 장마당에서 입쌀은 평균 1kg당 중국 돈 4~5원 하는 데 비해 도루메기는 3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면서 “식량난으로 인한 영양부족으로 허덕이던 주민들에게 그나마 도루메기의 등장은 반가운 소식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수산연구원, 수산자원관리정보시스템 개발(NK경제, 2021.3.20)

-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최근 수산성 수산연구원이 수산자원관리정보체계(시스템)를 연구, 개발했다고 3월 20일 보도함
- 북한의 수산 자원량을 어종별, 수역별, 지역별로 종합하고 그 관리를 과학화, 정보화할 수 있게 하는 수산자원관리정보체계를 개발, 도입함

■ 北, 일본 오염수 방류 비판...“인류에 새로운 재난”(YTN, 2021.4.15)

- 북한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을 처음 공개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함
- 조선중앙통신은 논평에서 “일본이 세계적인 악성 전염병 사태로 고통을 겪는 인류에게 새로운 재난난을 몰아오려 하고 있다”며 “해양 방류 결정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함

- 통신은 “오염수를 방류하는 경우 엄청난 양의 위험물질이 수십일 내에 태평양 대부분 수역으로 퍼지게 된다”면서 일본과 바다를 사이에 둔 북한으로서는 인민의 생명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라고 우려함

■ 올 5월 북 선박 해상활동, 두 달 새 2배 증가(자유아시아방송, 2021.5.27)

- 올해 5월 들어 중국을 오가는 북한 유조선들을 포함한 선박들의 해상활동이 두 달 새 두 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27일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 Traffic)’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5일까지 최소 25척의 북한 선박들이 AIS, 즉 자동선박식별시스템(Automated Identification System)을 작동시키며 다시 해상활동을 재개함
 - 이는 지난 3월 같은 기간 최소 13척의 북한 선박들이 활동을 벌인 것과 비교해 두 달 만에 2배가량 증가한 수치임

■ “북, 플라스틱 해양 투기율 세계 2위”(자유아시아방송, 2021.6.4)

- 세계적인 국제 과학 학술지인 ‘사이언스 어드밴시스’(Science Advances)는 ‘1,000개 이상의 강이 전 세계 해양 플라스틱 배출량의 80%를 차지한다(More than 1,000 rivers account for 80% of global riverine plastic emissions into the ocean)’란 제목의 논문을 공개함
 - 논문에 따르면 북한의 경우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플라스틱 폐기물 발생량(MPW: the amount of generated mismanaged plastic waste)’이 연간 322톤에 달했음
 - 북한에서 ‘해양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량(the ocean Me)’의 경우 50톤으로 나타남
 -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 비율(Ratio Me/MPW)’은 15.51%로, 전 세계 166개국 중 해양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 비율이 2번째로 높았음

■ 북한, 어구설계 표준화 프로그램 개발 중(NK경제, 2021.6.6)

-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원산수산대학이 수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과학연구

성과들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고 6월 6일 보도함

- 원산수산대학은 기망당 물고기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어로기술과 관련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능률 높은 어구설계의 표준화를 실현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지원 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함
- 뱀장어 알 부화의 공정별 과학기술적 지표들을 확증한 것에 이어 새끼뱀장어와 관련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함

■ 북 주민 생활고로 꽃게잡이 일자리도 경쟁(자유아시아방송, 2021.6.7)

- 평안북도 용천군의 한 주민 소식통은 6일 “며칠 전 서해바다에서 꽃게잡이하고 있는 외화별이 회사에서 꽃게잡이 일공을 고용한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갔지만 나이가 많다고 채용해주지 않았다”고 전함
- “이날 일공 선발은 용천군 읍내에서 멀지 않은 외화별이 회사 사무실 마당에서 진행되었는데, 꽃게잡이 일공을 해서 식량별이를 하겠다며 타지에서 달려 온 젊은 남성들만 20여 명이 넘었다”면서 “20여 명 중에 10명만 뽑혀 채용이 되었는데 경쟁률이 생각보다 치열했다”고 함

■ 북한, 동해안에 폭우 경보...해상에도 중급경보(YTN, 2021.8.8)

- 조선중앙방송은 8일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고성을 비롯한 강원도의 일부 바닷가 지역에서 폭우를 동반한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이 예견된다고 보도함
- 방송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우와 많은 비에 의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고 당부함
- 동해상에는 오는 10일까지 센 바람과 높은 물결 중급경보가 발효 중이라며 높은 파도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보도함

■ 북한 외무성, 동해 해양권 관련 협의회 진행(NK경제, 2021.8.22)

- 북한 경제수역에 대한 일본의 불법 침입이 노골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8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인민군 총참모부, 국토환경보호성,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

기관 일군들과 전문가들의 협의회가 진행됨

- 독도와 일본의 도고섬의 등거리중간선, 독도와 일본의 해구라섬의 등거리중간선 그리고 북러경제수역 및 대륙붕 경계선에 의해 경계 지어지는 동해 경제수역에서 북한의 해양권을 고수하기 위한 대책들이 심중하게 토의됐다고 설명함

11. 생태계(동식물)

■ 북한, 물새 서식지 전면 조사(NK경제, 2021.4.4)

- 북한이 황새, 두루미 등 물새 서식지에 대한 전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국가과학원 생물다양성연구소가 지난 2월 하순 물새 서식지들에 대한 전면조사를 진행했다”며 “평양시와 평안남도, 황해남도, 강원도, 함경남도를 비롯한 내륙과 연안의 60여 개 습지들에 대한 조사에서는 60종에 약 16만 마리의 물새가 기록됐다”고 4월 4일 보도함
- 북한 연구진들은 흰두루미, 황새, 물개리, 갯두루미, 바다꿩, 흰죽지오리, 검은머리갈매기 등을 양화만, 신포항, 경포만, 마전연안, 금진강하구, 석담저수지, 만석저수지 등 동서해 연안 습지들에서 관찰했다고 함. 서해갑문호에서는 7만 6,000마리 이상, 9.18저수지와 금성간석지 일대에서 1만 마리 이상의 물새가 포착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 야생동물보호구 전면 조사(NK경제, 2021.5.1)

-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가 관련 기관들과 협력해 전국 야생동물보호구들에 대한 전면 조사를 하면서 동물 종류와 서식 조건을 분석하고 있으며 생물생태계가 잘 보존돼 있는 지역을 새로운 보호구를 설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함
- 위기 및 희귀종들의 생태보존과 생물다양성 보장, 유용동물보호 증식 등과 관련된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노력하고 있음
- 중앙식물원연구소는 유용경제식물, 원림식물들의 재배기술 확립과 우량품종 육종에 노력하고 있음

■ 북한 첫 현지조사, 금개구리 등 고유 양서류 18종 확인(『한겨레』, 2021.7.29)

- 남한의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와 금개구리 등 한반도에 고유한 양서류 18종이 북한에도 서식하는 것으로 밝혀짐
- 농약과 기계화 농업의 세례를 덜 받은 북한의 논에는 산악지대보다 양서류가 곱절이나 풍부해 대체 서식지로서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드러남
 - 남한에는 없는 작은 두꺼비는 신의주, 압록강, 칠보산, 평안북도 지역에 고립된 집단이 분포
 - 남한의 산지에 사는 북방산개구리는 북한에도 흔하며 백두산 천지에도 사는 것으로 밝혀짐
 - 남한의 멸종위기종인 수원청개구리는 경기도 파주까지 서해안을 따라 분포하는데 북한 청천강 하구인 평안남도 문덕에서 대규모 집단이 발견됨

12. 기후변화와 자연재해

■ 북 함경남도 부근 ‘규모 3.2’에 이어 ‘규모 2.3’ 지진…기상청 “자연지진”(KBS, 2021.2.8)

- 오전 7시 46분 북한 함경남도 부근 지역에서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함
- 지진의 진앙은 북한 함경남도 장진 북동쪽 43km 지역으로 분석됨
- 기상청에 따르면 자연지진으로 분석됨

■ 태풍피해 북 주민, 수용시설에서 겨울 보내(자유아시아방송, 2021.3.1)

- 작년 여름 태풍피해로 집을 잃은 일부 북한 주민들이 아직도 새 주택을 배정받지 못해 임시 수용시설에서 추운 겨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짐
- 당에서는 새 주택과 함께 김정은의 특별 선물로 살림도구 일체를 전달했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선물을 현물로 받은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현지 소식통들은 밝힘

■ 북한 대동강, 두만강, 압록강 등에 홍수관리지원시스템 구축(NK경제, 2021.3.27)

- 북한이 대동강, 청천강, 두만강, 금야강, 압록강 등을 대상으로 하는 큰물(홍수)관리지원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짐
- 자연재해관리에서 중요한 몫을 차지하고 중요한 경제적 의의를 가지는 홍수관리 분야에서뿐 아니라 세계적으로 물 자원이 계속 줄어들고 물 부족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에 맞게 물 자원을 정확히 평가하고 물 자원 관리를 보다 과학화하기 위한 연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힘

■ 북한, 유선통신 모뎀 기반 지진 데이터 전송 체계 구축(NK경제, 2021.4.19)

- 북한이 지진 측정 데이터 전송에 유선통신 모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내 무선, 인터넷망 등과 비교해 안정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 4월 19일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이 발행한 학보 지구환경과학 및 지질학 2020년 제66권 제4호에 ‘모뎀을 이용한 지전기관측자료전송 방법에 대한 연구’ 논문이 수록됨
 - 논문은 “모뎀을 이용하는 자료 전송이 유선통신의 한 가지 종류로 무선통신이나 컴퓨터망 통신에 비해 이용되는 설비들이 간단하고 그 설치가 쉬워 여러 분야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함
 - 논문은 “지전관측소에 설치된 모뎀이 지전관측자료를 유선전화 신호로 변환시키거나 유선전화 신호를 지전관측기로 넘기는 중계 역할을 수행한다”며 지진연구소에 설치된 모뎀이 유선전화 신호를 수자(디지털) 신호로 바꿔 컴퓨터로 넘기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함

■ 北 함경북도 길주 인근 규모 2.7 지진...기상청 “자연 지진”(YTN, 2021.4.19)

- 오늘 오후 3시 48분쯤 북한 함경북도 길주 인근 지역에서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함
- 기상청은 이번 지진의 진앙은 함경북도 길주 북북서쪽 약 40km 지역이며 깊이는 20km로 ‘자연 지진’으로 분석된다고 밝힘
- 이 지역은 과거 북한이 핵실험을 했던 풍계리로 핵실험 여파로 약화된 지각이 자연

붕괴하며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은 분석함

■ 북한 함경남도 부근 지역, 규모 2.2 지진(KBS NEWS, 2021.4.23)

- 오늘 새벽 2시 41분쯤 북한 함경남도 장진 부근 지역에서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함
- 이번 지진의 진앙은 함경남도 장진에서 동북동쪽으로 26km 떨어진 지역으로, 지진 발생 깊이는 6km임
- 기상청에 따르면 자연지진으로 분석됨

■ 북, 장마철 큰물피해 대책에 주민 동원(자유아시아방송, 2021.7.1)

- 중앙당의 지시로 주민들이 하천 제방 정리와 물길 정리 전투에 동원되고 있음
- 장마철 큰 비가 내릴 것이며 지역에 따라 폭우가 내릴 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큰물 피해에 대한 사전대책을 세워 농작물 피해를 철저히 막고 식량 증산에 만전을 기하도록 간부들을 다그치고 있음

■ 북한 "다음 주 내륙지방 35도 삼복더위...가뭄 피해 대비해야"(YTN, 2021.7.10)

- 조선중앙방송은 기상수문국을 인용해 오는 12일부터 아열대 고기압권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방에서 무더운 날씨가 지속될 거라며 전함
- 자강도 만포시와 함경북도 무산군 등 일부 내륙 지역은 기온이 영상 35℃까지 오를 것으로 보인다고 고온과 가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고, 주민 건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함

■ 북한 "22일부터 폭염...모든 부문 폭염 대책 마련"(NK경제, 2021.7.16)

- 북한 로동신문은 7월 22일경부터 무더위와 폭염이 시작된다며 모든 부문에서 폭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힘
- 폭염에 의한 피해를 막는 것이 단순히 실무적인 사업이 아니라 인민의 생명 안전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당 대회 결정 관철에서 이룩되고 있는 성과들을 공고히 하면서 더 큰 성과를 안아오기 위한 또 하나의 중요한 정치적 사업이라고 주장

■ 북한도 폭염에 신음…남포·사리원, 관측 이래 최고기온(헤럴드경제, 2021.7.23)

- 조선중앙TV는 폭염 소식을 전하며 남포와 사리원 낮 최고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최고를 기록했다고 보도함
- 기상수문국은 23일 오전 사리원 낮 최고기온이 36℃, 남포는 34℃까지 오를 것으로 예보함
- 평양의 낮 최고기온은 35℃로, 평년보다 6℃ 높았음

■ ‘2주째 폭염’ 북한, 대부분 지역서 농작물 피해…“벼 생육 지장”(『경향신문』, 2021.7.26)

- 황해남도 낮 최고기온이 평균 35℃ 이상을 기록했고 일부 지역은 36.5도 이상으로 높아져 “수천 정보(1정보=3,000평)의 논과 강냉이(옥수수)밭에 가물이 들어 벼의 생육에 지장을 주고 강냉이 잎이 마르고 있음
- 황해북도 서흥군, 자강도 중강·자성군, 강원도 고성·안변군, 함경남도 홍원·신흥군 등 여러 지역에서 옥수수밭과 콩밭이 깊이 5~20cm까지 마르고, 그 이하의 토양도 습도가 30~50%에 그치는 등 가뭄 피해 면적이 늘고 있음
- 함경북도 회령시에서도 옥수수 잎이 누렇게 변색하는 등 도 전체적으로 옥수수밭과 콩밭이 피해를 입음

■ “기후변화로 인한 북한 식량 감소·잦은 홍수, 한반도 안정 위협”(『한겨레』, 2021.7.29)

- 국제 기후변화 연구기관인 우드웰기후연구센터가 기후변화가 북한 체제 안정 능력을 손상시켜 한반도와 주변 지역에 대한 위협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힘
- 강수량과 온도 변화로 쌀과 옥수수 재배에 유리한 기후 조건이 해안 지역에서 내륙 지역으로 옮겨가고, 7년에 한 번꼴로 나타나는 벼 흉작이 5년에 한 번꼴로 더 잦아질 것으로 예측함
- 북한 쌀 생산량의 38%와 콩 생산량의 30%를 공급하는 함경남도와 평안북도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는 시기가 2035년까지 지금보다 매년 3개월가량 더 길어져 작황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내다봄

■ 북, 올 여름 첫 폭우로 피해 속출(자유아시아방송, 2021.8.5)

- NK뉴스는 인공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내린 집중 폭우로 함경북도와 함경남도 지역의 마을에서 피해가 나타났다고 전함
- 신흥군과 용광군에서는 강물이 넘치면서 가정집이 무너지고 도로와 다리가 파손됐으며, 함흥 인근 독산비행장과 함경북도 청진 인근 지역에서도 비슷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함
- 지난 해 여름 8호 태풍 ‘바비’와 9호 태풍 ‘마이삭’, 10호 태풍 ‘하이선’까지 잇달아 북한을 덮친 것 때문에 지금까지도 북한은 식량 확보에 큰 차질을 빚고 있음

■ 北, 함경남도 수해 복구에 총력…내부 위기에 "자력갱생" 강조(『서울경제』, 2021.8.9)

- 군 공병부대가 폭우와 홍수 피해를 입은 여러 지역에서 끊어진 도로를 연결하고 무너진 강하천 제방을 복구하고 있음
- 함경남도 지역은 폭우로 인해 주택 1,170여 세대가 침수돼 주민 5,000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도로 1만 6,900여 m와 강·하천 제방 8,100여 m가 파괴되면서 수백 정보의 농경지가 유실됨

■ 김정은 “자연재해 대비가 중심과제…방역대책 강화해 실시”(『한겨레』, 2021.9.3)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회의를 열고 수해 등 재해 대응과 코로나19 방역을 강화하라고 지시함
- 김 총비서는 “세계적으로 재해성 기상현상이 우심해지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 위험이 닥쳐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산과 강하천이 많고 해안선이 긴 우리나라에서는 (국토환경보호사업이) 국토 관리이자 경제 건설이고 인민들의 생명 안전과 국가 발전의 필수 조건”이라고 짚음
- 특히 “(모든 시, 군이) 자기 지역을 그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게, 안전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확대회의의 핵심 사상”이자 당의 경제정책 집행에서 “제일 우선적인 중심과제”라고 꼽음

■ 방울토마토만 한 우박이 후두둑…北, 수확기 앞두고 긴장(『서울신문』, 2021.9.18)

- 북한이 최근 방울토마토만 한 우박에 폭우와 강풍까지 예고되자 가을 이상기후에 따른 농업 생산 차질 우려에 바짝 긴장하고 있음
- 조선중앙TV는 17일 “최근 날씨의 특징은 전반적 지역에서 기온이 높고 일부 지역에서 재해성 기상현상이 나타난 것”이라며 “11일에 룡천, 영변, 경원을 비롯한 일부 지역에서 직경이 5~40mm인 우박이 내렸다”고 보도함
- 김정남 농업연구원 처장은 중앙TV와의 인터뷰에서 “다 지어놓은 낱알들이 우박 피해를 받으면 벼 이삭에서 알들이 많이 떨어지면서 소출이 50~60%, 심지어 90%까지 감소하는 큰 피해를 받게 된다”며 논에서 물을 빼고, 벼를 빠른 시일 안에 수확해야 한다고 당부함

■ 함경북도당, 가을철 위생월간 맞아 “큰물 피해 흔적 없애라”(데일리NK, 2021.9.22)

- 북한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9, 10월 가을철 위생월간을 맞으며 대대적인 소독을 벌일 것과 최근의 홍수피해 흔적을 없앨 데 대해 강조한 것으로 알려짐
- 함경북도당은 비상설조직인 도(道) 인민보건 지도위원회가 9월과 10월 두 달간의 위생문화사업에 대한 검열을 심도 있게 진행해 도 내 시·군들을 등수 매겨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는 전언임
- 이에 따라 오는 10월 10일 당 창건일을 맞으며 1차 위생문화사업 검열을 진행하고, 1차에서 지적된 내용을 2차 위생문화사업 검열 전까지 모두 개선한 후 최종적으로 검열하는 방식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으로 전해짐

■ 북한 “지구온난화 방지는 인류 공동의 절박한 과제”(NK경제, 2021.10.6)

- 북한이 지구온난화를 막는 것이 인류 공동의 과제라고 지적함
- 로동신문은 한 국제기구가 지구온난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시급한 행동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2050년까지 많은 피난민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고 소개함
- 로동신문은 물 부족과 각종 자연재해로 곡물생산량이 감소하고 있다며 가뭄과 폭우,

산사태 등으로 인해 농민들이 가꾸던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힘

■ 북한 평양 도시열섬 현상 공식 확인(NK경제, 2021.10.26)

- 북한이 중국과의 합동 연구를 통해 평양 지역에서 도시열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 김일성종합대학 연구진들은 “북한에서도 최근 수십 년간 연평균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고 있으며 특히 평양시를 비롯한 도시 지역들에서 대기 온도의 상승과 대기 습도의 하강과 같은 도시열섬효과가 관측되고 있다”고 함
- “이런 열섬효과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은 연구 지역의 기후변화를 평가함에 있어서 기온상승의 과대평가를 극복하고 기후변동과 그 예측연구에서 보다 객관적이며 과학적인 연구결과를 얻는 데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함

■ “남북 자연재해 관측 협력, 양측 모두에 이익”(자유아시아방송, 2021.10.27)

- 한국의 기상 감정 기업인 ‘웨더피아’는 남과 북이 기후변화와 자연재해를 함께 예측하고 대응 가능한 수준까지 통합 조직을 만들면서 북한 내에 이와 관련한 관측 장비 및 시설을 구축하는 데 5년 동안 연간 2,000억 원, 미화로 약 1억 7,0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산함
- 양측이 얻을 이익은 최대 1조 509억 원, 미화로 9억 달러에 가깝다는 설명임
- 이는 지난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연평균 자연재해 피해규모 추산치를 토대로 계산된 것임

13. 보건과 환경오염

■ 북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 개최(NK경제, 2020.12.9)

-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가 ‘우주과학기술토론회-2020’를 개최하였음
- 조선중앙통신은 우주과학기술토론회가 로동당과 북한 정부의 우주개발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사업에서 이룩된 과학기술 성과들을 널리 소개하고 보급하며 우주과학기술

발전을 추동할 목적으로 해마다 열고 있다고 소개함

-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업종합대학, 국가과학원, 농업성 등 과학교육기관, 성, 중앙기관의 과학자, 기술자, 교원 등이 참여함

■ WHO "북한 사망원인 1위 뇌졸중...전염병으로 결핵"(아시아경제, 2020.12.10)

- 세계보건기구(WHO)는 지난해 북한 인구의 사망원인 중 1위는 뇌졸중이고, 전염병 중에는 결핵이라고 추정함
- 10일 WHO의 '2019 세계 건강 추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최다 사망원인은 뇌졸중으로, 인구 10만 명당 193.4명이 이 병으로 사망함
 - 심혈관 질환(122.1명 이하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과 만성폐쇄성폐질환(102명)이 뒤를 이음

■ 자강도 생화학무기 공장 인근서 물고기 떼죽음...무슨 일이?(데일리NK, 2020.12.30)

- 북한 자강도 강계시에 위치한 강계화학공장(361호 공장)에서 유해성 물질이 흘러나와 인근 장자강(자강도 용림에서 발원하여 만포를 거쳐 위원으로 흐르는 강)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 지난 10월 10일 당 창건 75주년을 맞으면서 강계화학공장을 만가동(완전 가동)하기 시작했는데 이후 장자강 오염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짐

■ 북, 지난해 11월 러시아서 의료용품만 수입(자유아시아방송, 2021.1.14)

- 북한이 지난해 11월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품이 의료용품뿐인 것으로 확인됨
- 14일 러시아 연방 관세청(Federal Customs Service)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물품은 미화 약 23만(\$229,075) 달러어치로, 전년인 2019년 동기 대비 90% 가까이 감소함
- 지난해 11월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약 23만 달러 상당의 물품 중 모두가 항혈청, 의약품, 심박 조율기와 보철 등 모두 의료용품이었음

■ 위생월간 맞은 평양시민들 꾸리기 사업 자재비용 부담에 ‘공공’(테일리NK, 2021.3.2)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생활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 수도 평양의 시민들이 3, 4월 봄철 ‘위생월간’을 맞아 시작되는 꾸리기 사업에 상당한 부담감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경제난 속에서 국가가 꾸리기에 필요한 자재를 부담할 수 없는 조건이라 주민 부담으로 돌리고 있는데, 실제 시내 모든 구역에서는 인민반을 통해 주민들이 꾸리기 자재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것으로 알려짐

■ 북, 국내산 진정제·수면제 부작용 심해 판매 금지(자유아시아방송, 2021.3.18)

- 함경북도의 한 주민 소식통은 17일 “함경북도에서 주민들이 디아제팜(진정제)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해 사망하는 사고가 여러 건 발생해 이 문제가 중앙에까지 보고되어 이를 대책할 데 대한 지시가 내려졌다”면서 중앙의 지시에 따라 사회안전기관들과 의료기관이 협동하여 사건 경위 조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힘
- “이번에 판매금지약으로 지정된 약들은 앞으로 필요한 환자가 복용해야 할 경우에도 담당 의사는 물론 병원의 기술부원장, 원장까지 비준해야만 환자들에게 소량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존에는 이런 약들은 약국이나 약장사꾼들로부터 돈만 주면 마음대로 구입할 수 있었다”고 말함

■ 북한 “향후 5년 내 전국 모든 의료기관 원격진료시스템 구축”(NK경제, 2021.3.23)

- 북한 당 8차 대회와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향후 5년 내에 전국의 모든 의료기관에 원격진료시스템을 갖추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짐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당 8차 대회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2차 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건성 등이 의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한다고 3월 22일 보도함
- 조선의오늘에 따르면 북한 보건성은 5개년계획에 따라 의료 정보 사업 계획을 작성했다고 함. 보건성은 전국적 범위에서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시스템)를 확대하고 주민건강관리체계와 구급의료봉사체계, 의료봉사의 품질관리체계를 비롯한 여러 의료봉사시스템을 완성하고 의료서비스의 지능화를 더욱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정했다고 함

■ 대낮에도 병원 ‘텅’ 비어있어…혼자 아기 낳던 임산부 끝내 사망(데일리NK, 2021.3.24)

- 북한 함경북도 온성군의 한 여성 주민이 의사가 없는 병원에서 혼자 아기를 낳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짐
- 소식통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북한의 경제난이 심화하면서 배급도, 생활비(월급)도 받지 못한 의사들이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있는 형편

■ 북한, 약 품귀 현상으로 가격 폭등… “진통제 140% 뽕충”(데일리NK, 2021.4.15)

- 북한에 약 품귀 현상으로 인해 가격이 폭등했다고 소식통이 전함
- 돈이 있어도 물량이 부족해 약을 구하지 못하는 일도 발생해 주민들의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
- 평안남도 소식통은 14일 데일리NK와의 통화에서 “시장에서 약품 부족 현상이 확산하여 주민들의 건강에 엄중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며 “정통편(진통제) 등 중국산 약품의 경우 돈을 가지고도 구매가 힘들다”고 전함

■ “북, 국경 봉쇄 속 의약품 확보 적극 나서”(자유아시아방송, 2021.4.12)

- 코로나19로 인한 국경 봉쇄로 가뜩이나 열악한 북한의 의료보건 체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북한 당국이 의약품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소식임
- 일본의 언론매체 아시아프레스 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 대표는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 당국이 중국으로부터 의약품을 들여오기 위한 준비에 적극 나설 것을 일선 무역대표들에게 지시했다고 말함

■ 북한 “도, 시, 군 지능의료봉사시스템 도입 추진 중”(NK경제, 2021.4.18)

- 북한이 의료 분야 과학화, 현대화를 위해 각종 의료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 노동신문은 “도, 시, 군급 치료예방 기관들에 지능의료봉사체계(시스템)를 도입하기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된다”고 4월 18일 보도함

- 또 로동신문은 “먼거리의료봉사체계(원격진료시스템)와 주민건강관리체계, 의료봉사의 품질 관리체계의 도입을 적극 추진하고 중앙과 도, 시, 군급 치료예방 기관들의 구급의료 봉사체계를 더욱 완성하고 외래 의료 봉사를 개선하는 것도 보건 부문 앞에 나서는 과업들 중의 하나”라고 지적함

■ 북한 대동강의료기구제작소, 건강 활성 카드 개발(NK경제, 2021.5.1)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오늘의조국사가 발행한 잡지 2021년 금수강산 5월호에 대동강 증진무역회사 대동강의료기구제작소가 개발한 초면적외선건강활성카드가 소개됨
- 이 카드는 초면적외선(THz)을 내보내는 재료가 높은 농도의 공기음이온을 지속적으로 발생시켜 인체의 피 흐름을 개선시키며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함
- 대동강증진무역회사 대동강의료기구제작소가 개발한 제품으로 2019년 1월 북한에서 특허증서를 받았다고 함

■ WHO “북 주민 기대수명, 한국보다 약 11년 짧아”(자유아시아방송, 2021.5.21)

- 세계보건기구(WHO)가 21일 공개한 ‘2021년 세계보건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주민들의 기대 수명은 72.6세로 추정됨
 - 한국 주민의 기대 수명은 83.3세로 북한 주민보다 약 11년을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북한은 산모사망률, 5세 미만 유아 사망률, 신생아 사망률, 결핵 발병률, 말라리아 발병률, 북한 대기오염으로 인한 사망률 등 각종 보건통계 수치가 한국보다 높아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 보건의료도 ‘자력갱생’ 외치는 북한… “우리식의 예방약 만들어야”(데일리NK, 2021.7.19)

- 북한 함경북도 당위원회가 자체의 힘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를 개발할 데 대한 문제로 일꾼들과 기술자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짐
- 도당은 전 세계적인 변이 바이러스 확산 상황을 언급하면서 “지금 다른 나라나 국제단

체나 국제기구들에서는 코로나 예방주사(백신) 지원 시기도 정해진 것이 없고 오히려 저들이 살기에 급급한 처지라 언제 코로나 예방주사가 차례질 지 한 치 앞도 못 가려볼 형편”이라고 지적함

- “신약과 고려약(한약) 생산을 전반적으로 활성화·과학화·기술화하고, 자력갱생의 정신을 발휘해 인민들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해야 한다”, “현 정세에 맞게 제조기술을 대담하게 받아들이고 연구개발을 다그쳐 우리식의 예방약을 만들어 내놓아야 한다”, “도당과 도 인민위원회가 모든 연구와 생산기술적, 인적 문제를 전적으로 맡겨줘야 한다”는 등의 토의가 진행됨

■ 김정은, 전염병 전문 ‘격리시설’ 건설 지시…방역 장기화 염두?(데일리NK, 2021.8.9)

- 북한 당국은 최근 보건성과 각 지역 인민위원회에 평양을 제외한 각 지역에 전염병 전문 격리시설을 건설하기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하달함
- 지난해 8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을 통해 「비상방역법」을 채택했는데 이번 지시는 해당 법령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분석됨
- 북한 당국은 각 지역 전문 격리시설 설치를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에 포함시키고 국가계획위원회가 건설 상황을 점검하도록 했다는 전언임

■ “북 보건의료 상황 열악…교류협력 필요”(자유아시아방송, 2021.9.6)

- 코로나 사태와 대북제재로 의약품과 의료장비 공급이 어려워 북한 내 보건의료 상황이 여전히 열악하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남북 간 교류협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옴
- 장지혜 어린이의약품지원본부 간사는 북한 내 코로나 사태와 관련해선 진단 검사를 많이 해야 확진자 수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북한은 여전히 확진자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함

■ “북, 폐암발생률 높아…금연부터 실천해야”(자유아시아방송, 2021.9.10)

- 북한에서 노인의 폐암 발병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엇보다 북한 주민

의 흡연율을 낮추는 등 금연부터 실천해야 한다는 지적임

- 북한 남성의 흡연율이 전체 남성 인구의 절반에 가까움
- 석탄 등 화석연료로 인한 대기오염도 폐암을 유발하는 중요한 요인임

■ 유니세프 “북 어린이 5명 중 1명은 발육부진”(자유아시아방송, 2021.9.22)

- 유엔 산하 유니세프(UNICEF), 즉 세계아동기금이 22일, 전 세계 각국 어린이들의 영양섭취 실태를 파악한 ‘2021 어린이 영양보고서(Child Nutrition Report 2021)’에 따르면 이들 북한 어린이들 가운데 2020년 기준으로 ‘발육부진’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18%에 달함
- 이는 지난 2012년 26%에 비하면 많이 줄어든 수치이지만, 한국의 2퍼센트 그리고 미국의 3%와 비교하면 성장발달장애 어린이가 북한에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북한은 가뭄과 홍수 등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만성적인 식량 부족 현상에, 코로나 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외부 지원물품의 북한 내 반입이 중단되면서,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 그리고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원활한 영양공급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고려 수의 의약 생산공장 꾸려라”…북한, 가축 전염병 차단 골몰(NK경제, 2021.10.5)

- 북한 당국이 최근 육류 생산 저하에 주요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수의 방역 문제를 지적하면서 관련 조치를 하달한 것으로 전해짐
- “돼지, 토끼, 닭, 염소를 비롯한 육류생산을 만가동하여 주민들의 식생활을 풍족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지시가 각 지역에 하달됨
- 이는 이른바 코로나 경제난에 봉착한 주민들의 먹는 문제 해결을 위해 당국이 각종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됨

■ “북 기아 ‘심각’…영양결핍 인구비율 세계6위”(자유아시아방송, 2021.10.14)

- 아일랜드의 국제인도주의단체 컨선월드와이드는 14일 독일의 세계기아원조와 함께

‘2021년 세계기아지수’ 보고서를 발표함

- 보고서는 북한의 올해 기아지수를 25.2점으로 산출하고, 북한이 116위가 최하인 순위 중 96위를 차지했다고 밝힘
- 북한은 영양결핍 인구비율이 42.4%로 전 세계에서 소말리아(59.5%), 중앙아프리카 공화국(48.2%), 아이티(46.8%), 예멘(45.4%), 마다가스카르(43.2%)에 이어 6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북 일부 농장원들, 농약 중독에 의한 간질환에 시달려(자유아시아방송, 2021.10.29)

- 웅진군 내 협동농장들에서 다수의 농장원들이 농약 중독 증상으로 보이는 간질환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면서 “농장원들은 농약을 분사기(분무기)로 살포하는 과정에서 농약이 체내에 흡수되어 병이 생겼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함
- 소식통은 “최근 농약중독 증상을 호소하는 농장원들은 대부분 눈의 흰자위 부분과 얼굴 피부가 황색으로 변하고 다리에 심각한 부종이 생기는 황달 증세를 보여 병원을 찾고 있다”면서 “환자들은 모두 의사로부터 간경변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아무런 방호 장비 없이 맨 손으로 농약을 뿌린 것이 원인이라는 소견을 들었다”고 언급함
- 농장원들은 농장관리위원회를 찾아가 농약중독으로 질병이 생겼으니 농장에서 책임 지고 치료해달라고 강력하게 호소했으나 농장 측에서는 수년 전에 살포한 농약이 지금에 와서 신체의 이상이나 질병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이들의 호소를 외면하고 있다”고 함

14. 환경정보화와 과학기술

■ 북한 전원회의 2일차 “과학기술 견인기적 역할 높여야”(NK경제, 2021.2.10)

- 북한 김정은 로동당 총비서가 당 전원회의 2일차 회의에서 과학기술이 견인기와 같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함
- 로동신문에 따르면 김 총비서는 과학기술의 견인기적 역할을 높이는 것이 가지는 중요성을 재확인했음

- 현재 경제 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개선 향상시키는 데서 절박하게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선차적으로 해결하며 핵심적이고 전략적인 첨단기술들을 적극 개발하고 과학연구역량, 과학기술인재역량을 잘 꾸리는 데 특별한 힘을 넣을 것에 대해 상세히 언급했다고 함
- 체신, 국토환경, 도시경영 부문에서 주민들에게 편리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에 집행해야 할 사업들을 언급하고, 대외경제 부문에서도 국가경제를 보호하고 자립성을 강화하는 견지에서 작성된 혁신적이며 합리적인 방안들을 실행할 것을 강조함

■ 북한 “과학기술이 전략자산이라는 것이 당 전원회의 결정”(NK경제, 2021.3.26)

- 로동신문은 사회주의 위업을 전진시키는 데 과학기술전선이 제일척후 전선이라고 강조함
- 교육, 보건, 체육, 문학예술을 비롯해 어느 부문이라 할 것 없이 과학기술의 발전을 떠나서는 한 걸음도 전진할 수 없다는 것임

■ 북한 “우리 민족이 강수량 세계 최초로 과학적 측정”(NK경제, 2021.6.3)

- 북한이 조선시대 만들어져 사용된 측우기가 세계 최초로 강수량을 과학적으로 측정한 기구였다고 소개함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우리 민족은 뛰어난 지혜와 재능으로 훌륭한 물질문화적 재부를 창조해 인류문화의 보물고를 풍부히 하는 데 기여했다”며 “그 가운데는 우리 선조들이 1441년 8월부터 기상관측에 이용한 비내림양측정기구인 측우기도 있다”고 6월 3일 보도함

■ 북한, 태풍 피해 대비에 IT 기술 도입 추진(NK경제, 2021.6.13)

- 북한이 여름철 장마와 태풍으로 인한 피해 대비를 위해 대동강 치수 관련 과학기술(IT) 체계를 추진 중임
 - 평양컴퓨터기술대학을 비롯한 해당 단위와의 협동 밑에 대동강 수위를 과학적으로

조절하는 통합지휘체계 도입에 힘을 넣고 있다"고 밝힘

- 노동신문은 “이 체계가 도입되면 대동강 유역의 기상 수문 자료들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지휘조에서 큰물에 대한 분석과 예보를 보다 과학적으로 하게 되고 연관 단위들이 국가망을 통해서 통일적으로 큰물 지휘를 진행하는 정연한 사업체계가 세워지게 된다”고 강조함

■ 북한 IT로 가뭄 대비 정보 보급(NK경제, 2021.7.18)

- 조선의오늘은 “농업성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홈페이지 황금별, 먼 거리 영농기술문답봉사체계 등을 통해 고온, 가뭄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과학기술적 방법들을 보급하고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들을 현장에 파견해 대책을 세워나가고 있다”고 보도함
- 고온과 가뭄으로부터 논벼를 보호하고 생육을 개선하기 위한 농업기술적 대책들이 심화되고 있음
- 농장들에서는 저습 논과 냉습 논, 충적지 논, 간석지 논들에 물 공급 방법들을 적용해 논벼의 활성을 높이고 뿌리썩음병을 막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으며 여러 성장 촉진제분무와 비료 주기를 통해 벼의 생리적 활성을 높여주고 나노규소비료, 아미노 산미량원소복합비료 등을 생산, 이용해 농작물들에 부족한 영양소들을 보충해주고 있다고 함
- 고온 다습에 의해 병해충들이 발생할 것에 대비해 예보사업을 강화하고 병해충을 구제해 농작물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라고 함

■ 北, IT·건설·전력 과학기술발표회..."기술 교류"(YTN, 2021.8.20)

- 조선중앙통신은 정보 부문과 건설 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과학기술총연맹 중앙위원회 등 주최로 지난 17일부터 사흘 동안 화상회의 형식으로 각각 진행했다고 보도함
- 16일부터 18일까지는 전력공업 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지난달에는 제약 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진행함
- 북한은 지난 5월에도 수산 부문·자동차 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연이어 열어 부문별로 수십 건에서 100여 건의 논문을 발표함

■ 북한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잘 해야”(NK경제, 2021.9.4)

- 북한 로동신문은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잘 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을 계획화, 정상화해 농사에서 실지 은(효과가)이 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도함
- 로동신문은 많은 단위들에서 농업과학기술보급실 운영을 실속 있게 해나감으로써 농업근로자들을 농업과학기술과 앞선 영농방법을 잘 알고 모든 농사일을 과학기술적 이치에 맞게 해나가는 과학농사의 담당자, 주인공으로 준비시키는 사업에서 진전을 가져오고 있다고 설명함
- 반면 일부 단위들에서는 농업과학기술보급실을 꾸려놓는 것에 그치고 운영을 목적 지향성 있게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처럼 과학기술보급사업을 잘 수행하지 못해 농업과학기술이 생산에 도입되는 비율이 낮고 귀중한 연구 성과들이 응당한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북한, 청년과학기술행군 성과 강조(NK경제, 2021.9.7)

- 북한 선전매체 아리랑메아리는 북한 청년들이 과학과 기술로 청년과학기술행군을 진행하며 경제 부문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도함
- 황해제철련합기업소 기술혁신청년돌격대원들은 천리마 시대의 강철 전사들처럼 더 많은 철강재를 생산할 일념을 안고 사색과 탐구를 거듭해 폐설물에 의한 단열벽돌 제조 방법과 압연기용 축반이를 제작함
- 홍남비료련합기업소, 2.8비날론련합기업소 청년들은 탄산가스흡착공정에서 수소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혁신안을 연구도입하고 유산농축 공정의 폐가스 흡수기를 개선해 환경보호를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 보통강 수질개선 위한 과학기술 대책 마련(NK경제, 2021.9.8)

- 북한 로동신문은 보통강 생태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것에 대한 당의 뜻에 따라 수질 개선에 대한 과학기술적 대책을 세우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함
- 이 사업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도시경영성, 김일성종합대학, 평양건축대학, 국가 과학원, 평양시과학기술위원회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강 유역에 수질정

화, 큰물(홍수)조절, 생물다양성보호와 같은 기능들이 결합된 생태복원시범 구역을 꾸리기 위한 사업을 추진 중임

- 로동신문은 수질을 정화하면서도 경제적 수익성이 높은 큰 단백질의 공업적 재배와 처리기술을 완성해 보통강 유역에 도입하기 위한 과학기술 대책들이 마련되고 있다고 전함

■ 북한 “올해 경제계획 완수 과학기술이 지름길 열어야”(NK경제, 2021.9.21)

- 로동신문은 “경제 전반을 정비보강하고 자립적 토대 위에 확고히 올려 세우며 최대한 생산하고 건설해 인민생활을 안정,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을 잘하기 위해 과학기술을 생명선으로 틀어 쥐어야 한다”고 보도함
-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제기술적 문제들을 시급히 해결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이 당과 국가 앞에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중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명심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애국적 헌신성을 높이 발휘해야 한다고 밝힘
- 로동신문은 오늘 북한의 과학자, 기술자들 앞에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새로운 5개년 계획 수행의 첫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투쟁을 견인하고 당 제8차 대회 결정 관철에서 전진을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 있다고 지적함

■ 북한, AI 통한 질환 연구 활발?... “딥러닝으로 폐 결절 검출”(데일리NK, 2021.10.19)

- 북한의 인공지능(A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딥러닝을 이용해 새로운 컴퓨터단층촬영(CT) 분석 방법을 개발하는 것으로 나타남
-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제67권 제2호에는 ‘컴퓨터단층촬영화상에서 3차원 U-Net 중첩신경망에 의한 폐 결절검출 방법’이라는 논문을 통해 폐 결절 검출정확도를 보다 높일 수 있었다고 밝힘
- 3D U-Net을 통해 이미지를 검출한 이미지로 결핵이나 곰팡이와 같은 감염성 질환 또는 폐암을 진단할 수 있다는 것임

■ 김정은 총비서 경제, 생활 관련 과학기술 개발 지시(NK경제, 2021.10.28)

- 과학기술 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과학기술 중에서도 경제, 생활에 밀접한 과학기술 개발을 우선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짐
- 식량 문제와 인민소비품 문제를 비롯한 생활 문제들을 푸는데 과학자, 기술자들이 한몫 단단히 할 것을 바라고 있다고 전함
- 전력 문제,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든 북한의 자원과 기술로 풀어나가야 한다고 밝힘
-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물공학기술을 비롯한 첨단과학기술 부문들에 힘을 쏟으며 특히 전망이 확고한 연구 대상에 힘을 집중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도록 하며 그것을 토대로 전반적 과학기술을 빨리 발전시켜 나가도록 지시했다고 전함

■ 북한 “땀 쏟아 부어도 과학농사 안 하면 결실 기대 못해”(NK경제, 2021.10.29)

- 북한 로동신문이 과학농사를 하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없다며 과학농사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라고 지적함
- 로동신문은 “현시대는 과학농사의 시대이며 농업생산은 자연기후 조건이 아니라 농업 과학기술에 의해 담보된다”며 “아무리 다수확을 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포전마다 땀을 쏟아 부어도 과학농사를 하지 않고서는 좋은 결실을 기대할 수 없다”고 10월 29일 보도함
- 로동신문은 알곡증산의 열쇠, 다수확의 지름길이 과학농사라며 과학농사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기 위해서는 농업부문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이에 대한 인식을 바로가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주장함

■ 북한, 국가산림관리종합정보시스템 1.0 개발(NK경제, 2021.11.7)

- 북한 선전매체 통일외메아리는 김일성종합대학, 국토환경보호성, 국가과학원 등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산림조성과 보호 관리를 종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산림관리종합정보체계(시스템) 1.0을 개발했다고 보도함
- 이 체계는 산림통합경영정보체계, 산림지리정보체계, 산림자원관리지원체계와 기타 체계들로 구성돼 있음

- 산림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는 산림부문 기관, 기업소들의 노력 상태, 산림경영계획, 설비 및 물자보관관리, 재정관리, 채종, 조림, 임농, 산림보호 상태 등이 자료기지(DB)화 돼 있음
- 산림지리정보시스템에는 전국 산림 주제 지도가 화상자료로 구축돼 있으며 산림자원 관리지원시스템에는 각 지역의 산림자원상태, 산림조성방법, 변동자료들과 산불, 병해충, 산사태 등의 자료들이 등급별로 구축돼 있음
- 기타 시스템들에는 산림부문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 국내의 과학기술 자료들, 연관 부문의 자료들이 반영된 새 기술도서, 정기간행물, 제품들이 동화상, 사진, 전자문서로 구축돼 있음

■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출범(NK경제, 2021.11.9)

- 통일부는 11월 10일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출범을 선포하고 11월 10일, 11일 이틀 간 ‘2021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힘
- 한반도 보건의료 협력 플랫폼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그 새로운 가능성의 토대가 될 ‘상생과 공존’의 플랫폼으로 한반도 보건의료 분야에 관한 모든 의제를 상시적으로 논의·조율할 수 있는 통합적인 협의체임
- 한국 정부와 지자체, 국제기구와 국내외 민간단체, 국내외 학계·전문가 등 그동안 대북 보건의료 협력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단체나 개인뿐만 아니라 앞으로 북한과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새로운 협력을 준비하는 단체나 개인들도 누구나 참여할 수 있음

■ 북한, 큰물재해관리정보시스템 개발(NK경제, 2021.11.9)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와 수리공학연구소가 수력발전소들에서 자연재해 예방 능력을 높일 수 있는 큰물재해관리정보체계(시스템)를 개발 도입했다고 보도함
- 조선중앙통신은 저수지 유역의 강수 상황에 따른 수위 변화와 큰물(홍수)량을 사전에 예측 조절할 수 있는 정보체계의 개발, 도입으로 홍수 피해를 최소화하고 안정된

전력 생산을 보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함

■ 북한,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 2021.11.13)

- 북한 로동신문은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가 전국석탄공업부문 과학기술발표회가 11월 10일부터 12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다고 보도함
- 이번 발표회는 석탄공업부문에서 생산능력을 높이기 위한 과학기술성과들을 공유하기 위해 열렸다고 함
- 발표회에는 김책공업종합대학, 평성석탄공업대학, 국가과학원 지질학연구소, 북창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구장지구탄광연합기업소 등 20여개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160여 건의 논문이 발표됨

■ 北 보건성, 결핵 환자·사망자 속출하자 “격리시설 강제 수용” 지시(NK경제, 2021.11.16)

- 최근 북한에서 결핵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당국이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전면적인 격리 조치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됨
- 데일리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내각 보건성은 지난 13일 각 지역 의료기관과 인민위원회에 결핵 증상자를 일괄적으로 진단 검사하고 결핵으로 판명되면 격리 시설에 수용하라는 지시를 내림
- 특히 북한은 결핵 환자 강제 격리를 지시하면서 병실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시 건물이라도 지어서 격리 시설을 설치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전해짐

■ 북한 지구환경정보연구소, 국가통합재해관리정보체계 개발(NK경제, 2021.11.26)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국가과학원 지구환경정보연구소가 국가통합재해관리정보체계를 연구, 개발했다고 밝힘
- 이 체계는 공간정보기술을 받아들여 자연재해를 받게 될 지역들을 사전에 예측하며 재해 발생 시 상황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
- 조선중앙통신은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해 재해성 기상현상들을 3차원적으로 모형화하

고 분석하는 방법이 수립됨으로써 전국적인 범위에서 발생하는 큰물(홍수), 태풍, 가뭄 정형을 실시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완성됐다고 설명함

■ 북한,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 진행(NK경제, 2021.11.26)

- 북한 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북한 조선과학기술총련맹 중앙위원회가 전국양어부문 과학기술발표회를 11월 23일부터 25일까지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밝힘
- 이번 발표회는 양어와 양식을 대대적으로 해서 수산물 생산을 늘리려는 당 정책을 수행하고 양어에서 기본인 먹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관련된 과학기술 성과와 경험들을 소개 선전하고 보급 일반화하기 위해 열림
- 이번 행사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형직사범대학, 원산수산대학, 남포수산대학, 수산연구원, 원산양어사업소, 삼천메기공장, 함흥메기공장 등 30여개 단위의 과학자, 기술자, 박사원생, 학생들과 현장 일꾼 등이 참가함

15. 정치경제

■ 올해 경제건설예산 0.6% 증액...증가율 대폭 감소(자유아시아방송, 2021.1.18)

- 18일 북한의 관영매체에 따르면 북한이 올해 경제건설 부문에 책정한 예산은 지난해에 비해 불과 0.6% 증가함
- 이는 지난해 해당 예산이 전년 대비 6.2% 늘어났던 것에 비하면 매우 미미한 수준임
- 이번 달 제8차 당 대회에서 중심 과제로 지목된 금속·화학공업과 농업, 경공업 등 인민경제 관련 투자도 0.9% 증가하는 데 그침

■ 김정은 “올해 경제계획 달라진 게 없어”...경제부장 교체(『한겨레』, 2021.2.12)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나흘간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올해 경제계획 수립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신랄히 비판하고 당 경제부장을 1달 만에 교체함
- 조선중앙통신은 12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가 2월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됐다”며 “(김정은 총비서가) 여러 부문의 사업을 신랄히 비판했다”고 보도함

- 김정은 총비서는 보고에서 “내각에서 작성한 올해 인민 경제계획이 그전보다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며 “내각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으며 성에서 기안한 숫자를 기계적으로 종합하다 보니 어떤 계획은 현실 가능성도 없이 높여놓고 어떤 부문에서는 반드시 해야 할 것도 계획을 낮추는 폐단이 나타났다”고 지적했음
- 부문별로는 농업에서 영농자재 보장이 어려운 상황에도 알곡 생산목표를 주관적으로 높였다고 “관료주의와 허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고 꼬집음
- 전력 부문에서는 “탄광·광산에서도 전기가 보장되지 않아 생산이 중지되는 애로가 존재한다”고 이례적으로 전력난을 인정하면서, 올해 전력생산계획이 현재 수준보다 낮은 것을 문제 삼음

■ ‘수입물자소독법’, ‘동해안 건설계획’ 등 채택...금강산 포함된 듯(YTN, 2021.3.4)

- 북한이 코로나19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사회보험법」과 「수입물자소독법」을 채택하고 금강산 일대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동해안지구 국토건설계획’을 승인했다고 전함
- 「수입물자소독법」은 국경에서 수입 물자를 소독하도록 하고 관련 절차와 방법, 질서를 어기면 처벌하도록 한 법으로, 북한이 1년 넘도록 봉쇄하고 있던 국경을 일부 열고 무역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됨

■ “김정은, ‘특별명령서’에 식량·전기·수도 공급 정상화 의지 드러내”(데일리NK, 2021.6.30)

-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최근 노동당 제8기 중앙위원회 3차 전원회의에서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직접 서명한 ‘특별명령서’에는 식량 문제뿐만 아니라 전기, 수도, 쌀감 공급의 정상화를 위한 지시도 담겨 있었던 것으로 전해짐
- 매체는 특별명령서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식량 공급의 정상화, 전기, 수도 및 쌀감 공급, 주택문제 해결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는 게 소식통의 전언임
- 200여 개 도시의 전력, 수도 공급 수준을 등수화해 1년에 한 번씩 총화(평가)를 통해 책임비서들에 대한 상벌 조치를 실시한다는 지시도 하달함

■ 北 함경남도 수해에 당 군사위 확대회의 긴급소집(『국민일보』, 2021.8.8)

- “함경남도 당 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소집되었다”며 리정남 함경남도 당 책임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지시를 전달함
- 당 중앙군사위는 “공병부대들로 피해지역의 파괴된 도로들을 시급히 복구하며 도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들을 함경남도 당 군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동원시켜 도의 역량과 협동 밑에 피해복구를 다그쳐 끝낼 데 대한 지시”를 하달함
- 회의에서는 “확정된 피해복구 규모에 따라 해당 지역들에 급파할 건설역량 편성과 설계 선행, 자재 수송을 비롯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토의했으며 “도 안의 당, 행정, 안전, 보위 기관 책임 일군들과 인민군대 군정 간부들로 강력한 피해 복구 지휘조”를 조직함

■ 저자약력

강택구 (연구책임)

중국 칭화대학교 국제관계학 박사

한국환경연구원 연구위원(현)

tgkang@kei.re.kr

주요 연구실적

- 중국 대기정책결정 분석과 한중협력의 시사점 (2021)
- 신남방정책과 대ASEAN 환경협력: 전략의 모색과 교육의 역할 (2020)
- After Breaking the Deadlock: Extending Cooperation with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through Natural Disaster Management (공저, 2019)

이준호

EC21R&C 주임연구원(현)

james@ec21rnc.com

이경민

EC21R&C 책임연구원(현)

kpeople@ec21rnc.com

김진환

EC21R&C 선임연구원(현)

izen@ec21rnc.com

※ 본 책자는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용지로 인쇄되었습니다.



KEI 북한환경동향 2021년

KEI 한국환경연구원
Korea Environment Institute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B동(과학·인프라동)
전화 044-415-7777 팩스 044-415-7799 <http://www.kei.re.kr>



9 791159 805356
ISBN 979-11-5980-535-6
ISBN 979-11-5980-530-1 (세트)